

2025년도 국정감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록

(임시회의록)

국회사무처

피감사기관 한국콘텐츠진흥원|국립국어원|국립국악원|국립중앙극장|국립아시아문화전당
|대한민국예술원사무국|세종학당재단|영화진흥위원회|영상물등급위원회|
한국영상자료원|게임물관리위원회|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보호원|국립
아시아문화전당재단

일 시 2025년10월23일(목)

장 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교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콘텐츠진흥원, 국립국어원, 국립국악원, 국립중앙극장,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대한민국예술원사무국, 세종학당재단, 영화진흥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한국영상자료원,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에 대하여 2025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유현석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리 및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 등 관계자 여러분께 국정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국정감사 대상인 14개 기관들은 게임, 방송, 영화, 음악, 예술 등 문화 전반의 콘텐츠를 수집·관리하고 보존하며 산업 진흥과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국어 발전을 위한 어문정책의 수립·시행, 국악의 원형 보존·전승 및 계승, 저작권 보호와 분쟁 중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K-콘텐츠 수출의 지속적 확대를 위한 정책 마련, 불법 게임물 등으로부터 이용자 보호, 영화발전기금 고갈에 따른 재원 마련, 생성형 AI의 저작권 침해 문제에 대한 대응 등 해결해야 할 다양한 과제가 있습니다.

오늘 국정감사가 각 기관의 정책 및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와 발전적인 대안을 함께 모색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유현석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리를 비롯한 각 기관장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국정감사에 임하시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및 서류제출 요구 등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기관증인들의 증인 선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욱 위원 저 의사진행발언 좀……

○위원장 김교홍 예.

○정연욱 위원 감사합니다.

자료 요청 건입니다. 본 의원실에서 세종학당재단에 자료 요청으로 지난해부터 세종학

당재단 내부의 민원 접수 창구인 레드휘슬에 대한 민원 접수 건과 조치 사항 등에 대해서 자료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세종학당은 고충, 땡땡 세종학당 운영 관련 신고 등 내용에 아무런 설명도 없고 요지가 없는 상태로 보냈고 재차 자료 요청을 했더니 조치 완료였던 신고 건이 조치 예정으로 뒤바뀐 식으로 제출해 가지고 허위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세종학당의 직원 현황에 대한 기본 자료에도 아무런 회신이 없습니다. 자료 요청 건에 대해서 여러 차례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2건의 자료, 오후 질의 전까지 꼭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교홍** 조금 전에 정연숙 위원께서 말씀하신 자료제출에 대해서 관계 기관들은 반드시 오후 질의에 들어가기 전까지 꼭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출석한 기관증인은 총 20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는 국회가 2025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때 또는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기관증인들의 선서는 10월 29일로 예정된 종합감사 등에도 유효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일괄하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유현석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유현석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리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행 유현석** “선서, 본인은 국회가 대한민국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해서 한국콘텐츠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있어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10월 23일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직무대행 유현석

국립국어원

원장직무대행 윤성천

국립국악원

원장직무대행 강대금

국립중앙극장

극장장 박인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전당장 김상욱
대한민국예술원사무국
사무국장 박위진
세종학당재단
이사장직무대행 최현승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한상준
사무국장 박덕호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 김병재
사무국장 김종호

○위원장 김교홍 중인들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감사 대상기관들의 업무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가 사전에 각 의원실에 전달되었고 감사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영화진흥위원회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받고 나머지 기관들의 업무보고는 노트북 단말기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현석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리 나오셔서 현안 중심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행 유현석 존경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교홍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직무대리 유현석입니다.

먼저 문화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위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한국 콘텐츠 산업을 대표하는 기관의 중인으로서 책임감을 지니고 오늘 국정감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로부터 콘텐츠 산업 성장을 위한 다양한 고견을 듣는 소중한 시간으로 삼겠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매력 있는 K-콘텐츠 창출, K-콘텐츠의 세계화 확대, K-콘텐츠의 지속 성장 기반 조성이라는 전략 방향을 수립하고 다양한 장르의 콘텐츠 제작 지원, 콘텐츠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미래 콘텐츠를 위한 AI 신기술 융합,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연구, 산업의 공정 상생 환경 조성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K-콘텐츠가 문화적·지리적 한계를 넘는 글로벌 스탠더드로 나아가 더 넓은 이용자와 만날 수 있도록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지원하고 신흥 시장 확대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앞으로도 지금의 K-콘텐츠 성과를 뛰어넘는 새로운 목표로서 넥스트-K를 향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에 있습니다.

간략하게 2025년도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부터 4쪽까지는 기관의 설립 목적, 연혁, 조직과 인력 현황을 정리했습니다.
5쪽입니다.

저희 기관은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해 콘텐츠 IP의 발굴·육성부터 콘텐츠 수출 활성화 및 금융 지원, 콘텐츠 창작자들의 창업 지원과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의 성장 지원, 콘텐

츠 산업을 이끌어 나갈 전문 인력 양성, 인공지능을 포함한 신기술 융합 콘텐츠 육성과 문화기술 R&D, 국제 협력 및 해외 진출 거점 확대, 콘텐츠 산업 생태계 조성에 이르기 까지 콘텐츠 산업의 성장을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시설 현황부터 12·13페이지의 예산 현황 등의 내용은 서면을 확인하는 것으로 생략하고 기관 성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교홍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덕분에 대한민국 전통 문화를 소재로 K-스토리텔링의 진수를 보여 주어 글로벌 흥행 신드롬을 조성하며 인기리에 종영된 OTT 드라마 ‘폭군의 세프’ 그리고 웹 소설에서 애니메이션으로 K-IP의 저력과 가능성을 보여 준 ‘퇴마록’ 등 우수 콘텐츠들의 제작을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K-콘텐츠의 해외 진출 지원과 우리 콘텐츠 기업들의 해외 비즈니스 역량 강화에도 힘써 왔습니다. 해외 비즈니스센터를 30개 확대하여 글로벌 시장의 현장 정보를 적시에 공급하고 K-콘텐츠 엑스포, K-박람회, 뮤콘 등 다양한 글로벌 행사 개최를 통해서 우수한 K-콘텐츠는 물론 연관 산업까지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2024년 대비 21% 이상의 예산을 증액한 총 473억 원을 지역 콘텐츠 산업에 투입해서 균형발전을 지원하는 한편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뽐낼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고 콘텐츠 스타트업 창업을 지원하는 등 콘텐츠 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창의적이고 우수한 K-콘텐츠가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콘텐츠 산업계와 소통하며 지속가능한 산업 성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국정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문제와 깊이 있는 고언을 적극 수용해서 K-컬처 300조, 수출 50조 원 시대를 여는 데 앞장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상준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현안 중심으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안녕하십니까?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한상준입니다.

존경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교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5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진행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현재 한국 영화산업은 더딘 회복세와 미디어 환경의 변화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영화진흥위원회는 한국영화가 위기를 극복하고 제2의 중흥기로 도약 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K-무비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어서 영화진흥위원회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1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주요 현안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현안은 한국 영화산업 현황, 영화발전기금 확충, 한국 영화시장 회복방안, 미래 기반 강화를 위한 환경 조성의 네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2쪽입니다.

올해 8월 누적 기준으로 극장 매출액과 관객 수가 전년 동기 대비 약 36.7% 감소했으며 이는 팬데믹 이전인 2017~2019년 평균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특히 대작 한국영화의 흥행 부재가 두드러지고 자본 순환의 경색 심화로 산업의 침체가 장기화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4쪽입니다.

극장 매출 감소세로 인해 영화발전기금의 주요 재원인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수입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회계 및 타 기금 전입을 통한 재원 확충이 절실한 상황으로 위원님들의 관심 덕분에 2025년에는 국민체육진흥기금 600억 원과 복권기금 45억 원이 전입된 바 있습니다. 한국영화 위기 탈출을 위해서 영화발전기금의 적극적 운용이 필요함을 강조드리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5쪽입니다.

영화진흥위원회는 코로나 이전 수준의 안정적인 영화산업 회복을 핵심 목표로 하여 제작 지원과 기획개발의 두 가지 측면에서 한국영화 제2중흥기 도모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 영화산업의 허리 역할을 담당하는 중예산 규모 영화 제작 지원을 100억 원 규모로 올해 신설하고 양질의 IP 확보 및 생태계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기획개발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26쪽입니다.

OTT 콘텐츠의 등장에 따른 환경 변화에 발맞춰 영화·영상 진흥을 위한 법제도 정비와 영상콘텐츠 통합 법제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안정적인 제작 기반을 마련하고자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한 단편영화 제작 실습교육을 운영하고 독립·예술영화 상영과 영화제 개최 지원 확대 등 우리 관객의 영화 향유권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최초로 실내외 스튜디오를 모두 갖춘 부산기장촬영소가 지난해 착공했습니다. 향후 베추얼 프로덕션 스튜디오를 포함한 글로벌 촬영 집적단지를 구축하여 아시아 콘텐츠 제작의 거점으로 도약할 계획입니다.

한국영화의 발전과 함께한 영화진흥위원회는 현재 한국영화의 위기상황을 타개하고 한국영화가 전 세계 영화·영상 문화의 중심이 되게 하는 데 온 힘을 다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조언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 주신 고견은 적극 반영하여 앞으로 K-컬처의 근본인 한국영화가 제2중흥기를 맞이하고 더 나아가 세계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오늘 국정감사장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정향미 저작권국장, 정상원 콘텐츠정책국장, 송윤석 지역문화정책관, 신은향 예술정책관, 이정미 문화정책관, 이정은 정책기획관이 배석해 있으니 위원님들 질의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민형배 위원 위원장님, 질의 전에……

○위원장 김교홍 예, 민형배 위원님.

○민형배 위원 자료제출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이 10월 23일인데요 오늘부터 해외 게임사의 국내대리인 제도가 시행되는 날입니다. 이 제도가 실제로 이용자 보호에 실효성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해외 게임사의 국내대리인 제도는 일부 해외 악덕 게임사들이 국내 이용자에게 과금을 유도하고, 즉 회원 가입하거나 회비를 납부하도록 하고 부도나게 한 다음에 먹튀를 계속 하니까 생긴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국내에 사업장을 두지 않았지만 이 해외 게임사들에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국내대리인을 지정해 책임을 묻겠다 이런 제도로 도입된 건데 오늘 제도 시행을 앞두고 일각에서 우려를 제기합니다.

첫 번째는 정작 문제가 된 중소 게임업자들은 빠져 있는 것 아니냐, 두 번째는 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 회사가 어디인지도 알 수 없다 이런 겁니다.

이 시행령에 따르면 매출 1조 원 이상이거나 모바일 기준 연간 일평균 다운로드 1000건 이상인 해외 게임사가 대상입니다. 문체부는 대략 시뮬레이션을 해 보니까 96개사 정도가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 자료를 좀 주십시오 했더니 법이 아직 시행이 되지 않아서 이 관계사의 정보를, 해당 사의 정보를 제출하기 어렵다 이렇게 구두로 말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감사 대상인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지금 문체부가 말하고 있는 지정 대상 96개사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확보하고 있지 조차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하면 결국 게임 이용자는 여전히 보호 사각지대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 시행령의 기준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 건지 점검해 보기 위해서 오늘 국정감사 끝나기 전까지 두 가지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하나는 문체부가 현재 시행령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 해외 게임사 명단을 반드시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는 지난 3년간 시정권고·시정요청을 받은 3만 3024건의 해외 게임사 중에서 지금 문체부가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매출 1조 원 또는 일평균 다운로드 1000건 이상에 해당하는 업체가 어디인지 각각 제출해 주시도록 위원장님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김교홍 지금 민형배 위원께서 얘기한 두 가지 자료를 관계기관은 반드시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충남 공주·부여·청양군의 존경하는 박수현 위원부터 시작하시겠습니다.

○박수현 위원 한상준 위원장 계시지요?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예, 있습니다.

○박수현 위원 최근 논란이 된 건국전쟁2는 독립영화 심의에서 불인정 7, 인정 2, 이렇게 최종 불인정되었지요?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예.

○박수현 위원 그런데 그 결정 요지에 보면 ‘균형성 결여, 편향된 표현방식, 완성도 미

흡으로 인정 기준 해당 없음'이라고 명시되어 있지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예.

○박수현 위원 결과적으로 해당 작품은 불인정됐지만 제가 오늘 여쭤보고자 하는 것은 국가가 공식 인정한 제주4·3의 역사적 사실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내용을 담은 이 작품에 대해서 2명의 심사위원이 인정 의견을 냈다는 점에 대해서 저는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제주4·3은 국가의 진상조사와 특별법 그리고 공식보고서로 확인·확정된 역사적 사실입니다. 대통령도 공식적으로 사과한 일입니다. 1999년 특별법과 2021년 전부개정안 그리고 2014년 국가 추념일 지정 등 이 모든 것이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통과된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제주4·3의 기록물은 올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또 제주4·3을 소재로 대표작을 쓴 한강 작가는 노벨문학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영화를 국가기관의 심의 과정에서 독립영화로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그 자체로 첫 번째,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일 뿐만 아니라 공적 권위의 신뢰를 손상시키는 일이고 왜곡된 사실을 우리 사회가 공인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7 대 2로 불인정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왜 영화진흥위원회의 심사에 대해서, 이러한 분명한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인정을 하는 의견을 내는 심사 결과가 나올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주장하는 것은 이렇게 명백히 검증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한 작품의 경우에 심의 대상에서 원천 배제하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제 질문이 끝나면 생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위원장께서도 처신이 부적절했어요. 이 건국전쟁2 감독이 운영하는 영상아카데미를 방문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는데, 지금 사진 보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면)

그런데 위원장 임명 이후에 제가 알아보니까 영화 관련해서 위원장께서 민간 업체를 방문한 것이 달랑 이거 1건입니다. 맞습니까?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예,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수현 위원 위원장께서는 방문 사유를 어떻게 이야기할지 제가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유가 무엇이든 간에 이 사진을 보시는 제주4·3 유족과 도민들에게 깊은 상처를, 또 국민에게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었다 이렇게 저는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표현의 자유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표현의 자유를 빙자해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더구나 제주4·3 특별법 제13조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희생자·유족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인 영화진흥위원회가 사실을 이처럼 심각하게 왜곡한 영화를 독립영화 인정이라는 공적 지위를 부여하는 그런 것은 법 취지에도 배치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명백히 검증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한 작품을 심의 대상에서 원천 배제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본 위원의 주장인데 저도 이러한 창의성과 다양성 이런 것들을 존중하는 철학을 가진 제가 이렇게 단적인 주장

을 하게 될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건 분명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께서 이 영화를 관람하시고 나서 ‘역사 해석의 다양성을 막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메시지를 냈어요. 그것이 우리 사회에 엄청난 또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정당 간의 갈등을 일으켰어요. 거기서 끝이면 문제가 안 되는데 국민들 간에 또 이 분명한 역사적 확정된 사실을 가지고 또 찬반 논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납니다.

위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참 좋은 말씀 많이 담았어요. ‘현재 한국영화의 위기상황을 타개하고 한국영화가 전 세계 영화·영상 문화의 중심이 되게 하겠다’, ‘K-컬처의 근본인 한국영화가 제2중흥기를 맞이하고 더 나아가 세계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 당연하고도 정말 우리가 명심해야 될 이 과제, 이것은 제가 무리하게 주장하는지는 모르지만 바로 위원장에게 지금 질문한 요지, 분명히 확정된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는 그런 심의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이러한 것들이 담보될 때 바로 영화가 앞으로 제2중흥기를 맞이할 수 있지 그렇게 해서……

물론 불인정이 돼도 독립영화가 상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바로 그 내부의 심사 과정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심사위원으로 있는 한 바로 위원장께서 보고한 이러한 시대적 과제, 한국영화의 제2중흥기를 마련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것은 공염불에 불과하다, 그냥 말에 불과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위원장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왜 저런 부적절한 방문을 했으며 그리고 본 위원이 주장한 이런 원천적인 배제 기준의 마련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분명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해당 논란에 대해서는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독립·예술영화 인정은 관련 규칙이나 세칙에 따라서 외부 전문가 9인으로 구성된 소위원회에서 의결을 하기 때문에 영화진흥위원회의 저를 포함해서 소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난해에 ‘전국전쟁’ 1편에 그 절차상에 있어서 행정적인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영화를 감독하신 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 오류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만 한다고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락을 드리고 전국전쟁에 관련해서 저희의 그 오류에 관해서 사과를 드리기 위해서 그건 만나 뵐 것입니다. 제가 찾아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부수적인 그런 건 없으니까요 그렇게 하고.

지금 말씀해 주신 심의 관련해서는 또 하나의, 심의라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건 지금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수현 위원 제가 위원장의 그 뺀한 답변을 그대로 예상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답변 기회를 분명히 드렸는데,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그 제안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제가 지금 즉답하라고 다시 촉구하지는 않겠으나 그것에 대한 답변을 본 의원실에서 분명히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보고 제가 다시 나중에 질문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원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강석원 위원장님, 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05조에 따라서 저작권 신탁단체의 수수료 요율과 사용료 요율을 삼의하는 기관입니다. 맞지요?

113조에 따라 저작권 분쟁을 알선·조정하는 준사법적 기관이기도 합니다. 법원의 재판과 유사하게 이해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하기 때문에 일반 공공기관보다 더 높은 수준의 공정성이 요구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한국저작권위원장 강석원 맞습니다.

○김재원 위원 그런데 심의를 받아야 하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심의를 하는 저작권 위원회의 전·현직 위원들에게 자문료를 주고 있었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한국저작권위원장 강석원 예.

○김재원 위원 이하 음저협이라고 하겠습니다. 음저협이 최근 3년간 체결한 자문용역 계약을 살펴본 결과 소수 전문가 그룹에게 수억 원이 반복적으로 지급되고 있었고 이들 상당수가 동시에 저작권위원회 심의·자문에도 관여하고 있었습니다. 자문을 받는 피심의 기관과 심의를 하는 위원회가 동일하게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에 심각하게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구조지요, 이대로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저작권위원장 강석원 예. 아무래도 저작권 분야의 전문가 풀이 충분하지 않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김재원 위원 그렇지만 의문이 제기되고 그리고 불공정하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의혹을 불러오게 되지요.

PPT 한번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면)

자료를 보시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음저협은 저작권 정책연구 자문계약으로 약 6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1인당 연간 3000만 원가량입니다. 3년 연속으로 동일 인물들이 보이는데 모두 저작권 학계 사람들입니다.

다음 PPT 보시면, 이들은 2023년에서 2025년까지 음저협, 저작권위원회, 저작권보호원에서 동시에 활동을 했습니다. 오승종 교수는 저작권위원장 퇴임 후에도 위원회 정책자문과 교육을 맡으며 음저협에서 4건의 자문용역을 수주했습니다. 안효질 교수도 위원 활동 후 음저협 자문계약을 맺고 두 기관에서 심사자문을 병행했습니다. 이대희 부위원장은 재직 중에도 3년 연속 음저협 자문료와 용역을 받았고 최진원 교수는 2024년부터 2년 연속 음저협 자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남형두 교수 역시 2023년부터 보호원 이사로 활동을 하면서 양쪽과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위원장님, 재판관이 피고로부터 돈 받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다음 PPT 한번 보시지요.

이익단체인 음저협에 자문료를 받던 그 시기에 최진원 교수는 저작권위원회로부터 저

작권료 징수와 분배 관련 주요 정책 연구를 의뢰받아서 수행했습니다. 2022년 미지급 저작권료 및 미분배 보상금의 관리 연구, 2024년 AI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위원장님, 이게 뭡니까? 음악저작권협회와 무관한 연구가 맞습니까? 이 연구들 다 연관 있는 연구들이잖아요. 읽어 보셨어요?

○**한국저작권위원회 강석원 위원장** 예, 개략적인 내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재원 위원** 음저협 자문료 받으면서 저작권 정책 중립적으로 연구할 수 있겠습니까? 가능하겠어요? 위원장님……

저작권보호원 원장님, 어디 계세요?

○**한국저작권보호원장 박정렬 위원장** 예.

○**김재원 위원** 정상적 구조라고 보이십니까? 이 사람들이 저작권 정책 독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이익단체의 돈을 받아 가면서.

다음 PPT 보겠습니다.

일단 자리에 앉아 주세요.

저작권국 정향미 국장님 어디 계십니까?

25년 5월 1일부터 전병극 전 차관과 김현모 전 청장이 음악저작권협회 자문으로 추가됐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는 음저협이 문체부로부터 업무 점검을 받기 직전입니다. 문체부 전직 차관과 저작권정책관 출신 차관급 인사인데 업무 점검 무마하려는 시도 아닙니까?

이러니까 우리 저작권산업과 직원들뿐만 아니라 이 부분을 정화를 하고자 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백날 밤낮으로 업무 점검해서 개선명령 내려도 이행이 단 하나도, 단 하나도 이행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국장님, 이런 자문계약 알고 계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국장 정향미 위원장** 예, 이번 국감 준비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김재원 위원** 전직 고위공무원들을 방패를 삼아서 협회가 시정명령을 미루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지요.

더 심각한 거는 음악저작권협회·저작권위원회·저작권보호원 자문위원 구성이 사실상 동일 인맥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관리 감독하는 쪽과 이익단체와 어떻게 인적 구성이 이렇게 같을 수가 있어요? 그것도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구조 아닙니까? 다들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K-컬처 300조 어떻게 만듭니까, 이런 구조로? 어떻게 해서 창작자들의 이익을 대변을 하고 그들의 징수가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보겠습니까? 저 역시 창작자로서 이런 사실들을 정확한 서류를 통해서 보고를 받고 조사를 해 보고 정말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우리 창작자들을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어요? 창작자들의 돈을 사용해서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저작권 정책이 소수 전문가 카르텔의 전유물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창작자와 이용자 위한 그런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보입니다. 문체부는 당장 대책 마련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정향미 국장님, 이거 대책 가지고 계세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국장 정향미 위원장** 마련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주신 말씀 굉장히 옳으신 지적이고요. 저희가 자문 내역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지를 했고 그리고 그

자문이 어떠한, 그러니까 통상의 보수보다 더 많이 됐는지 그리고 자문의 범위가 어디였는지 낱낱이 조사를 해서 거기에 합당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일단 제가 조사한 정도만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보기에도 심각한데……

저작권위원회 위원장님,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전문가 풀이 워낙 적어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문가의 풀이 적으면 그 사람들이 심사도 하고 판결도 내리고 그리고 분쟁조정도 하고 그쪽 자문도 하고, 다 해서 되는 거예요? 그런 구조로 그냥 유지를 해도 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걸 막도록 하는 게 위원장님의 역할이신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말씀해 보십시오.

○한국저작권위원장 강석원 지금 말씀 주신 부분에서 우려하시는 부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전문가 풀도 좀 부족한 상황이고 다 비상근으로, 위원으로 계시거나 강의, 연구 등을 참여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본연의 업무라든지 외부활동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말씀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주요 사안별로, 제척사유라든지 아니면 참여하는 이해당사자들 간에 어떤 의견 수렴을 통해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재원 위원 방안 마련해 주시고, 창작자의 한 사람으로서 끝까지 이 부분 계속해서 감시할 예정이니까 방안 마련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한국저작권위원장 강석원 예, 알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안산시갑의 존경하는 양문석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양문석 위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준비하면서 게임산업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한국 게임산업 매출액이 23조, 그렇지요?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행 유현석 예.

○양문석 위원 그리고 수출이 거의 12조 그다음에 세계 시장에서 게임산업의 점유율이 4위, 이 정도의 엄청난 산업이 게임산업입니다.

PPT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게임산업을 보면 정말 심각한 상황인데요. 저 게임을 한번 보면요, 우리 소위 말하는 K-컬처의 콘텐츠가 쭉 나열돼 있는데 게임이 2023년 대비 2022년은 마이너스 성장을 합니다. 6.5% 마이너스 성장을 해요. 그리고 위로 한번 봅시다. 만화·음악·영화·게임 쭉 보면 다 연간 증감률이 두 자릿수인데 게임은 6%에 그치고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놓고.

게임하고 음악하고가 대표적으로 지금 거의 수출액의 70% 이상을 차지하거든요. 그런데 게임의 비중을 한번 보면, 23년 데이터를 보면 게임은 11조 7000억 원 정도를 수출을

합니다. 그런데 음악은 1조 6000억 정도를 수출합니다. 소위 말해서 케이팝과 K-게임을 놓고 보면 케이팝과 비교해서 열 배 정도 더 많이 수출을 해요. 그런데 실제 23년 대비 22년의 결과를 보면 마이너스 성장을 해요. 그동안에 콘진원이 이 마이너스 성장의 데이터를 보고 어떤 조치와 대책을 세우고 지원을 했지요?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행 유현식 그중에서 수출,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특히 중국의 시장이 막혀 갖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수출 쪽에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문석 위원 다양한 방법이 뭐예요?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행 유현식 그……

○양문석 위원 잠깐만요. 한 것과 할 것을 좀 구분해서,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면서 뭐를 했지요?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행 유현식 지금 중국 시장이 막혀 있는 상황이라서, 판호는 올해부터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소기업들의 데스밸리를 극복하기 위해서 제작 지원을 좀 더 정교하게 하고 있고요. 특히……

○양문석 위원 아니아니, 지금 전체적으로 게임산업 전체를 제가 질문을 하고 있잖아요. 사실상 K-콘텐츠 수출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게임에 대해서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빨간 불이 이미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들어왔었을 때 콘텐츠진흥원과 문화부가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들을 세워야 되고, 계속해서 중국 시장이 막혔다 막혔다 막혔다 하면 시장의 다변화를 통한 확장 정책을 하든지 뭔가를 획기적이고 분명한 대책을 세웠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대책이 없었어요.

그리고 중국 시장 풀리기까지 기우제 지내듯이 중국 시장 풀려라 풀려라 풀려라, 마법거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대행체제에서 상당히 무리는 있겠지만 이러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고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되고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영역을 넘어서 계속 케이팝에 대한 끊임없는 지원들이 지속되고 있는 이 시점에 더 중요하고 더 큰 규모, 케이팝보다 열 배 이상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K-게임에 대한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나 실질적인 지원 대책들이 없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유감이고요.

두 번째, 대기업 비중이 90%입니다. 그렇지요?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행 유현식 예, 맞습니다.

○양문석 위원 대기업 비중이 대한민국 게임백서 보면 89.9%예요. 그리고 중기업 비중이 9.2%, 50억 미만의 소기업 비중이 1%.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대책을 마련할 때는 내부적으로 대책을 마련하는 것과 외부적으로 대책을 마련하는 것, 수출의 다변화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은 외부적이지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얼마만큼 기본을 단단하게 만들어 낼 것인가, 50억 미만의 수출 기업들 그다음에 800억 미만의 수출 기업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었잖아요.

양문석 의원실에서 준비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세액 공제와 관련된 부분을 준비하고 있는데 다른 영상 영역에 있어서는 다 세액 공제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유독 우리 콘텐츠 수출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게임에 있어서는 세액 공제 대상에

서 제외돼 있어요.

그러면 게임은 대기업만 있는 게 아니고, 대기업만 쳐다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소기업이나 중기업들을 강화시키면서 단단한 강소기업들의 중심에서 대기업이 활짝 개화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세액 공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이번 법률 개정안을 내는데 여기에 대해서 콘텐츠진흥원의 입장은 뭐예요?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행 유현석**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타 장르, 특히 방송하고 웹툰 같은 경우에는 웹툰은 내년부터 돌입을 하고요. 게임 부분은 저희가 2024년도에 게임 산업 조세지원 개선연구 과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결과에 의해서 게임 산업이 방송영상콘텐츠 산업의 기준대로 그것을 게임에 적용했을 경우에 게임 제작비가 연간 한 1조 6000억 정도 투자가 증가할 수 있고 제작비 세액 공제에 관해서 필요합니다.

○**양문석 위원** 그러니까요 세액 공제와 관련된 좀 적극적인 그 문제를, 필요하다고 인식을 하는데……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행 유현석**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양문석 위원** 기본적으로 웹툰이든 방송이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성장시켜야 되는 필요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국하고 미중 수출 비중이 거의 62%에 달하는 게임에 대해서 소외했던 그러한 태도를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콘텐츠 진흥을 책임지고 있는 진흥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원장으로서의 태도에 대한 문제를 지적을 하는 것이고 문화부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는 게임 산업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을 내지 않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를 지적하면서 사실상 질책성 질의를 제가 하고 있는 거라는 말이에요.

적극적으로 대책 마련해서 의원실에다가 보고해 주십시오.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행 유현석**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처럼 지금 게임 산업이 규모에 비해서 소외된 부분은 분명히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국회에서도 게임 세제 혜택 관련한 입법을 준비 중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한 자료라든지……

○**양문석 위원** 세제 혜택이 아니고요, 세제 지원입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행 유현석** 예, 세제 지원 맞습니다.

○**양문석 위원** 자꾸 혜택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행 유현석**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충분히 백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송파구을의 존경하는 배현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배현진 위원** 질의 전에, 정상원 문체부 콘텐츠정책국장님 뒤에 계시지요? 이쪽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나오시는 동안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유현석 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행님, 제가 지난해 국정감사 때 서면질의로 콘텐츠진흥원이 부정수급으로 적발한 업체들 다시 공모 지원하지 못하도록 조치하라고 제도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수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행 유현석** 저희 콘진원은 부정수급을 적발하고요. 그다음에 중앙부처장인 문체부장관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배제 조치를 하는 프로세스를 밟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조금법 제31조 2항에 근거해서 그런 프로세스를 밟고 있습니다.

○**배현진 위원** 보조금법 31조 2항 어떻게 되지요?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행 유현석**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영구 배제, 배제를 시키거나 폐널티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담겨 있습니다.

○**배현진 위원**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제가 지난해 서면으로 지적했던 사례를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음반 AI업체, 제가 편의상 K 업체라고 하겠습니다.

PPT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콘텐츠진흥원의 보조금 공모사업에 지원을 해서 선정돼서 3억 원 지원을 받았는데 동일한 지원서로 예술경영지원센터에도 지원을 했고 1억 원을 수급해서, 결과보고서도 양 기관에 똑같은 내용으로 다시 제출을 했습니다. 이것 고의적인 허위·부정수급으로 보이지요? 이것 콘텐츠진흥원이 적발한 겁니다. 맞습니까?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행 유현석** 예.

○**배현진 위원** 여기서부터 문제입니다. 잠시 기다리시고요.

정상원 국장님, 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이것 언제 보고받으셨어요?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 정상원** 제가 이 자리로 온 지, 지난 5월 달에 와서 별도로……

○**배현진 위원** 그렇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 정상원** 예.

○**배현진 위원** 그러면 유현석 원장님, 이것 콘텐츠진흥원이 문체부에 언제 보고했습니까?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행 유현석** 2024년 3월경에 징후를 발견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배현진 위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즉시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중앙관서장의 명령으로 교부를 제한해야 한다 이게 법으로 지금 되어 있지요?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행 유현석** 예.

○**배현진 위원** 올해 5월에 오셨다니까…… 그래도 앞에 인수인계 받으셨을 것 아닙니까, 업무?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 정상원** 그런 건이 있었다는 것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는 보고받지 못했지만 그런 건이 있었다는 것은 들었습니다.

○**배현진 위원** 중앙판서의 장은 문체부장관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 정상원** 예, 그렇습니다.

○**배현진 위원** 콘텐츠진흥원이 이렇게 부정수급 적발해서 보고하면, 그러면 문체부에서는 어떻게 조치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 정상원** 저희가 그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그것이 부정수급으로 확정되면 저희가……

○**배현진 위원** 사실관계는 언제 확인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 정상원** 저희가 콘진원으로부터 그 결과……

○**배현진 위원** 보고받은 즉시 해야겠지요?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 정상원** 예, 맞습니다.

○**배현진 위원** 그런데 제가 왜 나오시라고 그랬냐면요, 2024년 4월에 보고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게 1년 반이 지난 올해 9월에 부정수급심의위원회가 열려서, 올해 9월에 저희 국감을 코앞에 두고 이게 열렸어요.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것 작년에 제가 서면질의하니까 국감 때우기로 그냥 이렇게 열었다라는 느낌까지 드는데.

다음 PPT 보여 주실래요?

문체부가 여러 기관 중에 이 부정수급을 적발하면 적체돼 가지고 계속 지연되는 거래가—제가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두 군데 기관만 들었는데요—제일 많습니다, 80%.

문체부가 일이 많아서 부정수급심의위원회를 1년 반 동안 못 열었다고 변명할 거리가 안 되는 게 행안부나 보건복지부도 엄청 조직이 크고 이런 부정수급이나 이것 지원 사례 더 많은 것 아시지요? 그런데 왜 이런 겁니까? 이 자리에는 처음 오셨더라도 문체부 내에서 오랫동안 잔뼈 굵으시니까 아실 것 아니예요? 일이 왜 안 돌아가지요?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 정상원** 먼저 위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도 보조사업이 많이 있는 관계로 이런 부정수급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빨리빨리 확인하고……

○**배현진 위원** 제가 지금 드린 질문의 요점은 궁금해서, 저희 위원들이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기관에서 적발을 해 가지고 보고를 했는데 왜 1년 반이 지나도록 문체부가 이것을 조치 안 했냐는 말입니다, 보조금법에는 즉시 조치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 사정이 뭐냐고요, 문체부의 사정이?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 정상원**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현재는……

○**배현진 위원** 파악해서 보고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 정상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현진 위원** 웃으면서 하실 얘기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 정상원** 예.

○**배현진 위원** 지금 콘텐츠진흥원이나 이런 데 공모사업을 하는 업체들은요 신생 기업인 경우도 많고, 신생 업체인 경우도 많고 중소업체들, 단 돈 몇백만 원, 몇천만 원에도 사운이 왔다 갔다 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맞지요, 대행님?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행 유현석** 예, 맞습니다.

○**배현진 위원** 그런데 지금 콘텐츠진흥원도 여기서 적발해 가지고 보고하고, 잘한 게

아니에요. 이것 문체부에서 1년 동안 넘게 적체해 놓고서는 조치를 안 하는 사이에 콘텐츠진흥원은 더 미련하게 이 업체를 또 공모사업에 선정을 해서 지원금을 또 줬습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본인들이 적발을 해 놓고, 적발해서 보고를 했는데 그 업체에 지원금을 또 줬어요. 대행님,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행 유현석** 그 당시에 최종적으로 그게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승인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사이에 일어난 것 저희도 인지하고 있고요. 그것은……

○**배현진 위원** 상식적이지 않지요?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행 유현석** 예.

○**배현진 위원** 물론 문체부가 이 업체가 실제 부정수급했다라는 확인이 된 날로부터 배제해야 되기 때문에, 법령상에는 그렇지만 기관의 입장에서는 일단 문제가 있는 업체면 공모 대상에서 배제를 해 놓고 심사를 해야 되는 게 국민들이 보시기에 공평한 얘기가 아닐까요?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행 유현석** 정성적으로 판단할 영역이라고 사실 생각합니다만……

○**배현진 위원** 정성적이 아니라 부정수급이 확실한 사례입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문체부가 일을 신속하게 하지 못한 그 무능 때문이고, 그렇지요? 두 번째는 콘텐츠진흥원이 적발까지는 아주 잘했습니다. 그런데 문체부의 어떤 조치가 없다고 그것에 대해서 너무 방만하게, 거르는 절차를 섬세하게 하지 못한 두 번째 책임이 있습니다. 기관들이 이렇게 해 가지고 이 업체들, 새로운 우리 신생 업체 상생시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콘텐츠국장님, 왜 심의가 늦게 열렸는지. 두 번째, 이런 부정수급 사례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콘텐츠국에서 지금 하는 일인데 왜 상시로 이 심의위원회가 열리지 않는지 아니면 딱 기간을 정해 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국감 끝나고 얼마 기간 이런 식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하시고 이외에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부정수급이 적발됐는데 또 이렇게 중복돼서 타 간 사례가 있는지를 모두 확인해서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 정상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 광산구을의 존경하는 민형배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김병재 위원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이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국회 의원회관 2층 로비에서 ‘제주4·3, 기록과 예술로 밝혀낸 진실’이라는 특별전이 열렸습니다. 제가 국회에서 본 그 어떤 전시회보다도 아주 훌륭했습니다. 국가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기록, 4·3 생존 희생자와 유족들의 트라우마 치유 그림 앞에서 저는 다시 국가와 국회의 책무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기록을 부정하는 것은 단순한 의견 차이나 표현의 자유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와 유

족의 명예를 재차 훼손하고 이날의 정체성을 근간부터 흔드는 명백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우리는 5·18이 북한군의 소행이라고 하는 그런 유언비어를 바로잡는 데 수십 년의 시간을 거쳐야 했습니다. 지금 다시 제주4·3을 왜곡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중대한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위원장님, 혹시 제주4·3이 공산주의 폭동입니까?

○영상물등급위원장 김병재

○민형배 위원 모르십니까? 모르시면 그냥 넘어갈게요.

제주4·3이 공산주의 폭동이라는 주장은 위법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법원의 판단인 것은 알고 계십니까?

○영상물등급위원장 김병재 예.

○민형배 위원 그런데 공산주의 폭동인지 아닌지, 제주4·3이 폭동인지 아닌지는 모르시겠고?

제주4·3이 공산주의 폭동이었습니까?

○영상물등급위원장 김병재

○민형배 위원 모르시고…… 그런데 어떻게 등급을 매기셨는지 모르겠네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저 표를 보시는 것처럼 법원이 직권재심을 했습니다, 직권재심을 해서 지금 4330명 플러스알파가 있는데 이 중에 2000명이 하나도 예외 없이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실제 법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김교홍 위원장, 임오경 간사와 사회교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 그리고 5·18 민주화 운동에도 마찬가지인데요.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희생자와 유족과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되고 국가와 지자체는 희생자 및 유족의 피해 치유,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이게 국가의 법적 의무로 돼 있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수현 위원님께서도 이 문제를 다루셨는데 이런 기준에 비추어 보면, ‘건국전쟁2’ 제가 이 영화를—다큐멘터리인데요—죽 봤습니다. 이승만의 미화로 시작해서 4·3을 왜곡·폄훼하고 다시 이승만을 미화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대략 이 다큐멘터리가 1시간 한 45분 쯤 되던데요. 제주4·3을 공산주의 폭동으로 왜곡을 합니다. 보실까요?

‘대한민국 건국 저지이고 공산 통일을 위한 폭동 반란이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지금 제주4·3 특별법과 사법부의 재심 판결 취지와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유족 단체들은 이게 희생자를 두 번 죽이는 행위다 이렇게 규탄 성명을 계속 저렇게 내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얘기 들어 보셨습니까?

○영상물등급위원장 김병재 예.

○민형배 위원 위원장님, 건국전쟁2 지금 이거 등급이 어떻게 됩니까?

○영상물등급위원장 김병재 등급이 12세로 나왔습니다.

○민형배 위원 12세 이용가지요?

○영상물등급위원장 김병재 예.

○민형배 위원 저 위법한 게 명백한 다큐멘터리가, 그것도 학생이 아니고 다큐멘터리가 어떻게 등급 판정에서 12세 이상 이용가가 되지요?

○영상물등급위원장 김병재 저희 위원회는……

○민형배 위원 영등위에서 영화 등급분류 기준에 주제라고 하는 부분이 있지요?

○영상물등급위원장 김병재 예, 그렇습니다.

○민형배 위원 거기에 ‘전체적인 구성, 사건 전개, 배경, 맥락 등이 해당 연령층의 정서, 가치관 등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영상물등급위원장 김병재 예, 그렇습니다.

○민형배 위원 역사적으로 국가가 분명하게 정리하고 재판부에서 다 확인이 된 위법한 사실을 그것도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저기에 청소년들이 저 스크린을 보고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겠어요? 그럴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과 달라서 혼란스러울 거고.

영등위가 혹시 극우 육성기관인가요?

○영상물등급위원장 김병재 아니, 이 다큐멘터리를 포함해서 영화를 심의하시는 분들은……

○민형배 위원 알아요. 압니다.

○영상물등급위원장 김병재 전문가 9명으로 구성이……

○민형배 위원 압니다. 아까도 말씀했는데 12세 이용가, 위법하고 사실에 부합하지도 않고 법원 판결에도 정면 충돌하는데 그대로 둬야 될까요?

○영상물등급위원장 김병재 저희 현행법으로 보면 이걸 다시 심의를 한다든가 또 결정을 취소한다 그런 법안은 없거든요.

○민형배 위원 아니, 운영을 하시는데 잘못됐으면…… 그걸 바로 잡는 규정이 없어서 바로 잡을 수 없다 그게 말입니까? 그게 성립할 수 있습니까?

○영상물등급위원장 김병재 다시……

○민형배 위원 명백하게 잘못돼 있는 걸 아는데 이걸 다시 심의할 수 없다, 다시 판단할 수 없다 이게 말이 됩니까?

○영상물등급위원장 김병재 아니, 신청자가 다시……

○민형배 위원 아니, 신청자가 왜 다시 신청합니까, 만족스러운데. 그러면 신청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임의로 이 등급 판정을 다시 할 수 없다?

○영상물등급위원장 김병재 그러니까 저희 위원회가……

○민형배 위원 위원회가 전원이 합의를 하면 얼마든지 가능하게 돼 있을 거예요.

○영상물등급위원장 김병재 그러니까 소위 위원들이……

○민형배 위원 어떤 위원회든 대개 국가 관련한 위원회들이 그렇게 운영이 됩니다.

○영상물등급위원장 김병재 예, 합의하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역대로 최근 한 3~4년 동안……

○민형배 위원 아니, 이렇게 역사적으로 왜곡돼 있는데 그래도 그냥 넘어가겠다는 말씀이세요?

○영상물등급위원장 김병재 아니, 그런 거는 아니고요. 다큐멘터리 이거 관련된 작품들이 꽤 많이 들어왔거든요.

○민형배 위원 알아요. 압니다.

○영상물등급위원장 김병재 그런데 동일한 기준으로……

○민형배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12세 이용가란 말이에요, 등급 판정이.

○영상물등급위원장 김병재 하여튼 동일한 기준으로 동일한 절차에 따라서 다……

○민형배 위원 이걸 그대로 두실 거냐고 제가 지금 여쭙잖아요. 이걸 그대로 두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영상물등급위원장 김병재 다시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민형배 위원 제가 드린 말씀 중에 혹시 수용 불가능한 대목이 있으세요, 사실과 다른 대목이나?

○영상물등급위원장 김병재 제가 영화를 보지 않아서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소위에서 결정한 부분을 위원회에서 아래라 저래라……

○민형배 위원 위원장님, 법에 위반되는 판정이 이루어졌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고 제가 지금 여쭙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영상물등급위원장 김병재 지금 현행……

○민형배 위원 표현의 자유 중요합니다. 표현의 자유 중요한데 UN이 정한 국제법에 이런 게 있습니다.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 있는데 여기 19조에 보면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를 가지되 타인의 권리,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에 한해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우리 헌법도 마찬가지예요. 공공복리를 해치는 자유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영상물등급위원장 김병재 예.

○민형배 위원 어떻게 하실 건가…… 보시라고요. 영 판단이 안 서시면 이 영상을 한번 보시고 다시 영등위가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 상영)

무죄라고 지금 울먹이면서 말씀하시잖아요. 저분들의 마음에서 다시 한번 이 등급 판정이 적절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의원실로 제출해 주세요, 종감 전까지.

○영상물등급위원장 김병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오경 다음은 진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오 위원 위원장님, 저 질의에 앞서서 이따가 추가질의 3분 합쳐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오경 예.

○진종오 위원 감사합니다.

콘텐츠진흥원 유현석 원장직무대리님, 얼마 전에 본 의원실로 너무나 디테일한 제보가 하나 접수됐습니다. 올해 61억 사업 예산을 운영하는 해외센터 센터장 부패행위 고발 제보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행 유현석 예, 알고 있습니다.

○진종오 위원 심각한 것도 인지하셨지요?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행 유현석 예, 보고받았습니다.

○진종오 위원 내용 한번 보기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본인 출퇴근뿐 아니라 자녀의 통학, 배우자 일정 등에 범인차량, 공용차량을 사적 이용했고 그다음에 상습적으로, 자녀 통학을 위해서 상습적으로 무단 조기 퇴근했으며 발령 이래 3개월 동안 근무시간 준수 횟수는 고작 5회 미만 그리고 위치 정보를 숨길 수 있는 VPN 기술을 활용해서 실제 위치와 상관없이 출퇴근을 기록했고 근무 데이터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근무시간 내 처리해야 할 결재·보고 등 핵심 업무가 지속적으로 지연되어서 업무 효율성이 저해되었다고 합니다. 또 범인카드 사적 유용이 의심된다라는 내용도 들어와 있습니다.

제보가 상당히 구체적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콘진원에서 7월 25일에 제보를 받아서 자체감사 실시하고 있었지요?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행 유현석 예.

○진종오 위원 자료 한번 다시 보실게요.

아주 친절하게도 7월 29일 날 특별조사 계획안 수립 및 현지 방문 일정을 알려 줬습니다. ‘감사할 테니까 준비하고 있어라’ 이런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볼게요. 공용차량 사적 이용 정황을 보기 위해서 기록을 요청해 봤습니다. 먼저 내비게이션 자료 볼게요. 콘진원에서 GPS 내역을 제출했는데 7월 30일 이후 데이터만 제출을 했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해당 센터에서 데이터 보관 기간을 별도 지정하고 있지 않아서’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따로 알아보니까 해당 GPS 보관 기간이 2개월이었고요. 그리고 또 우리 측 자료 요구를 했는데, 9월 20일 날 자료 요구를 했는데 정상적으로 보관이 이루어졌다면 7월 20일부터의 GPS 데이터가 제출이 되었어야 된다라는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감사 경과를 보면 7월 29일에 감사실에서 해당 센터에 현지 방문 일정을 고지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데이터는 마침 7월 30일 이후부터만 남아 있어요. 고지를 받고 나서 누군가 GPS 기록을 삭제했다고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직무대리님, 콘진원 내규 규정 아시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사전예고 규정을 보면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패행위를 조사하는 사안인데 고지를 통해서 증거 인멸하라고 안내해 준 것과 다름없다고 보입니다.

이 자료가 삭제가 되었기 때문에 감사의 실효성마저 사라졌다고 보는데 이 감사 고지 적절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행 유현석 그 부분은 제가, 감사실은 사실은 저랑 라인이 다르기 때문에 그 내용은 보고받지 못했습니다만 사전에 고지가 됐다면 그거는 적절치 않은 거라고 생각됩니다.

○진종오 위원 그렇지요?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행 유현석 예.

○진종오 위원 왜냐하면 사전예고 아니하다라고 나와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이 데이터를 삭제했다면 증거 인멸이겠지요?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행 유현석 만약에 본인이 삭제했다면 증거 인멸일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진종오 위원 이것은 중대범죄에 들어가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2025년 3월 이후 센터장 근무 이후 GPS 내역을 의원실에서 또 입수를 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먼저 3월 공용차량 이동 경로입니다. 화면 제일 왼쪽의 빨간 표시 여기가 사택 입주 전에 센터장이 이용한 호텔 위치고요. 그다음에 맨 위에 있는 화살표가 센터 위치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하단은 제보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자녀가 다니는 국제학교 위치입니다. 공용차량이 오전 5시 30분경에 호텔에서 출발을 했고요. 오전 6시 30분경에 국제학교 장소에 들렀다가 7시 40분경 센터에 도착했습니다. 출근했고요. 그리고 오후 12시 30분경 공용차량이 다시 움직입니다. 퇴근하시는 거지요. 목적지는 국제학교, 오후 3시 30분경 학교에 들렀다가 4시 10분에 다시 호텔로 도착합니다. 근무지 이탈인 거지요. 근무시간 이탈한 거지요.

다음 자료 볼게요.

사택으로 거주지를 옮기셨어요. 그리고 옮긴 4월 이후의 이동 경로입니다. 이때부터는 오전·오후에 들리던 학교를 오후에 들린다라는 것 빼고는 특별히 다른 것은 없어 보입니다.

다음 자료 볼게요.

개인 출퇴근 그리고 자녀 등하교에 공용차를 이용한 정황이 여기 다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입수한 77일의 데이터 중 58일이 이렇습니다.

다음 화면 볼게요.

감사가 아까 7월 30일부터 시작됐다고 얘기하셨지요? 얘기드렸고요. 감사가 시작된 8월 이후의 경로입니다. 사적 이용 정황이 더 이상 없다라는 자료를 보여 드리는 겁니다. 이게 사적 이용에 따라서 기사 인건비 그리고 주유비 그리고 추가 발생된 지출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런 제보가 들어옵니다. 직원들은 택시를 이용해서 업무를 다녔다고 그런 진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원실에서 차량관리대장과 이동 동선을 대조해 보니까 역시 안 맞았습니다.

직무대리님, 차량관리대장 그리고 이미 위조된 것으로 보이는데 GPS 내역도 사라졌습니다. 이거 지금 보신 GPS 자료 감사에 활용하셔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행 유현석 예, GPS 자료가…… 제가 사실은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지금 감사실에서 한 내용이 확인이 된 게 몇 건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이랑 일치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고요.

○진종오 위원 일치하지요?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행 유현석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징계조치를 해야 될 사안이고요. 명백하게 지금 그 절차에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종오 위원 아니, 징계조치는 당연한 것 같고요, 보니까. 이거 감사 자료에 활용하시겠냐고 여쭤본 거였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행 유현석 예, 그거는 감사실하고 논의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종오 위원 하나 말씀드릴게요. 판례를 말씀드릴게요.

증거의 증명력을 판단할 때 당연히 증거 수집의 위법성을 따져야 하지만 사안의 중요성과 공익성도 중요하게 고려해 위법성을 조각하는 법원 판례를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GPS가 개인 위치정보에 해당돼서 사용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실까 봐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제보 내용들도 있습니다. 말씀드릴게요.

한국으로 출장을 와 있는 기간에도 해외센터에서 출퇴근 기록이 찍히는 등…… VPN 알고 계시지요, 우회하는 거? VPN 활용해 가지고 출퇴근 정황도 발견했습니다. 위치가 어디에 있든지 그냥 노트북 이용해서 ‘나는 출근했습니다’ 해서 조작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법인카드 사적 유용도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감사가 시작되자마자 센터장이 콘진원 계좌로 8월 한 달간 6건, 약 100만 원 상당을 입금했습니다. 입금 이유를 물어보니 비용 초과 그리고 일자 혼선 때문이라고 해명을 하셨는데 왜 얘기를 드리냐면 감사 전에는 입금 내역이 없다가 감사가 시작된 8월부터 입금을 한 겁니다. 이거는 회계장부를 흔적 지우려고 한다던지 명백한 증거 인멸 시도 같아요.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기관의 이러한 행위가 제 식구 감싸기 아닙니까? 갑자기 입금을 했어요. 그렇게 안 보여지십니까?

○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행 유현석** 위원님, 절대로 제 식구 감싸기는 아니고요. 저희도 절차에 의해서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었고요.

○ **진종오 위원**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입금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웃기지 않아요, 그 전에는 안 하고 있다가?

○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행 유현석** 본인이 잘못한 것을 시인하는 차원으로 입금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은 듭니다.

○ **진종오 위원**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콘진원에서 지난해 부문장 직제를 신설했지요?

○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행 유현석** 예.

○ **진종오 위원**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 직제를 신설했습니까? 아니면 뭐니까?

○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행 유현석** 예, 업무 효율화를 위해서 신설했던 게 맞고요. 작년에도 저희가 국감장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원래 부원장이 2명 체제였습니다. 그 사이에 예산이 몇 배 늘었는데 부원장이 1명으로 줄어들면서 지금 특히 수출본부와 경영본부를 총괄하는 전문 인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직제를 신설했습니다.

○ **진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작년 국감에서 인건비를 사업비로 활용하려고 하다가 지적받으셨지요?

○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행 유현석** 원래 사업비로 인건비를 집행하는 걸로……

○ **진종오 위원** 지적을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습니까?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행 유현석** 예.

○ **진종오 위원** 왜냐하면 예산이 확보도 안 된 상황에서 근로계약 체결을 강행하셨어요. 지금 그래서 인건비 어디서 나가고 있습니까?

○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행 유현석** 지금도 자체 수입 사업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애초에 사업비로……

○ **진종오 위원** 그렇지요? 사업 수입에서 인건비가 지출되고 있지요?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행 유현석 예.

○진종오 위원 그런데 또 여기서 자체 수입이 급감한다라는 상황으로 해서 국고 보전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의원실에 보고하셨어요. 국고 보전이 필요할 만큼 어려운데 왜 부문장 직제 신설까지 했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내부에서 지금 비위가 이렇게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신설하는 의미가 저는 좀 없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사람이 비위를 저지를 건 아니고 특허나 해외 비즈니스센터에서 이런 비위가 터졌는데 부문장을 직제 신설한다라는 게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고요.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행 유현석 위원님, 그 부분은 전임자……

○진종오 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 다 드리고 나중에 얘기하세요.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행 유현석 예.

○진종오 위원 그리고 또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해당 사안을 조사하는 중에 콘진원에서 해당 감사를 30일 연장하셨어요. 30일을 연장하면, 9월 그리고 10월에는 국정감사 시작되지요. 국정감사 기간임을 인지하고 일부러 연장하신 겁니까?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행 유현석 그렇지 않습니다.

○진종오 위원 왜냐하면 국정감사 기간 중에 콘진원에서는 ‘지금 감사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답하시려고 하신 거 아니세요?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행 유현석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에 의원님실 방문했을 때도 10월 20일 날 완료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완료가 됐습니다.

○진종오 위원 완료가 된 거는 알겠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만나 뵙지 못한 이유를 인지 하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이런 사안이 너무나 심각해서 대면하기가 어려웠던 상황임을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행 유현석 예, 알겠습니다.

○진종오 위원 이 제보가 엄청 디테일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디테일한 제보 혹시 같이 근무하는 자 아닐까요? 센터장은 지금 그대로 근무하고 있지요?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행 유현석 아직 근무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진종오 위원 그 센터장이 근무하고 있는 상황이면, 이렇게 디테일한 제보는 같이 근무하는 사람이라고 의심되지 않으십니까?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행 유현석 심증은 그럴 수 있습니다만 확증은 못 하겠습니다.

○진종오 위원 그렇지요. 확증은 못 해요. 저도 확증은 못 하지만 이렇게 디테일한 자료는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보자가 2차 피해 받을 수 있어요.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행 유현석 당연히 그렇습니다.

○진종오 위원 당연히 그렇지요. 그러면 빨리 조치를 취하셔야지요.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행 유현석 예, 그래서 지금 조치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진종오 위원 국민의 세금으로 해외에서 호화롭게 생활하신 거예요. 이거 저는 외부

감사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행 유현석** 일단은 저희가 감사실에서 부패행위 신고에 관한 조사가 이미 완료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보고를……

○**진종오 위원** 빨리 보고해 주시고……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행 유현석** 이게 적법한 범위 내에서 오픈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오픈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지금 감사실에서 감사 외부인들이 양정을 다음 주 중에 할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정계 수위를 제언을 받는 프로세스인데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지금 프로세스를 밟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보 내용이 저도 구체적이어서, 물론 그 제보 내용을 다 알지는 못하나 그렇지만 그게……

○**진종오 위원** 제가 지금 다 말씀드렸잖아요, 아주 구체적으로.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행 유현석** 그래서 저희가 감사실에서 일일이 다 확인을 하고 있는 과정을 거쳤고요. 그 결과가 지금 보고서가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진종오 위원** 최대한 빨리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행 유현석** 예, 알겠습니다.

○**진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임오경**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많은 위원님들이 기관장님들에게 작년부터 요청하신 부분들이 올해 9월에 돼서야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런 말씀 하셨고, 지금 진종오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는데 빠른 속도전을 보여 주셔야 될 문제점임에도 불구하고 또 이러한 부분이 내년으로 미뤄지지 않도록 속전속결로 감사를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행 유현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오경** 다음은 조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원 위원**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님,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영화발전기금이 한국 영화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운영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동시에 우리 관객들의 영화 향유권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그러셨지요?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예.

○**조계원 위원** 그런데 영화 향유권 강화사업의 핵심인 차세대 미래관객 육성사업은 청소년의 영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영화 리터러시, 진로 교육을 결합한 복합문화교육 프로그램이지요?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예, 그렇습니다.

○**조계원 위원** 화면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면)

미래관객 육성사업 현장사진인데 많은 청소년들이 영화를 관람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올해 9월 26일 기준으로 청소년 8만 9781명이 참여했습니다. 이 정도의 참여 실적과 수요 증가라면 성공적인 사업이라고 평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예.

○조계원 위원 다음 화면 보시지요.

그래서 육성사업의 경과를 보면 저렇게 참여도가 높아지고 그랬는데 갑자기 이제 2년이 막 지난 시점에서 예산이 78%나 삭감됐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지요.

25년에 9억 300만 원이었던 게 2026년 2억 원, 즉 78%가 삭감이 됐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요?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삭감된 이유를 저는……

○조계원 위원 잘린 겁니까? 제안을 했는데 잘린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올린 겁니까?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아닙니다.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집행률이 나온 거에 있어서는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이유에서 그때……

○조계원 위원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집행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삭감했다?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24년 될 때에는 집행률이 저조해서 그때 삭감된 결로 알고 있습니다.

○조계원 위원 지금은 많이 늘었잖아요?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그런데 저희는 올해에도 그 수행하는 역할들이 크기 때문에 예산을 새로 회복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조계원 위원 보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발표한 2024 학교 문화예술교육 조사 결과에 따르면, 화면 보여 주시지요, 청소년의 현장체험학습 희망 장소 1순위가 바로 영화상영관입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교육 희망 분야에서도 영상 분야가 63.4%로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들은 청소년 세대가 단순한 관람을 넘어 영화를 통해 배우고 표현하고 진로를 탐색하고자 하는 욕구도 매우 높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예, 그렇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리고 영화진흥위원회는 프랑스 국립영화영상센터, CNC하고 자매결연 협정을 맺었지요?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예, 올해……

○조계원 위원 그런데 프랑스 CNC는 15~25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영화감상 활성화 펀드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미래관객 육성을 위해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과 교육적 접근을 병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영국의 BFI 역시 청소년 관객 개발 및 영화교육 사업을 국가전략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지요.

그런데 정작 대한민국은 여하튼 국제적 흐름과는逆行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미래관객 육성사업을 시작 2년 만에 5분의 1로 축소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 시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계원 위원 영화관 입장권부과금이 영화발전기금의 핵심 재원인 만큼 다시 관객에게 돌려주는 영화 향유권 강화사업은 영화기금의 존치를 위해서도 정당하지요?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예.

○조계원 위원 그러면 영화의 향유를 할 수 있는, 특히 10대 청소년들이 영화를 향유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교육적으로도 아주 유의미한 사업들을 넓혀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예.

○조계원 위원 앞으로 영화 부문에 대해서도 이렇게 공교육으로 담아내는 방식으로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이와 관련된 계획들과 예산 계획도 세워 주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리고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 아시지요?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예.

○조계원 위원 2018년 3월부터 2025년 5월까지 7년 이상 영화진흥위원회와 여성영화인모임이 공동운영 용역 형태로, 민간협력 거버넌스로 운영해 왔지요, 사업을?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예.

○조계원 위원 그런데 2023년부터 예산과목이 일반용역비로 변경되었다는 내부 감사 결과를 이유로 공개경쟁입찰로 전환하였지요?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예.

○조계원 위원 그래서 조달청 입찰 방식으로 지금의 노무법인 마로를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지요?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예.

○조계원 위원 마로 사업은 어떻습니까? 잘되고 있습니까?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사업.....

○조계원 위원 제가 확인한 걸 알려 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성평등센터 든든이 영진위의 지원이 중단이 되었음에 이에 대한 사실을 고지했고 상담 피해자들에게 그 사실을 알렸어요. 알렸는데도 그 피해자들은 대부분이 든든에서 남아서 상담 절차나 법적 절차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고 단 1명만 넘어가더라고요. 다 고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로로 인수인계된 부분은 단 1명이더라고요. 알고 계셨습니까?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예, 저희는 여성영화인모임에서 계시던 피해자분들이 19명 중에 8명은 인계에 동의를 했는데 11명은 동의를 하지 않은 상태라서 저희는 그러면 그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연속적인 어떤 지원책, 그거를 협의했고 얼마 전에 그 지원을 검토를 해서 확정을 한 상태입니다.

○조계원 위원 지원하기로 했습니까?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예, 확정을 했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런데 현재까지의 상황을 지켜보면 성폭력 피해지원 사업의 핵심은 현장의 신뢰가 기반이 되는 거고 민간협력 거버넌스로 운영되었을 때는 이게 잘 운영이 돼 왔어요. 그런데 노무법인이 인수를 맡으면서부터는 행정적인, 순수한 행정편의주의로 운영이 되었고 그 상황 속에서 든든에 있던 성폭력 피해자들이 마로로 넘어가지 않고 거기서 계속해서 상담과 법적 절차 진행을 희망했던 것이라고요. 다행스럽게 피해와 관련된, 상담 피해는 계속해서 지원하기로 했다 이거지요?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예.

○조계원 위원 그러면 법적 절차 진행하는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지원할 겁니까?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그거는 저희가 외부 법률자문 여러 가지를 지금 받고 검토 중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결정되지는 않았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러니까 계속해서 든든이 이 사업을 수행했더라면 아마 법률 지원도 계속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좀 구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예. 저희는 법률에 의거해서, 성평등센터 든든에서 마로로 가게 된 것도 법에 의해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적인 자문을 지금 계속하고 있고……

○조계원 위원 이 사업은 단순한 용역이 아니라 성평등 전문가, 산업, 전문성……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행정조직이 결합된 민간협력 거버넌스 모델입니다. 이걸 발전시켜도 부족한 판에 윤석열 정부에서 문화예술 분야 전반의 거버넌스가 행정편의주의로 인해서 붕괴되고 말았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간협력 기반의 모델을 복원하는 문제, 이 문제에 관해서도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대책을 세우고 그와 관련한 로드맵도 우리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예, 검토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오경 위원장님, 답변하실 때 마이크를 이쪽으로 좀 가져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임오경 다음은 손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솔 위원 한상준 위원장님, 존경하는 조계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이어서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국회에 들어온 지 한 네 달 됐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을 여러 행사나 이렇게 한세네 번 정도 봤던 것 같은데 제가 빨 때마다 이 성평등센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기억하시지요?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예, 기억합니다.

○손솔 위원 존경하는 조계원 위원님께서 많은 문제도 이야기해 주셨는데 저는 핵심은 입찰의 방식을 계속 유지할 것인가라고 봅니다. 성평등센터를 1년씩 입찰 방식으로 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연속성의 측면에서는, 저희도 충분히 연속의 필요성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입찰로 간 것도 그렇고 법률 때문에, 그러한 어떤 지적 사항이 있는 결과이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 법률적인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손솔 위원 아니, 지금 이 성폭력 피해 같은 경우는요 형사사건 종결까지 1년 넘는 경우가 허다해요. 법률 문제면 법률 바꾸면 되는 건데 지금 시행령으로도 할 수 있는 것들도 있어 보이거든요. 이게 문제가 1년씩 하는 걸로 하면 피해자들이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을 거라는 믿음 자체가 붕괴가 되는 거예요. 이 구조 자체가 피해자들한테 지원

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믿음이 사라지는 구조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 1년마다 입찰하는 것은 성평등센터의 취지에 맞지가 않다고 저는 보거든요.

한국영화성평등센터 소개 보니까 피해자를 지원해서 일상회복을 도모하고 교육을 통해서 예방하고 성평등 환경 조성하고, 이게 목표인 센터잖아요. 그런데 방식이 지금 목표랑 맞지가 않다고요. 1년씩 입찰하는 방식은 반드시 재고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센터가 출범할 때 민관 협력으로 하신 것 맞잖아요. 민관 협력으로 출발을 해서, 이게 문화예술계 미투운동 이후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그렇습니다.

○손솔 위원 영화계의 이런 문제를 영화계의 특수한 상황을 이해하고 있는 그 지식 위에서 해결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민관 협력 거버넌스의 성공적인 사례였다고요. 이게 입찰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성공적인 사례가 다 도루묵으로 된 거예요.

든든에서 진행하고 있다가 지금 노무법인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면)

화면 보여 주시면 지금도 든든은 3.4배의 많은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화인들이 생각하기에 여기가 영화계의 문제를 잘 알고 있는 곳이다라는 인식이 분명한 거예요. 영화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센터가 운영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1년 입찰 방식이 이 문제를 다 가로막고 있다 이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입찰 과정에서도 피해자 지원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제대로 판단됐는지 저는 좀 의심스럽거든요.

화면 다시 보시면 조달청 입찰 과정에 제시된 지시서에 피해자 지원 업무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지금 하고 있는 업체에서 제출한 서류 중에 예방 교육이나 예방 컨설팅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 경험만 있고 성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이 없습니다. 그리고 조달청 입찰 과정에서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성평등 관련 전문가가 없었다는 게 저는 가장 큰 문제의식이에요. 성평등센터에 입찰하는 이 과정에 성폭력, 성평등 관련 전문가가 없이 입찰이 됐거든요. 저는 성평등센터를 성평등센터답게 운영할 의지가 있었는가 이런 고민이 듭니다.

그래서 이 1년 입찰 문제 성평등센터의 운영과 정말 맞지 않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성평등센터 원래의 목적 그 취지를 저희 다시 한번 깊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손솔 위원 위원장님, 제가 여러 번 뺐을 때, 만났는데 문제 알고 있다, 대책 세우겠다 하셨거든요. 빠르게 구체적인 대책을 해 주시고, 입찰 방식을 폐기해야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많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손솔 위원 강석원 위원장님, 지난 14일에 존경하는 박수현 위원님께서 문체부 감사에서 생성형 AI 학습 시 저작권 침해 가능성과 창작자 권리 보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TDM 면책 방향으로 법안을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고.

지난 14일에 최휘영 장관님께서 AI가 성장하는 측면, 창작자 저작물이 보호되어야 하는 측면, 이게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창작자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취

지로 답변을 하셨는데 저는 과연 이런 장밋빛 미래일까에 대한 우려, 의문이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 우려가 있는 창작군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이 창작자들이 자신의 작품이 학습되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이거든요.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보면 이게 제 SNS 계정이거든요.

영상을 틀어 주십시오.

(영상자료 상영)

이게 제 SNS 계정인데 SNS가 기본적으로 인공지능 훈련을 허용하는 걸 기본 설정으로 하고 있고 이것을 해제하는 과정을 제가 찾는 겁니다. 트위터에 들어가서 AI 학습을 내가 하기 싫다,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찾는데 온갖 버튼을 찾아야 되고 들어가기 어려워요. 직접 이렇게 들어가서 해제하지 않으면 제 SNS에 있는 것은 이미 다 AI에서 학습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 있는 많은 분들도 그런 상황일 겁니다.

이렇게 어렵게 제외를 해도 콘텐츠가 자동으로 수집해서 학습하는 크롤링(crawling) 방식이 되고 있고 창작자들은 이런 방식을 짹 다 긁어 간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리고 알고도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에서 AI 학습을 권유하거나 강요하고 있는데요.

이것 지금 네이버 웹툰에서 하는 계약서인데 4번에 되어 있는 게 AI 학습에 동의한다는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계약서만 보면 그렇게 바로 읽히지는 않지요. 지금 네이버 웹툰뿐만 아니라 스튜디오나 연재처 이런 곳에서 계약서에 이렇게 이미 독소조항이 들어간 채로 되어 있어요.

신인 작가나 창작자들이 이 계약서에 ‘이 조항 빼서 해 주세요’ 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들어가겠지요. 그러면 바로바로 다 AI 학습 되는 거거든요. 네이버 웹툰은 도전문화 업로드 웹툰 다 AI 학습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권유나 강제가 어느 정도인지 실태조사조차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지금 문체부랑 저작권위원회에서도 제도 정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최근에 대국민 의견 수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봤을 때, 화면 보시면 이게 10월 13일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 월요일까지 하는 설문인데 참가자가 어제 기준 개발사 대상은 참여한 사람이 없고요, 권리자는 41명 참여했습니다. 이게 의견수렴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지금 AI 관련해서 충돌하는 문제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당사자들의 의견 수렴이 제대로 되어야 하고 현황조사부터 꼼꼼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실태파악부터 해서 대책까지 어떻게 하실지 말씀 주십시오.

○한국저작권위원회 강석원 예, 매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문체부하고 함께 지금 워킹그룹을 구성해서 학습이라든지 그다음에 거래라든지 다양한 분야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고 있고요. 거기에는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손솔 위원 위원장님, 그런데 문체부 워킹그룹에서 하는 이 설문조사 결과가 지금 대

단히 저조하다고요. 다음 주 월요일이 마감인데 41명 참여했어요.

○**한국저작권위원장 강석원**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거기 자체, 워킹그룹 자체에도 이해당사자들이 상당수는 참여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조금 더 많이 독려해서 많은 이해당사자의 의견이 모일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솔 위원** 엄청 적극적으로 하셔야 의견이 모일까 말까, 현황 파악이 될까 말까입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한국저작권위원장 강석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오경** 다음은 대구 북구을의 김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수 위원** 콘진원 직무대리님, 지난 2021년 뉴콘텐츠센터, 2018년부터 사실은 고양시에서 설치해서 운영되던 건데 이게 강남으로 이전한 적 있지요?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행 유현석** 예, 있습니다.

○**김승수 위원** 그런데 이전 과정에 굉장히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습니다.

이전을 위해서 당시에 한 1억 정도 들여서 용역을 하고 있었지요?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행 유현석**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승수 위원** 아마 직무대리님도 부임하기 전일 텐데……

그런데 통상적으로 이전을 위한 용역을 했으면 용역 결과를 보고 이전 대상지를 선정해서 계약하는 게 정상적인 것 아닙니까?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행 유현석** 통상적으로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승수 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들을 보면 용역기간이 2021년 4월부터 12월 달, 11월 달 용역이 끝나고 결과 발표가 12월에 있는데 엉뚱하게도 이전지 건물 계약은 그 이전 10월에 계약이 체결됩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행 유현석** 그 당시의 자료를 저도 최근에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데요. 중간보고서상에는 입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김승수 위원** 아니, 그런데 용역을 일이 품도 아니고 1억을 들여서 이렇게 했으면 충분하게 용역 결과에 대해서, 용역 결과에 그대로 따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용역 결과는 참고자료고 용역 결과를 토대로 용역을 준 기관은 용역 결과에 따라서 어느 대안들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내부 검토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행 유현석** 예, 그렇습니다.

○**김승수 위원** 그런데 용역 진행 중에 했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결정하는 과정에 누가 제일 먼저 이 건물을 제안했습니까?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행 유현석**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가 입사하기 전인데, 그것은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자료들이 하나도 안 온다는 거예요. 왜 의혹이 없으면 왜 그런 자료 제출을 못 하느냐는 거지요.

누가 이 건물을 소개했고, 아마 외부 인사 아니겠냐 싶습니다. 거기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제안했기 때문에 이 건물을 계약한 게 아닌가 그렇게 합리적 의심이 든다는

거예요. 이게 보면 지금 콘진원의 여러 시설들이……

본원은 나주에 있지요?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행 유현석** 예.

○**김승수 위원** 원래 건물이 역삼동에, 강남에 있었는데 지금 그게 현재 또 분원으로 사용하고 있고.

지금 이전지는 분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역하고 한 1k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지요?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행 유현석** 예, 맞습니다.

○**김승수 위원** 대부분의 콘진원 시설들이 강남에 있고 경기 남부권 판교에 있습니다. 경기 북부권에는 없어요. 유일하게 하나 있었는데 이마저도 이렇게 서울로 옮긴 겁니다. 서울에 있는 시설에 기준에 있는 고양시 시민들이 대중교통으로 오가려면 최소 오가는데 3시간 걸립니다.

어쨌든 그것을 떠나서 이렇게 이전 과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지금 해소되지 않고 있는데 누구의 제안에 의해서 어떤 결정 과정을 거쳐 가지고 이 건물이 선택됐는지 관련 자료를 종감 전까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만 의혹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 옮기고 나서 관리업체를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 관리하고 있는 위탁업체 대표가 굉장히 공사 무분별한 사람입니다.

건물 관리를 맡겼더니 자기 건물도 아닌 데를 마치 자기 건물인 것처럼 막 사용합니다. 자기 회사 직원들 개인 독서모임, 생일 축하 이벤트, 우수사원 시상식, 이런 것들을 콘진원하고 아무런 의논 없이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더니 콘진원에서도 이게 좀 문제가 있겠다 싶어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법무법인에 의견 조회를 해 봅니다. 그때 법무법인의 회신 내용을 보면 이거 명백하게 업무상 배임이고 업무방해죄로 형사 고발도 할 수 있고 손해배상책임도 물을 수 있다고 그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조치를 하라고, 할 계획이나 물었더니 5월 중에 고발조치 하겠다고 했는데 고발조치 했습니까?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행 유현석** 제가 5월 중에 고발 조치했다는 내용은 보고받지 못했고요, 위원님. 다만 지금……

○**김승수 위원** 지금 현재 고발했습니까?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행 유현석** 아니요, 지금 내부 특정감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승수 위원** 내부 특정감사도 우리가 재차 확인하니까 문체부는 감사를 지시했다 했는데 콘진원은 감사 들은 바 없다 하더니 이제 감사기간 중이 돼서야 특정감사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석연치 않은 과정에 대해서 따지고 들어가 보니까 국회의장실이 개입한 것으로 나옵니다. 국회의장실에서 콘진원 본부장, 직원들을 무려 세 차례에 걸쳐 가지고 의장실로 불러 가지고 추궁을 합니다.

이거 굉장히 이례적인 것 아닙니까? 의장실이 한 번도 아니고 무려 세 차례에 걸쳐서 공공기관의 직원들까지 불러 가지고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무슨 지시를 받은 겁니까?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행 유현석

○김승수 위원 왜 국회의장께서 갑자기 이런 일에 개입을 했나 보니까 위탁관리를 맡아 가지고 부당행위를 한 대표가 의장 지역구 주민인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것 때문에 불러서 이렇게 압박을 한 것 아닙니까? 또 그 압박 때문에 지금 제대로 조치를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행 유현석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외부 로펌에.....

○김승수 위원 그러면 왜 제때 고발 조치도 안 하고 이렇게 그냥 미적 미적거리냐는 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한다고 그러니까.....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행 유현석 예, 감사 중에 있습니다.

○김승수 위원 앞서 감사 결과에 대해서도 그냥 철저하게 감사해서 보고를 하고 고발 조치 필요하면 바로 고발하십시오.

그리고 앞서 이전 과정, 결정 과정, 누가 개입했는지 여러 가지 관련된 서류 절차는 종감 전까지 바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행 유현석 예, 앞서서 말씀하신 건과 관련해서는, 제가 따로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수 위원 따로 추가로 보고를 해 주세요.

앞서 우리 민형배 위원님도 질의를 했었는데 해외 게임사 국내대리인 제도가 오늘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해 가지고는 2023년도에 공개가 법제화돼서 작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위반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임오경 간사, 김교홍 위원장과 사회교대)

게임물위원회 위원장님, 그런데 위반행위를 보면 압도적으로 지금 외국 게임사들이 많고, 외국 게임사들이 위반의 70%를 차지하는데 그중에 또 압도적으로 중국 게임사들이 위반을 합니다. 그래도 대체로 또 시정이 됐는데 시정이 안 되고 있는 그런 게임사도 압도적으로 외국 게임사 또 중국 게임사입니다.

시정이 제대로 안 되거나 또 굉장히 지연되는 그런 사례가 발생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고 지금 대책이 있습니까?

○게임물관리위원장 서태건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서 확률 표시를 안 하거나 거짓 표시를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저희가 일차적으로 행정조치로서 시정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시정요청 단계에서 대부분 다 시정을 하고요. 끝까지 시정이 안 됐을 때에는 차단을 하는 조치를 하는데요. 그 차단까지 가는 절차가 행정적으로 한 3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김승수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또 국내 게임사하고 해외 게임사에 시정하는 그 기간에 있어서 차이들이 난다는 거지요. 그래서 해외 게임사가 즉각즉각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앞서 또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국내대리인 제도를 하면서, 오늘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대상 게임사가 어느 정도 얼마나 적극적으로 호응할지 모르겠는데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때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리인 지정이 취소되면 다른 페널티나 불이익 이렇게 해서

사실상 그게 실효성 있게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제도적으로 그런 미비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최대한 조속히 보완해 가지고 대리인 제도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게임물관리위원장 서태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수 위원** 그리고 지금 조특법, 국회 게임정책특위 제가 민주당 조승래 위원장하고 같이 공동위원장인데 조특법 개정안에서 게임하고 음악하고 세액 공제 혜택받도록 포함한 것……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시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기존에는 영상 콘텐츠만 세액 공제하던 것을 게임과 음악을 포함시켰습니다. 그게 법안이 발의가 됐는데, 콘진원장직무대리님은 아실 거예요.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행 유현석** 예, 알고 있습니다.

○**김승수 위원** 하여튼 이 부분 좀 빠르게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여기 문체부의 콘텐츠정책국장님 나왔습니다만 정부나 콘진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응을 하셔 가지고 게임업체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법안이 통과될 경우 경제효과만 수조 원에 이를 거라는 그런 분석이 있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행 유현석** 예, 맞습니다.

○**김승수 위원**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행 유현석** 예, 알겠습니다.

○**김승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 수영구의 존경하는 정연욱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연욱 위원** 유현석 원장님, 어차피 콘텐츠진흥원이 K-컬처 300조, 지금 이재명 정부가 얘기하고 있고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이 300조 시대를 여는 가장 핵심적인 기관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모든 콘텐츠 역량을 개발하고 발전시키고 또 세계로 전파해 나가는 핵심적인 기구인 것 같습니다. 올해 예산만 아마 6300억 원이고 그중에 한 2654억 원이 공모사업에 주로 집중되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공모사업 비용만 아마 전체 3분의 1이라고 지금 규모가 나오고 있고요. 최근 5년간 또 공모사업 예산은 1조 1000억 원으로 이 중 방송 분야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웹툰과 신기술 분야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관련한 PPT에 데이터가 아마 뜰 것 같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이제 해가 바뀔수록 조금씩, 집행률이 조금 떨어지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이 공모사업 자체가 갖는, 전체적으로 이 부분은 다 공모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은 맞는 것 아닙니까?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행 유현석** 예, 맞습니다.

○**정연욱 위원** 게임·방송·웹툰·애니메이션 한 12개 분야로 운영이 되고 있고. 그런데 매

년 방식이 너무 천편일률적이지 않나 하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현재 지원 구조가 전부 보조금 체계로 운영되고 있지요?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행 유현석** 예.

○**정연욱 위원** 그래서 단년도 회계주의에 따라서 예산은 집행하고 사업이 끝나면 남은 잔액과 이자를 모두 반납하는 형식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문제는 여기부터 나옵니다. 성과가 아무리 있어도 후속사업이나 재투자는 불가능한 구조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지적입니다. 아마 매년 이렇게 지원만 하고 끝나는 구조로 가면 K-콘텐츠 사업은 어떻게 되는지, 성과 자체에 대한 냉정한 평가나 치밀한 검증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지속 가능하게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어느 정도 중단을 해서 재점검이 들어가야 되는지 이런 평가 자체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것 아닙니까?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행 유현석** 예,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K-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1년 만에 사실 제작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구조에 있는 게 현실이고요. 중장기적인 그런 어떤 과정 속에서 촘촘하게 저희가 서포트를 한다면 더 좋은 작품들이 많이 나올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연욱 위원** 그래서 최근에 5년간 공모사업에 약 1조 원 넘는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산업 전체 성장세, 아마 이게 또 실제로 민간 부분까지 파급효과, 우리가 이것은 제대로 따져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그것은 할 수가 없는 구조가 돼 있는 것 아닙니까? 단 건으로 매번 보조금을 집행하고 거기에 따른 아무런 평가도 없이 남으면 그만이고 던져 주면 하든지 말든지 하는 이런 구조 시스템으로 가서 어떻게 콘텐츠 발전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아무리 사업 성과가 발생해도 이를 다음 예산에, 성과도 없이 어떻게 평가를 해서 예산을 늘릴 건지 줄일 건지…… 평가도 없이 그냥 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방식이면 성과를 아무리 봐도, 이 분야에 집중할 예산을 넣어서 가야 되겠다든지, 적어도 5년짜리 중장기 사업으로 갈 건지 안 갈 건지 평가를 못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대안이 없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 보조금 구조로 가는 게 아니라 저는 출연금 구조로 바꿔 보는 게 어떨까 한다는 생각입니다. 출연금으로 바꾸면 법률에 근거한 기관 출연 형태로 내용을 형태로 바꾸는 거고 성과가 난 사업의 잔액과 이자를 부처가 다시 승인하면 재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성과 그다음 단계에 돈을 더 넣을 수 있고 또 집중적인 투자를 해서 이 자체의 파일을 더 키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냉정히 보면 또 그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콘텐츠 특화형 민간 매칭형 투자처럼 민간이 투자 사업을 선정, 투자 대상을 선정하고 정부가 매칭 지원하는 성과 중심의 투자형 생태계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게 뭔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구조를 냉정하게 한번 바꾸어 보고, 어차피 이 K-컬처 300조라는 거창한 숫자에 우리가 치중하기보다는 이 실제적인 성과를 이루어 내기 위해서 어떻게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 근본적인 문제를 지금 짚어야 될 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거창한 구호만 있고 300조라는 숫자만 나와 있지 과연 이 시스템을 어떻게 바꿔

나갈지, 어떤 식으로 콘텐츠 발전을 이루어 내야 할지 근본적인 대책이나 근본적인 수술은 아예 없고 숫자만 던져 놓은 것 아닙니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근본적으로 혁신적인 체질 개선을 위한 대책이 뭐가 있냐 이거예요.

그런데 매년 지금 콘진원으로부터 보고받는 형태는 근본적인 쇄신의, 혁신의 아이템 대안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천편일률이고, 예산이라는 게 지금 들어 봤자 뭐 하는 겁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은 우리가 장기적으로 모든 영상 관련되는 웹툰이나 게임, 콘텐츠 산업 자체의 여러 분야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데 누가 대의를, 여든 야든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렇다면 근본적인 수술 방안, 우리가 이재명 정부의 K-컬처 300조 사업의 가장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이런 부분들이 빠져 있기 때문에, 300조라는 얘기만 있지 300조의 내용을 뒷받침할 세부 내용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강하게 하고 싶은 겁니다. 도대체, 그러면 K-컬처 300조를 얘기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식으로 뭘 바꿔 나갈지에 대한 내용은 없고 300조 하나밖에 없어요. 저희가 지적하는 것은 이 300조라는 껍데기만 가지고 계속 300조, 300조…… 어떻게 이것 하겠냐 이거지요.

물론 이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적용되기 때문에 그동안 문체부와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성과 있다 하면 다년도 계약이나 한시적인 조치라도 필요할 겁니다. 그렇지만 문체부와 논의를 통해서 또 진전을 해야 된다는 현실적 한계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콘진원 자체가 K-콘텐츠 전체를 발전시키는 핵심적인 기관이라면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이 그동안 없었는지 한번 좀 말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행 유현석 정말 이번 국감을 준비하면서 저희가 가장, 개인적으로 희망적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여러 위원님들께서 출연금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많이 저희한테 문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중장기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 단년도 갖고 결산하는 게 한계가 있다라는 것은 업계의 목소리에도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주무부처와 저희가 협의를 해서, 그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욱 위원 지금 우리가 K-컬처 300조를 얘기하기 이전에 아까 얘기했던 분야별로 여러 가지 집중적인 투자 대상도 있고 게임에 대한 세액 공제, 저도 이 부분은 좀 필요하다고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과연 앞으로 이런 출연금을 하겠다면, 출연금 정책으로 바꿀 수 있다면 당장 필요한 조치가 어떤 게 필요합니까?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행 유현석 제가 알기로는 저희 기관이 출연금을 할 수 없는 걸로 돼 있지는 않고요, 할 수는 있고요. 그게 주무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그게 정부안에서 어떤 구조가, 의사 결정이 어떻게 돼야 될지는 모르겠으나 의사 결정하고 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그렇게 보고를 받은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정말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에 첨언을 하자면 우리 예산을 정말 효과적으로 유연성 있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출연금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연욱 위원 앞으로 적극적인 노력이 좀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행 유현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고양병의 존경하는 이기현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이기현 위원** 영진위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건국전쟁2를 앞의 위원님들도 질의해 주셨는데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영진위에 각성을 촉구하는 그런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건국전쟁2 감독이 영진위의 독립영화 불인정 결정으로 공권력의 상영 방해로 비쳐졌고 실질적 겸열이어서 이 건국전쟁2 흥행이 실패했다 이렇게 하면서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술영화, 독립예술영화 인정 제도가 여러분 다 알다시피 소규모·저예산 영화에 상영관을 배정해서 기회를 보장하는 행정적 지원 제도일 뿐인데 특정 영화 상영을 저해하는 제한이라든지 허가라든지 이런 겸열 제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예.

○**이기현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독으로부터 영진위가 이런 공격을 받고 있는데 영진위가 그동안 보도자료 한 번 낸 적이 없어요. 사실이지요?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예, 보도자료를 낸 적이 없습니다.

○**이기현 위원** 저는 이런 오해가 있거나 아니면 오해가 아니라 정치적 공격이 있을 때는, 영진위는 그래도 국가기관 아닙니까? 사실관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고 제대로 공정성을 설명하는 것이 위원장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예, 오늘 어느 정도 해명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기현 위원** 오늘이 아니라 이렇게 독립예술영화 인정 제도의 취지와 다르게 이게 무슨 겸열 제도인 양 이렇게 공격을 받았는데 이것 행정 지원 제도잖아요.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예, 추천입니다.

○**이기현 위원** 독립예술영화로 지정이 되면, 인정이 되면 정부가 할 수 있는, 영진위가 할 수 있는 일정한 소규모 상영관을 확보해 줘서 그분들에게 안정적인 공연의 공간을, 상영의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예, 그렇습니다.

○**이기현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PPT 한번 띄워 봐 주실래요?

건국전쟁이 1·2가 만들어졌는데, 건국전쟁1 이승만 대통령을 다루었던 저 부분은 처음에 개봉 첫날 167개에서 개봉 10일 차에는 557개관으로 확대가 됐어요. 굉장히 흥행에 성공한 거지요.

건국전쟁2, 이번에 문제가 됐던 영화는 오히려 1차에 비해서 379개관이 개봉을 했습니다. 실제로 건국전쟁1에 비하면 2배 이상이지요. 그런데 열흘 차가 되니까 190개 상영관으로 축소가 됩니다.

왜인지 제가 따져 보니까 결국 흥행의 문제였어요. 1보다는 재미가 없었고 다른 소재도 역사적 평가가 난 4·3에 대한 펌훼가 내용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많은 양식 있는 시민들이 ‘그것 볼 것 없더라, 내용이 조금 이상해’ 그래서 결국 흥행에 실패한 것입니다. 강제로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 결정을 내린 것은 영진위원들이었어요. 영진위원들 지금 아시다시피 위원장님 포함해서 정말로 이념 문제로 이렇게 다가선다면, 영진위원장님도 마찬가지고 영진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다 윤석열 정권 때 임명되신 분들입니다. 민주당이 임명한 분들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런 판단을 한 거예요. 이 내용 자체가 역사에 대한 편향적 태도들이 영화 내용의 주류였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들께서 봐도, 내가 봐도 이것은 도저히 독립예술영화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해서 결국은 불가 판정을 내리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기현 위원 맞습니다. 이 건국전쟁2에 대한 영진위의 판단이 공권력에 의한 상영 방해 아니지요? ‘예, 아니요’로만. 방해한 것 아니잖아요?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영진위에서 나온 결과 그걸로 보면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기현 위원 그리고 이미 다 만들어진 영화, 건국전쟁2에 대한 검열도 아니잖아요?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기현 위원 맞습니다. 저는 영진위가 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예.

○이기현 위원 이따가 다시 기회 되시면, 제 질의 끝나고 나면 전체적으로 답변 한번 해 주시지요.

다음은 영등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PPT 좀 띄워 주시지요.

영등위에는 영상물등급위원회라는 소위원회들이 있습니다. 맞지요?

○영상물등급위원장 김병재 예, 맞습니다.

○이기현 위원 맞지요. 소위원회 위원 위촉할 때는 후보자들로부터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맞지요?

○영상물등급위원장 김병재 예, 맞습니다.

○이기현 위원 그리고 위촉되면 위원장은 직무윤리 서약서와 결격사유 확인서 이렇게 받도록 돼 있지요?

○영상물등급위원장 김병재 예.

○이기현 위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 또는 재판·소송 진행 중에 이것을 인지했을 때는 소명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맞지요?

○영상물등급위원장 김병재 예.

○이기현 위원 그렇습니다.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1번 항목입니다. 저기 체크 ‘예’ 하고 나면 이것에 대한 확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영등위가 수사를 의뢰한 위원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현재 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근거가 뭡니까?

○영상물등급위원장 김병재 지금 그 해당 위원은, 그러니까 소위 위원은 직무윤리 진단서를 제출하게 돼 있지만 위원회의 위원은 장관께서 위촉하고 그렇게 돼 있지 거기에 대한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이기현 위원 다음 페이지 한번 넣어 주실래요?

잠깐만 서 계시겠어요?

수사 단계에서 법적으로 직무수행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직접적 이해충돌의 우려가 있는 사안에는 배척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원칙이지요.

저기에 보면 임기 중일지라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는데 그 기준을 보면 '성실성, 공정성, 객관성이 결여됐다고 판단할 때'라는 규정이 염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위원에 대해서는…… 특히 이 위원은 해당 직무와 관련돼서 영등위에서 수사의뢰돼서 지금 현재 수사가 진행 중에 있는 분입니다. 그렇지요?

○영상물등급위원장 김병재 예, 맞습니다.

○이기현 위원 수사 종결 시까지 해당 위원이 소위원회에서 직무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당장 영등위에서 직무 중지시키고, 특히 최소한 안전과 관련된 사건 심사 관련해서는 전면 배제 조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상물등급위원장 김병재 수사 결과가 내달, 다음 달에 나온다고 합니다. 하여튼 위원님 지적 말씀대로 적극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현 위원 수사 결과를 기다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영등위에서 직무와 관련된 범죄로 수사를 의뢰했고 그분이 지금 수사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영상물 등급 관련돼서 본인이 감독으로 있는 영화 관련돼서 영상물 등급심사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상영해서 영등위로부터 고발당한 분입니다. 그래서 수사를 받고 있는데 이분이 멀쩡하게 심사 1건당 20만 원씩 받아 가면서 심사에 참여하고 있어요. 국민들이 보면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도개선책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사 결과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소위원회 활동할 수 없도록 즉시 중단시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내부 규정을 지금이라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등위 위원하고 소위원회 위원이…… 소위원회 위원은 이런 규제를 받고 오히려 그 상급에 있다고 생각하는 영등위 위원들은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이거 제도개선책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상물등급위원장 김병재 위원님 말씀대로 규정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기현 위원 혹시 영진위원장님, 제 말씀……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는 검열을 한다는 판단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이 취지를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독립영화에 만들어지는 작품들은 사실은 관객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정말 없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영화들이 1000명의 관객을 모으는 데도 굉장히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소위원회를 통해서 추천을 하게 되면, 저희가 지원하는 전국의 독립영화 전용관 가운데 5개 관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1년에 3분의 2 기간 동안을 저희가 추천한

영화 중에서 선정을 해서 상영을 하게 되면 관객 수를 증가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데에서 추천의 취지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현 위원** 국가기관입니다. 정치적 공격받을 때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면 입장 내야 하신다, 제 말씀은 그것입니다.

.....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서초구갑의 존경하는 조은희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정상원 콘텐츠정책국장님, 질의하기 전에 조금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연숙 위원님께서 콘텐츠산업에 대해서 콘진원이 출연금 구조로 전환해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 정상원** 저희도 아무래도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콘텐츠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런 다년도에.....

○**조은희 위원** 중장기라고.....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 정상원** 예, 중장기적으로 다년도에 걸쳐서, 현재는 회계연도 독립의.....

○**조은희 위원** 지속 가능하게.....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 정상원** 원칙에 따라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면 연 말에 정산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출연금으로 하면 자율성도 생기고 또.....

○**조은희 위원** 동의하시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 정상원** 예, 그런 차원에서는 긍정적으로.....

○**조은희 위원** 장관님한테 보고하실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 정상원** 저희도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장관님께 보고드리고요 저희 위원회도 좀 보고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 정상원** 예.

○**조은희 위원** 왜냐하면 대대적 흥행을 이끌었던 ‘재벌집 막내아들’, ‘핑크퐁 아기상어’, ‘폭군의 세프’ 이런 것들이 다 콘진원이 제작 지원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작품 잘됐다, 우리가 지원했다 이걸로 끝나는 겁니다. 작품이 잘되면 성장, 수익도 같이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보조금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것은 반드시..... 지금 콘진원장님도 동의하시니까요 출연금 구조로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 정상원** 예, 검토하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검토하시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빨리?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 정상원** 예, 왜냐하면 저희가 또 재정 당국하고도 또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은희 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유현석 직무대리님, 콘진원 지원 사례는 아닙니다. 영화진흥위원회에서 15억 정부지원금을 받기로 한 이창동 감독의 차기작 ‘가능한 사랑’이 영진위의 15억 정부지원금을 받았

는데 나머지 60억 민간투자금 유치에 실패해서 넷플릭스로 간 거 아시지요? 모르시나요?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행 유현석** 제가 그것은 죄송합니다, 모르고 있었습니다.

○**조은희 위원** 영진위원장님은 아시지요?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조은희 위원** 오징어 게임도요, 두 분 다 들으십시오. 10년 동안 국내에서 투자처를 못 찾다가 결국은 넷플릭스로 갔어요. 대박 났지요. 올해 북미에서 역대급 흥행을 이끈 '킹 오브 킹스'도 장성호 감독이 제작기간이 10년인데 투자처 찾는 데 역량을 90% 투입했습니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도 투자처를 찾다 찾다 못 찾아서 넷플릭스로 가서 7년 만에 완성이 됐어요.

지금부터 콘진원 대행님께 묻습니다.

제작자들이 투자처를 못 찾아요. 그래서 K-콘텐츠가 전 세계를 휩쓸어도 우리 국내의 투자 상황은 더 취약해졌다 이런 진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행 유현석** 동의합니다.

○**조은희 위원** 콘진원 상황도 비슷합니다.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진흥원에서 좋은 작품이라 지원하겠다 선정해 놓고 사업자가 중도 포기해서 의도치 않게 환수되는 금액이 누적 규모가 180억 원이고요. 작년만 해도 절반 가까운 81억 원이 중도 포기해서 들어왔습니다. 앞으로 지원금이 더 커질 텐데 좋은 작품이라 선정됐는데도 이렇게 중도 포기가 빈번하면 어떡합니까? 이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행 유현석**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물론 지원을 했으나 나머지 금액을 채우지 못해서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고요. 이것은 영상적으로만 보면 캐스팅 불발이라든지 그런 게 원인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은희 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행 유현석** 그래서 지금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려면 사실은 다년도 지원이나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조은희 위원** 그렇게 판을 바꾸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행 유현석** 예, 맞습니다.

○**조은희 위원** 그리고 판 바꾸기 전에도요, 콘진원에도 진흥원 예산 규모가 5년 사이에 50%나 늘었지요?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행 유현석** 예.

○**조은희 위원** 그런데 지원 판도 지금 바꿔야 되지만 현재 판에서도 잘못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예산을 지원하는 십의 체계, 사후 성과관리에 구멍이 많습니다.

지원 규모가 가장 큰 영상 분야, 98억 지원인데요. PPT 화면 보시면 영상 콘텐츠가 4년간 258편을 제작했는데 이 중 40%가 넘는 104편이 창고 신세에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창고 영상 제작 지원에 248억 원이나 들어갔습니다. 누구 돈이에요?

국민들 돈 아니에요?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행 유현석** 예, 맞습니다. 맞고요. 그런데……

○**조은희 위원** 그리고 제가 과거 완성작들 실제 방송 여부도 자료 달라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요청한 뒤에 부랴부랴 그것을 자료를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콘진원의 현주소를 알 수 있었습니다. 미방영 사유를 보면…… 왜 미방영됐습니까? 제가 답을 드릴 필요가 없지요. 왜 창고에 들어가고 미방영돼 있었습니까?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행 유현석** 잘 아시다시피 지금 온에어될 수 있는 그런 채널이 사실 굉장히 낮아진 게 맞고요.

○**조은희 위원** 그런데 왜 지원하고 미방영됐는지 안 됐는지 검증도 안 하고…… 그냥 국민 세금 가지고 뿌리면 답니까?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행 유현석**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제가 더 하고 나면 답하십시오.

게임도 똑같습니다. 화면 또 보시면요 최근 5년간 게임 제작지원 사업에 1013억 원이 들어갔는데 게임 출시 못 하고 지원금만 받아 가거나 폐업해서 허공에 날아간 돈이요 국민 세금이 247억 원입니다.

화면 보시면요 A업체는 22년부터 3년 연속으로……

1분 더……

지원 대상에 선정돼서 10억 5000만 원 받았는데 단 1건도 출시 안 됐고요. B업체도 3년 연속 지원 대상에 선정돼서 6억 9000만 원 받았는데 출시 건수 제로입니다. 이건 뭐지요? 지원받고 출시도 안 했는데 또 지원받고 또 지원받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9개 업체, 22개의 과제에 55억 원이 지원되고요. 90% 이상 미출시입니다. 뭐 하고 계세요? 나랏돈은 아깝지 않아요?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행 유현석**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조은희 위원** 2개 다 설명해 주십시오.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행 유현석** 이따가……

○**조은희 위원** 아니요, 다 설명해 달라고요. 영상들이랑 게임이랑 왜 그러는지.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행 유현석** 말씀하신 게 일단 여러 가지 시장 여건이 변화 돼서 어려운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방송영상 같은 경우에는 그게 현실이기 때문에 저희가 국내외 판로 개척을 위해서 마켓이라든지 행사 같은 것을 충분히, 굉장히 로드쇼 같은 걸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서 실제로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OTT 특화 제작 지원이라든지 저희가 해외의 BBC라든지 Viu 같은 그런 플랫폼하고도 연계를 해 가지고 같이 협업을 하는 등 아직 미방영되고 있는 작품들을 방영시키기 위한 노력을 좀 부단히 하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게임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완성되고 출시되기까지 최대한 5년 정도 기간이 걸리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5년 후의 통계를 보면 91% 정도는 출시가 되는 걸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거랑 궤를 같이 하는데요. 이게 굉장히 단기가 아니라 중기, 장기에 걸쳐서 제작도 돼야 되고 그게 다 온에어된다든지 출시되는 데까지 기간도

걸리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이해해 주십사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은희 위원** 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원장님이 답하시는 게 한두 해 문제가 아닌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상당히 아쉽지요.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행 유현석** 예, 알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아시는 거지요?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행 유현석** 예, 알고 있습니다.

○**조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 원주시갑의 존경하는 박정하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정하 위원** 국민의힘의 박정하입니다.

질의 전에 저작권국장님 이쪽 증언대로 나와 주시겠어요?

제가 먼저 콘진원장님한테 한번 여쭐게요.

김승수 위원님이 앞서 질의하는데 보니까 슬라이드에 역삼 분관과 관련해서 의장님 실에서 개입했다고 세 번 정도 이렇게 나오던데 감사 결과와 그다음에 다른 데 나중에 말씀 주시겠다는 건 별개로 해서, 세 번 정도 그렇게 보고가 있었던 건 맞아요?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행 유현석** 그건 확인을 좀……

○**박정하 위원** 아직 모르세요?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행 유현석**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하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원래는 사실은 음저협 관계자들이 나와야 되는데 오늘 또 불출석해서 국장님하고 같이 상의하는 거예요.

(영상자료를 보면)

음악저작권협회가 회원 수가 한 5500명에 연간 징수액이 작년 기준으로 하면 4400억 정도 맞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국장 정향미** 5만 5000명……

○**박정하 위원** 5만 5000, 죄송해요. 더 큰 문제네.

지금 음저협의 지위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문체부가 얼마나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정도인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국장 정향미** 음저협은 신탁관리단체로서 허가를 내서, 저희한테 허가를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하 위원** 허가 주신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국장 정향미** 예.

○**박정하 위원** 그런데 사실상 지금 거의 독점이고 거의 그냥 문체부의 수탁기관처럼 되어 있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국장 정향미 함저협이라는 다른 단체가 있지만 시장 점유율이 10% 미만입니다.

○박정하 위원 그건 5000명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국장 정향미 예. 거의 그래서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정하 위원 앞서 김재원 위원님이 질의하시는데 용역·자문 이런 건에 대해서 질의 주셨는데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답변 주셨어요. 언제쯤 하셨어요, 이 인지를?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국장 정향미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국회 국감 준비를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박정하 위원 너무하십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국장 정향미 그 부분은 정말 저희도……

○박정하 위원 그러면 그동안 뭐 했어요, 저작권국은?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국장 정향미 저희 사실은 업무 관련한 관리 감독을 했었고요 매년 업무 점검을 했습니다.

○박정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감 시작하면서 하셨다 이거지요? 너무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국장 정향미 죄송합니다.

○박정하 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인지하셔서…… 그러면 국감 하면서 지금 음저협과 관련해서 제가 볼 때는 아주 썩고 썩고 썩고 문드러져 버렸는데 어느 정도까지 인지하고 계세요? 김재원 위원님이 여쭤던 용역·자문 말고 또 다른 무언가가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국장 정향미 저희가 그동안 음저협 관련해서……

○박정하 위원 간단하게 말씀 주세요, 뭐뭐뭐뭐 이런 식으로만. 제가 말씀 쪽 드릴게요.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국장 정향미 방만한 경영이 일단……

○박정하 위원 방만 경영 말고 구체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국장 정향미 회의비가 과다 지급된 부분들이……

○박정하 위원 회의비 과다 지급됐어요. 좀 전에 저작권 위원장님 말씀 주셨지만 비상근이고 외부 활동들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제재할 수 없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그거와 상관없이, 위원회 급여 안 주지만 저작권협회에서 급여는 안 주지만 관련돼 있는 임원들한테 무슨 짐지어는 13개 이상 위원회에 참가하게 하고 거기서 회의 수당을 주는 형식으로 해서 5000~6000씩 연간 회의 수당 지급했어요, 사실상 월급 주는 것처럼.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국장 정향미 예.

○박정하 위원 수억 원씩 1년에 나갔어요, 회의비만.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국장 정향미 예.

○박정하 위원 최근에 읍저협의 아주 고위직 2명이 연루돼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건 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국장 정향미 예, 알고 있습니다.

○박정하 위원 연유는 뭐냐 하면 음악저작권협회가 어쨌든 자기들이 저작권료를 지급하는 거니까 밖에 이 고위 임원 두 사람이 특정 회사를 만들어 놓고 그 회사에 저작권료

가 가게끔 하고 난 다음에 한 8억을 편취했다는 의혹이에요. 이 건이 작년 말, 올 초부터 내부 감사를 통해서도 지적이 됐는데 은폐를 해요. 은폐 주요 원인은 뭐냐하면 2003년도 감사규정 개정하면서 감사 업무를 회장과 협의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감사도 그냥 회장이 알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

올 9월 회의록을 보니까 박강영 감사는 ‘비정상적인 정황이 있었고 내부 공모 가능성 있다’. 그리고 또 다른 김정욱 이사는 ‘협회장 또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라는 회의를 합니다.

두 번째는, 방만한 운영 규정 말씀 주셨으니까 냅둘게요.

그 안에 보면 또 어떤 일이 있느냐면 법인카드, 자기개발비라고 하면서 2003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이건 냅둘게요.

회장님 품위유지비라고 하면서 미용비, 심지어는 넥타이 세탁 비용 2만 5000원까지도 집행이 됩니다. 알고 계셨어요?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국장 정향미 세세한 부분들에 대해서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박정하 위원 세세한 부분이 더 기가 막혀요. 옷 사 입었지요. 미용실 갔지요. 넥타이 세탁까지 했어요. 거기다 안마시술소도 있고요 피부 미용실도 있어요. 언제 하루는 주류 판매점에서 이를 동안 1200만 원 거래를 해요. 또 언제 하루는 골프장에서 세 번을 연속 결제를 해요. 운동비, 밥 먹고 또 뭐 한 거겠지요, 한 300만 원 정도. 이런 거를 파악을 못하고 계셨다는 게 말이 돼요?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국장 정향미 저희가 일부는 파악을……

○박정하 위원 또 하나 할게요. 제가 회장 얘기했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하면 회원 수가 5만 5000인데 회장을 뽑는 거는 정회원만 또 자격증을 줘요. 그 정회원 규모가 얼마나 돼요?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국장 정향미 1.7%밖에 안 됩니다.

○박정하 위원 1.7%, 한 900명?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국장 정향미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계속해서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박정하 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작년에 체육회장 선출하는 데 문제가 됐던 것처럼 특정 선거인단 풀을 만들어 놓고 그 풀을 더 확대되지 않게 내가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됐든 간에 그냥 회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한 집단의 세력이, 평생 유지하면서.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국장 정향미 예.

○박정하 위원 이거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봐요.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국장 정향미 예, 맞습니다.

○박정하 위원 그런데 이거 왜 여태 안 돼요?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국장 정향미 저희가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만……

○박정하 위원 언제부터?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국장 정향미 18년부터 내렸습니다.

○박정하 위원 18년부터 계속 시정명령 내렸어요?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국장 정향미 예.

○박정하 위원 아니, 그런데 국장님은 좀 전에 아셨다면서요?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국장 정향미 제가 좀 전에 알았다라는 부분들은 자문비에 대한, 특정인에 대한 자문비가 나간 부분들은 이번 국감 때 알고 있었던 거고요. 기타 이런 방만 경영의 문제라든지 비위사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다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정하 위원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 전혀 시정이 안 돼요?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국장 정향미 그리고 시정명령도 내렸고요.

○박정하 위원 왜 안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국장 정향미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정하 위원 조금 이따 말씀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국장 정향미 예.

○박정하 위원 그러니까 말씀이 마무리 안 돼도 좋아요. 이따 제가 5분 질의에 더 할 겁니다. 더 기가 막힌 일들이 있으니까 더 할 건데 우선 지금까지 국장님이 판단해 보시기에 어떤 게 필요한지 말씀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국장 정향미 강력한 제동장치가 필요합니다. 사실 이 부분들이 안 되고 있었던 것 중에 가장 큰 문제는 음저협이 창작자들로 구성된 민간 단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음저협에 허가를 내렸을 때에는 허가 취지대로, 즉 회원인 창작자들의 재산권을 잘 관리하라는 취지대로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독을 해 왔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만 자신들의 방만한 경영이 내부의 경영 문제이지 업무에 대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법상에 업무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릴 수는 있어도 조직 운영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없다, 왜 과도하게 창작자 단체의 운영까지 정부가 간섭하느냐 이렇게 프레임을 써워서 저희들을 압박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어 가야 되는 것이 저희가 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창작자 단체의 자율적인 운영을 정부 입맛대로 맞춰서 법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창작자들에게, 창작자들의 재산권을 맡고 있는 대리자들이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제대로 집행도 안 하고 자기의 돈처럼 물 쓰듯이 쓰고 있는 그런 잘못된 관행들이나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책임을 묻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을 하려는 것입니다.

○박정하 위원 오후에 계속 또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국장 정향미 예.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광명시갑의 존경하는 임오경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유현석 부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케데현’의 열풍, 한류는 얼마나 지속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행 유현석 그건 예측하기는 쉽지는 않으나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직면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오경 위원** 제가 차트 하나 보여 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면)

이것은 작년 말 넷플릭스 비영어권 드라마 인기 차트인데 그간 세네 개씩은 꼬박꼬박 있던 한국 드라마들이 아예 자취를 감춰 버렸어요. 그래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행 유현석** 예.

○**임오경 위원** 일본 애니메이션이 3개, 태국 드라마도 있는데 한국 드라마가 없어졌습니다. 같은 시기 비영어권 영화 차트에서도 한국 영화가 사라져 한국 콘텐츠가 전부 사라지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작년 넷플릭스는 태국의 콘텐츠에 연 600억씩 4년간 2400억을 투자하기로 결정도 했습니다. 그러면 부원장님,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행 유현석**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다……

○**임오경 위원** 그렇지요. 언제까지 K-콘텐츠가 만능이 아니라는 걸 보여 주는 거지요?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행 유현석** 예.

○**임오경 위원** 그렇습니다. 넷플릭스의 자본력이 없으면 한류도 중단돼야 합니까?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행 유현석** 현실이 어렵기는 하지만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임오경 위원** ‘케데헌’은 고정관념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케데헌’을 통해서 외국인으로 구성된 아이돌 그룹, 영어로 쓰인 노래가 K-콘텐츠라는 이름을 달고 세계 시장에 나오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K-콘텐츠는 메이드 인 코리아만이 아닌 메이드 위드의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것 또한 기획·제작·유통 과정에서 우리가 IP를 확보하되 다양한 글로벌 파트너십도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행 유현석**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임오경 위원** 글로벌 비즈니스 부분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있으십니까?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행 유현석** 저희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우수한 IP를 확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장르별로 다양한 트랙을 지원사업 중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그렇다면 부원장님, ‘케데헌’이 우리 아이디어였다면 국내에서 제작될 수 있었을까요?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행 유현석** 투자 여건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7년 동안 제작을 하면서도 외국에서 투자를 했고 그것 또한 넷플릭스로 전체 IP를 넘긴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임오경 위원** ‘케데헌’이 사실 처음에는 가정용 애니메이션으로 부적합하다고 평가를 받은 거 알고 계세요?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행 유현석** 그거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케데헌’은 사실 처음에는 가족용 애니메이션으로 부적합하다고 평가를 받았지만 블록버스터에 집중하기보다 다양한 틈새 콘텐츠 제작을 중시하는 넷플릭스의 롱테일 전략에 의한 투자로 제작하여 대히트를 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원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우리 콘텐츠 시장에도 롱테일 전략이 있습니까?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행 유현석 제가 확인하고……

○임오경 위원 우리 대한민국 콘텐츠 시장에 롱테일 전략이 있습니까?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행 유현석 제가 아는 롱테일은 그러니까 선도하는 기업이 아니라 후발 주자들이 80% 정도를 차지하게 길게 늘어선 거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요. 그런 차원에서는 저희 콘진원이 중소라든지 벤처기업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양산될 수 있게 육성하는 것도 저는 그게 롱테일이 맞다면 잘 진행하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입니다.

○임오경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나라 투자금 회수 가능성이 높은 단발적 히트작 위주로 투자 및 지원이 집중되고 유명 배우 몇 명으로 의지하고 있는 취약한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개선할 콘텐츠의 대책이 현재 마련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상원 국장님, K-컬쳐 300조 원 시장을 달성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K-콘텐츠의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 정상원 아무래도 저희 콘텐츠의 저변 확대를 하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소 콘텐츠 제작사에 대한 지원 그리고 수출 다변화, 시장을 다변화하는 전략 이런 것들이 매출 300조 원을 달성하는 데 중요한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제가 콘텐츠 시장에 롱테일 전략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바로 콘텐츠의 지속가능성의 확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야지 우리 K-콘텐츠 300조 원 시장을 달성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은 단발적으로, 지금 우리가 언제 이 K-콘텐츠 한류가 끝날지 모릅니다. 막을 내릴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되는 데 중점을 좀 줘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징어게임2’의 총 제작비 1000억 원 그리고 ‘폭싹 속았수다’는 제작비가 400원이 들었어요. 그런데 넷플릭스의 제작비 급상승도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제작한 ‘기묘한 이야기’는 회당 제작비가 400원이, 회당 제작비예요, 400 원이고요.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등 넷플릭스 오리지널 제작비 인상폭이 모두 상승하고 있어요.

그런데 선진국들의 대응 방식은 우리나라들하고 조금 다르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데 선진국들은, 영국은 넷플릭스 등 글로벌 스트리밍 플랫폼의 영국 내 구독 수입과 매출의 5%를 세금으로 부과를 하고 있는 법제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국장님?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 정상원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프랑스는 자국 내 매출의 25%를 유럽 콘텐츠 제작에 투자하고 이 중 21.3%를 프랑스 콘텐츠에 할당하도록 법제화했습니다.

이것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 정상원 예, 알고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캐나다는 온라인 스트리밍 법으로 EU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지침으로 콘텐츠 투자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문화도 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자국의 IP가 넷플릭스 배만 불리는 것을 막고 제작·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우리는 어떤 대응을 하고 있지요, 대한민국은?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 정상원** 현재 영화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입장권 부과금을 통해서 수익을 창·제작을 지원하는 데 환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OTT에 대해서는 아직 부과금을 부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계획 만드셔야 되겠지요?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 정상원**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저희 K-컬처가 전 세계에서 이렇게 핫하게, 한류가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데 너무 뒤쳐져서야 되겠습니까? 서둘러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 정상원** 예, 알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그래서 콘진원과 함께 계획서 만들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준 위원장님께 질의할게요.

10월 31일부터 케데현이 국내 극장에서 상영된다고 합니다.

알고 계신가요?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예, 들었습니다.

○**임오경 위원** 케데현이 영화로 분류해도 되는 것입니까?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기준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임오경 위원** 계속해서 그 자리에 앉아서 1년 내내 그 말씀만 하셨어요. 기준이 OTT와 영화 기준이……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영비법에 의하면 영화로 보기 조금 힘듭니다.

○**임오경 위원** 주먹구구식 결정으로 콘텐츠 제작 현장을 따라가지 못해서 여러 부작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행 영비법에는 영화계 표준계약서도 쓰게 되어 있고 영화계의 표준보수지침도 있습니다.

정상원 국장님, 잘 들어 주셔야 합니다.

OTT 콘텐츠를 찍을 때도 표준계약서 같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OTT의 자체등급분류제도도 왜 도입됐습니까? 왜 자체등급으로 분류됐어요? 영화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 사전등급분류를 받고 있는 영화의 경우 얼마의 수수료를 내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국내 영화는 10분당 7만 원이고요, 해외 영화는 10분당 12만 원을 내고 있어요. 그런데 왜 OTT는 사전등급분류업자로 지정받을 때도 심사 수수료도 없고 작품 재심의 시에도 무료로 심사를 받는 것입니까? 이것 명백한 OTT의 영화 역차별 아닙니까? 이렇기 때문에 지금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가 절감한 금액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얼마인 줄 아세요?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 정상원 30억 원 정도로, 30억 원 중에 그 반절에 해당하는 15억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그렇지요? 전체 예산은 32억 원이었는데 넷플릭스하고 디즈니플러스가 절감 혜택을 받은 게 그 반절입니다. 16억 이상을 받아 왔습니다. 왜 우리가 모든 것을 지금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이런 데다 줘야 됩니까? 왜 자체등급을 그런 식으로 분류 했냐고요. 그러면 영화도 풀어 주라는 거예요, 형평성에 맞게. 언제까지 이렇게 가실 거냐고요.

1년 내내 한상준 위원장님은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연구해서 용역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 1년 동안, 작년 국감 때도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차별하냐고.

코로나 시국에 OTT가 갑작스럽게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몇 년 지났어요, 지금? 2020년에 코로나 와서 2023년에 다 풀렸습니다. 해지됐어요. 그런데도 지금 답을 안 내놓으세요. 영화산업이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계획도 안 내놓으세요.

있을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10분당 7만 원, 해외 영화는 10분당 12만 원이에요, 영화는. OTT는 제로입니다. 오히려 넷플릭스하고 디즈니플러스에 절감해 주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발 좀 이렇게 심각한 것을 인지하시고 계획서를 가져오라고요. 대안을 가져오시라고요, 대안을, 그 자리에 앉아 계시면.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예, 그리고 가장 시급한 문제가 영상물 미디어 환경 변화 시대에 영상물 전반에 대한 통합 규율체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점 조금 부탁드립니다.

○임오경 위원 벌써 1년, 2년 넘었습니다, 위원장님. 2년 넘었어요.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2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교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일반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수 위원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예.

○김승수 위원 앞서 오전 질의에서 국회의장실의 콘진원 관련해서 제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존경하는 박정하 간사께서 유현석 콘진원 원장직무대행한테 의장실에 세 번 정도 보고한 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세 번 정도 보고가 있었던 것이 맞느냐 이

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제가 콘진원에서 10월 1일자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여기 자료를 받았어요. 여기에 콘진원 직원들이 누가 찾아갔는지 일시까지 정확하게 지금 두 번 방문한 것이 나오고 그 이후에 추가로 문체부 또 관계자까지 불러서 세 번을 의장실에서 관련해서 콘진원과 문체부 관계자를 불러서 보고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콘진원에서 자료를 제출했는데 직무대행이 이 정도 국회의장까지 관계된 자료가 나가는 데 보고를 못 받았다는 것 자체가 이것은 명백하게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다시 한번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못 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할 경우에는 우리 국감 관련 법령에 따라 가지고 위증으로 고발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김교홍 그런데 그게 의장이 관계된 거예요?

○김승수 위원 의장실에 직접 가서 보고를 했어요.

○위원장 김교홍 아니, 그러니까 의장실의 누구한테 한 거예요?

○김승수 위원 의장실의 보고자 받은 것은 비서관하고 그렇게……

○위원장 김교홍 의장실 직원하고 얘기지요?

○김승수 위원 면회자까지 다 나옵니다.

○위원장 김교홍 의장이 직접 관계된 건 아니지요?

○김승수 위원 그런데 의장이 말씀 없이 밑의 비서진들이 자기가 알아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위원장 김교홍 의장비서실에서 개인적인 관계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김승수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떤 이야기가 있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계속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감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감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위원장 김교홍 그게 관리회사의 선정 문제입니까?

○김승수 위원 관리회사의 선정도 문제지만 관리회사의 비위에 대해서 명백히 아까 내가 지적한 것처럼 그건 배임행위이고 업무방해죄로 고소·고발조치 해서 형사 책임과 민사상 배상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데 또 그리고 고발하겠다고 해 놓고 나서 고발 안 하고 미적거리고 있다는 거고요.

앞서 그 위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전 과정에 용역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느닷없이 누구에 의해서 제안이 되고 결정이 됐는지 그런 과정에 대한 자료도 제출이 안 되고 있어서 사실관계 확인이 안 되는데 이전지가 결정이 된 겁니다. 용역은 용역대로 하고 이전지는 그전에 결정이 되고, 이것은 행정적으로 봤을 때도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관련되는 자료들이 제대로 그냥 제출되거나 보고가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교홍 원장님 직무대행이 나중에 잘 정리를 해 주세요.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행 유현석 예, 그것은 추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아까 말씀 주신 자료는 저는 정말로 보고받지 못한 자료임에……

○위원장 김교홍 몰랐겠지, 그거야.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행 유현석** 틀림이 없습니다.

○**김승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자료를, 국회의장까지 관계된 자료를 위의 기관장한테 보고도 없이 그냥 쑥쑥 그렇게 제출을 하는 겁니까, 그러면? 그 정도로 지금 콘진원은 조직이 연루됐어요?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행 유현석** 밑의 본부장까지 보고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저까지 보고된 건 없는 걸로……

○**위원장 김교홍** 아까 국회의장이 관계됐다고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 그건.

○**김승수 위원** 의장실에 세 번이나 가서 보고하는 게……

○**위원장 김교홍** 의장실의 직원하고의 관계일 수도 있고 그런데 국회의장하고 관계됐다고 그냥 단정적으로 표현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하여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채택한 증인은 2명이었으나 추은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장은 예정된 행사 일정을 이유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였고 황선철 전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무총장은 9월 18일 부로 사무총장 직위에서 해제되었으며 협회 관련 사건에 대한 본인 포함 수사가 진행 중임을 이유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여 증인 2명이 모두 불출석 하였습니다.

참고인으로는 김덕영 영화감독이 출석하셨고 우리 위원회가 참고인으로 채택한 김세웅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경영지원국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일반증인 및 참고인의 명단과 출석 현황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위원회 직원으로 하여금 오늘 출석한 참고인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으므로 간단한 본인 확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이름을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라고 대답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승수 위원께서 신청하신 김덕영 참고인 나오셨습니까?

○**참고인 김덕영** 예.

○**위원장 김교홍** 앉아 주십시오.

이상으로 참고인의 출결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참고인 신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신 위원님의 신문을 모두 마친 후 그 밖에 신문을 희망하시는 위원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5분씩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김승수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승수 위원** 김덕영 감독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김덕영 감독님은 작년에 건국전쟁1 또 올해는 건국전쟁2를 제작하셨는데 어려운 걸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전에도 관련한 여러 논의들, 이야기들이 나왔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건국전쟁1은 다큐멘터리의 독립영화로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100만 이상 관객을 동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24년 독립영화 통계 과정에서도 뭔가 좀 해프닝이 있었다면서요. 잠깐 설명해 주시지요.

○**참고인 김덕영** 2024년도 한국 영화 결산보고서에서 건국전쟁이라는 단어를 찾을 수

가 없었습니다.

○ 김승수 위원 왜 그렇게 됐지요?

○ 참고인 김덕영 구체적인 내용은 저는 모릅니다. 직원의 실수라고 저는 얘기 들었습니다.

○ 김승수 위원 전체적으로 통계에서 독립영화 중에서는 가장 많은 관객을 동원한 게 맞지요. 그렇지요?

○ 참고인 김덕영 2024년도 117만 3000명을 기록했기 때문에 40만을 기록한 영화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지요. 압도적인 1위를 했습니다.

○ 김승수 위원 그 통계가 그렇게 나중에 수정은 됐나요, 정정은 됐나요?

○ 참고인 김덕영 나중에 영진위원장께서 사과를 하시고 수정을 했습니다.

○ 김승수 위원 건국전쟁1도 독립영화로 신청했다가 결국은 승인을 못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도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좀 설명해 주시지요.

○ 참고인 김덕영 간단히 말씀드려서, 독립영화 승인서를 발급했다가 지금 저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독립영화 불인정 통지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2장이나온 거지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심사결정번호입니다, 문서번호. 보시는 것처럼 2024-04호가 인정 통보서를 받은 것이고 2024-03호가 불인정 통보서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날짜를 보시면 불인정 통보서를 받은 날짜는 2월 16일이고 승인 인정받은 것은 2월 21일이에요. 이럴 경우에는 저희 자문변호사님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나중에 발급한 문서가 공식적인 효력을 갖는 것 아니냐?’ 그런 데 영진위에서는……

○ 김승수 위원 그래요, 아까 오전 질의에서 영진위원장께서 김덕영 감독을 만났다고 질타를 받으셨는데 그러니까 이 문제 때문에 만나신 거지요?

○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예, 종합해서 2월에 있었고 그다음에……

○ 김승수 위원 그런데 있을 수가 없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8월에 통계하는 데 누락됐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 김승수 위원 독립영화 불인정한 것, 결정이 번복된 것 말이지요.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불인정하게 된 것은 그 담당 팀에서 업무 인계를 하면서 예술영화로 인정되었는데 그것을 독립영화 인정서로 착오가 있어서 그렇게 보냈다가 당일에 잘못된 것을 알고 예술영화 인정서로 3시간 뒤에 보낸 것으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 김승수 위원 그때도 독립영화로 인정을 못 받았고 이번에 건국전쟁2도 독립영화로 인정을 못 받았는데 영진위원장님, 독립영화가 뭐니까? 개념이 뭐니까?

○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독립영화 개념은 정의하기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나올 수 있지만 저희 소위원회에서의 정의는 일반 상업영화가 포함할 수 없는 그런 범주를 다루는 영화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 김승수 위원 독립영화 인정 기준이 ‘정치적·사회적 쟁점과 인물을 깊이 있게 다룬 영화’ 또 ‘차별화된 경험을 전달하는 영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수 일반인들의 시각이나 정서와 좀 다를 수도 있다는 거지요.

이번에 건국전쟁2 독립영화 불인정 관련해서 또 영화 내용과 관련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은데 불인정한 구체적인 사유가 뭐니까?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저희 9인 소위원회에서 나온 사유에 대해서는 보도가 되었지만, 길지 않으니까 제가 빠른 속도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김승수 위원 여기 나와 있으니까 뭐 그렇게……

이게 지금 ‘현실을 곡해하고 편향되게 다수의 사람들한테 보이는 게 위험하다’ 이런 불인정 사유에 대해서 감독님은 불인정 동의를 못 하신다는 거지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참고인 김덕영 그것은 동의 못 합니다.

지금 독립영화 인정 기준에도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해요. ‘상업영화가 다루지 않는 정치적·사회적·문화적 쟁점과 인물을 깊이 있게 다룬 영화’, 1편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승만 대통령 인물의 삶을 아주 깊이 있게 다루었고요.

‘편견과 관습에 얹매이지 않은 표현으로 차별화된 경험을 관객들에게 전달하는 영화’, 그동안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영화를 언제 우리가 본 적이 있었습니까? 명백하게 차별화된 경험을 전달했고요.

‘새로운 지식을 제공하고 대안적 의제를 제기하는 영화’, 제가 이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이삼 년 동안 한국은 당연하고요 미국과 일본 등지에서 객관적 자료를 보기 위해서 정말 애를 썼습니다. 그 결과 새로운 지식을 관객들에게 제공한 영화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김승수 위원 영등위원장님, 등급매길 때……

1분만 더 주세요.

○위원장 김교홍 1분 더 드려요.

○김승수 위원 영화 등급매길 때 굉장히 사실관계를 왜곡했거나 아니면 위법 소지가 있거나 이런 것들은 제한상영판 내지는 등급 분류 자체를 안 함으로써 상영을 못하게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등급 분류할 때.

○영상물등급위원장 김병재 예.

○김승수 위원 그러니까 제한상영판 내지는 아예 등급 분류를 안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상영이 안 되도록 하는 그런 등급 분류도 있는 것 아니에요, 보면? 그런데 이 영화는 등급 분류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영상물등급위원장 김병재 예.

○김승수 위원 그렇게 등급 분류받은 것은 그런 정도의 제한을 가할 그런 소지는 없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리고 여기에, 사실은 제주4·3 유족들이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외면을 받았고 깊은 상처를 입어 왔습니까? 희생자의 대부분이 선량한 양민들이며 90% 이상 희생된 게 군경에 의해서 국가폭력에 의해서 희생된 사람들도 많다는 거지요. 이분들에 대해서는 명예 회복과 보상이 필요하다는 여기에는 동의하십니까, 감독님?

○참고인 김덕영 당연히 동의합니다.

○김승수 위원 그래서 제 이야기는 여러 위원님도 지적했고 지금 비판도 받고 있는 것처럼 독립영화이기 때문에 진짜 그런 역사의 허위사실을, 내용을 굉장히 왜곡되게 포함했다거나 진실이 아닌 가짜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영등위 등급 분류에서부터 명백히 지적을 했어야 되고 또 그런 것들이 있다면 사실 고소·고발하거나 영화 상영 정지 가처분 신청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현재 고소·고발당하거나 영화 상영 정

지 가처분 신청 받은 게 있습니까?

○ 참고인 김덕영 9월 10일 영화 개봉된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단 1건도 공식적으로 저희 영화에 대해서 문제 제기받은 적 없습니다.

○ 김승수 위원 어쨌거나 이게 같은 정치적인 영화라 하더라도 일부 좌파 인물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른 영화들은 또 독립영화로 다 승인을 받았어요. 거기에 어떻게 보면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오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이게, 지금 기준으로 보더라도 이게 굉장히 주관적인 기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칙이라도 정치적 편향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누가 보더라도 여기에 저촉되면 독립영화 인정을 못 받겠구나, 받겠구나 하는 그 등급 분류에서부터 또 독립영화 정의까지 좀 기준을 세분화시키고 투명화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감독님, 모처럼 오셨는데 마지막 하고 싶은 말씀 하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참고인 김덕영 저는 건국전쟁이 1편도 그렇고 2편도 그렇고 객관적 사실에 기초해서 진실을 탐구한 영화だ라고 자부하고요. 이 영화가 저는 역사에서 분명히 심판을 정당하게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2030세대, 젊은 세대들이 이 영화에 대해서 굉장히 열광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건국전쟁이 건전하고 건강한 건국전쟁 세대를 우리 사회에 만들어 낼 것이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자부합니다.

○ 김승수 위원 예,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교홍 다음은 참고인 신청을 하지 않았지만 신문을 희망하시는 위원님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문석 위원님.

○ 양문석 위원 저는 전형적으로 영화 망해서 할 말이 없으니까 정치적 이슈를 만들어서 뭔가 관심 끌기 하는 전형이다라고 봅니다.

스크린 수가 줄었다고 통통거리는데 하나하나 따져 봅시다. 순위가 개봉하고 계속해서 8위, 다음날 10위, 9위, 9위, 8위, 8위, 9위. 이러니까 당연히 극장 측에서는 스크린 수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극장 스크린 수의 조정은 얼마만큼 많은 관객이 들어오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건국영화1 같은 경우에는 5위, 5위, 4위, 4위, 3위, 3위. 백몇십 개 스크린 걸었을 때 그렇게 했는데 건국전쟁2는요 초반부터 거의 400개에 가까운 379에서 시작을 해 가지고 계속해서 랭킹이 떨어졌어요. 젊은 층이 열광한다고요? 좋아요. 그렇게 한번 해 봅시다. 그래서 줄었고.

두 번째는요 6일, 7일째의 스크린 수가 314개에서 195개로 떨어질 때, 314개에 2300명이 들어옵니다. 2300명이 들어오는데 상영 횟수가 421회입니다. 회당 6명이 봅니다. 어느 극장주가 상영을 한 번 할 때 회당 6명이 보는데 그 스크린을 유지해요? 왜 와 가지고 그런 택도 아닌 소리를 해요? 젊은 애들이 한 번 상영할 때 6명이 보면 열광이에요? 어

디서 할 소리 안 할 소리를 하고 그래요?

○참고인 김덕영 저도 발언해도 되나요?

○양문석 위원 그다음에 건국전쟁2, 30일 누적 관객 수가 6만 6000이에요. 건국전쟁1, 100만이에요. 20분의 1 토막이 났어요. 그때는 아무 말 안 하고 장사 잘될 때는 입 딱 다물고 열심히 했지요? 재밌었지요? 돈 많이 벌었지요?

그런데 건국2 올라오니까 30일 동안 6만 6000명이 들어왔어, 1에서는 100만 하다가. 그러니까 당연히 스크린 수 줄고 그다음에 각종 TV, OTT, IPTV, 인터넷 등 부가판권 유통 쪽에서 받을 이유가 없지요.

망하고, 거짓말하다가 망하고 역사왜곡하다가 망하고 그래서 이미 국민들한테 심판을 받았어요. 청년들한테 심판을 받았어요. 그런데 뭐? 정치적 흑막이 있고 이중 잣대다? 어디서 그런 거짓말을 하고 장사 망하고 나서 딴 데 와 가지고 화풀이를 하고 그래요? 여기 데이터에 대해서 잘못된 게 있어요?

○참고인 김덕영 건국전쟁2가 6일 되는 날……

○양문석 위원 잠깐만, 여기 데이터에 잘못된 게 있냐고.

○위원장 김교홍 발언시간 드릴게요.

○참고인 김덕영 예, 알겠습니다.

○양문석 위원 스크린 수 줄었는데 그 순간 순간에 상영 횟수……

○박정하 위원 잠깐, 양문석 위원님의 주장은 주장대로 하셔도 되는데……

○양문석 위원 아니, 잠깐만요. 청년들이 열광한다잖아요! 열광했는데 그 열광에 대해서 한 번 상영할 때 6명 보는 게 영광이야?

○박정하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주세요.

○양문석 위원 두 번째, 그다음에 랭킹이 떨어지는데 극장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스크린을 줄이는데 그게 정치적 흑막이에요?

○참고인 김덕영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하나를 지금 빠뜨리고 계십니다.

○위원장 김교홍 발언시간 드릴게요.

○양문석 위원 그것은 나중에 이야기하세요. 중요한 사실을 제가 빠뜨리든 말든 그게 당신이 이야기할 것은 아니잖아요. 왜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을?

그리고 페이스북에도 이상한 글 또 올렸잖아요. ‘오늘 31개로 무려 136개나 갑작스럽게 축소됐다’, 136개나 갑작스럽게 축소된…… 그 186개의 그날 관객 몇 명 들어왔어요? 800명 들어왔어요. 그다음에 떨어지고 나서 거의 차이가 없어요. 또 한 800명 들어와요. 스크린 수가 186개나 132개나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무슨……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 아래에서 벌어지고 문화계 불공정 행위? 자신의 작품에 대한 기본적인 반성이나 자신의 작품에 대한 평가 없이 스크린 수가 축소되었는데, 관객이 안 들어와서 극장이 스크린 수를 줄이고 상영 횟수를 줄였는데 그게 이재명 정부 아래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화계 불공정 행위? 어디서 이런 거짓말을 해요? 그리고 여기 와 가지고 뭐가 잘못됐다고 큰소리 빵빵 쳐? 이야기해 보세요.

○참고인 김덕영 얘기해도 됩니까?

○양문석 위원 예.

○참고인 김덕영 지금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하나 놓치고 계신데요. 저희가 6일째 되는

날 7위 정도 올라갔습니다, 랭킹. 그리고……

○ 양문석 위원 예헤이, 8위라니까.

○ 참고인 김덕영 아니, 그러니까 7위, 8위 왔다 갔다 했습니다, 5일, 6일이. 바로 그날 전국에 있는 모든 영화 상영관에서 6시 이후에 모든 상영관이 다 사라졌습니다. 모든 영화관에서 6시 이후에 상영관이 사라졌어요. 제가 객관적으로 가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 오전 시간, 오후 시간과……

○ 양문석 위원 어디서 조사를 했는데요, 어디서?

○ 참고인 김덕영 CGV에 가서 영화 조사했습니다.

○ 양문석 위원 예?

○ 참고인 김덕영 CGV에 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 양문석 위원 자, 영진위……

○ 참고인 김덕영 아니, 중요한 말씀인데……

○ 양문석 위원 잠깐만요, 영진위 통계에……

○ 참고인 김덕영 아니, 오전 시간과 오후 시간의 관객 수와……

○ 위원장 김교홍 참고인!

○ 참고인 김덕영 저녁 6시 이후의 관객 수가 어떻게 똑같습니까?

○ 이기현 위원 위원장님 퇴장시켜 주세요. 뭐하는 겁니까, 지금?

○ 조계원 위원 조용히 하세요!

○ 위원장 김교홍 참고인!

○ 참고인 김덕영 10배 이상이 차이가 납니다.

○ 이기현 위원 무슨 소리야, 지금?

○ 조계원 위원 뭐하고 있어요, 지금?

○ 이기현 위원 당신 지금 싸우자는 거야?

○ 위원장 김교홍 참고인 잠깐 앉아 보세요. 잠깐 앉아 봐요.

○ 참고인 김덕영 아니, 그렇게 중요한 사실을 갖다가 왜곡하시는 데 어떻게 그냥 듣고 있습니까?

○ 조계원 위원 발언 기회 이따가 준다잖아!

○ 위원장 김교홍 참고인, 잠깐 앉아 봐요.

○ 참고인 김덕영 저한테 거짓말쟁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 이기현 위원 거짓말했잖아!

○ 위원장 김교홍 참고인, 여기가 어딘데 그렇게 소리 지르고 그래요?

○ 참고인 김덕영 저한테 거짓말쟁이라고……

○ 위원장 김교홍 아니, 이 논리도 있고 저 논리도 있는 건데……

○ 참고인 김덕영 그러면 제 마지막 논리도 들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조계원 위원 반박할 기회 준다고 그랬잖아요.

○ 위원장 김교홍 아니, 듣고 있는데 소리 질렀잖아요, 듣고 있는데.

○ 참고인 김덕영 소리는 누가 먼저 질렀습니까, 이 공간에서?

○ 조계원 위원 위원이 발언하는데 발언을 끊고 그래!

○ 양문석 위원 잠깐, 제가 할게요.

- 위원장 김교홍 듣고 있는데 소리 질렀는데 아무리 참고인이라도 그런 식으로 국회를 모독하면 안 되지요.
- 참고인 김덕영 아니, 저를 거짓말쟁이라고 모욕한 분이 누구입니까?
- 양문석 위원 방금도 저거도 거짓말입니다.
- 위원장 김교홍 그래서 항변할 수 있는 시간을 제가 드렸잖아요. 그러면 그때 말씀하시면 되지.
- 참고인 김덕영 6시 이후에 상영관이 다 사라졌다는 것은 말씀 못 드렸습니다, 아까.
- 위원장 김교홍 예?
- 참고인 김덕영 6시 이후에……
- 위원장 김교홍 아니, 그러니까 본인 얘기를 하시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6시가 됐든 7시가 됐든.
- 참고인 김덕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6시 이후에 상영관이 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십니까?
- 조계원 위원 다 듣고 얘기하라고요.
- 위원장 김교홍 그리고 판단은 국민들이 하는 거예요.
- 참고인 김덕영 맞습니다.
- 위원장 김교홍 그런데 왜 소리를 지르냐고, 국회에 와서 참고인이.
- 참고인 김덕영 제가 먼저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 박정하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양문석 위원 위원장님, 그 수치도 제가 명확하게 드릴게요.
- 위원장 김교홍 아니, 잠깐만요.
- 조은희 위원 위원장님, 양문석 위원 저렇게 하시게 놔두시겠습니까?
- 위원장 김교홍 잠깐만요! 뭐 이렇게 말들이 많아요?
 참고인, 위원이 소리 지른다고 같이 따라 소리 질러요?
- 참고인 김덕영 아니, 이 공간은 국민을 위한 공간 아닙니까?
- 위원장 김교홍 국민을 대신해서 질의한 거예요.
- 참고인 김덕영 저는 국민입니다.
- 위원장 김교홍 그건 국민 개인이지.
- 참고인 김덕영 아니, 국민을 대신하는 것과 국민이랑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위원장 김교홍 국민을 대신해 헌법기관이 질의한 거예요. 헌법기관이 질의했어요. 그러면 본인하고 의사가 다르면 본인 입장을 내가 설명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설명하면 되지 왜 소리를 지르냐고.
- 참고인 김덕영 6시 이후에 상영관 시간이……
- 위원장 김교홍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 참고인 김덕영 그 말씀을 제가 못 드렸지 않습니까, 중간에 제 말을 갖다가 발언을 막았기 때문에. 6시 이후의 상영관이 영화를 만들고 감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 위원장 김교홍 아니, 뒤에 시간을 드렸으면 말씀하시면 되지요.
- 양문석 위원 저 이야기 좀 하면 안 될까요?

○ 위원장 김교홍 아니, 거기는 말씀하셨으니까 박정하 간사님이, 의사진행발언입니다?

○ 박정하 위원 예,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님이 중간에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주에서 정무부지사로 근무를 해서 제주에 계신 분들의 아픔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영화에 대해서 평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양문석 위원님의 주장도 있고 참석하신 증인의 주장도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모두 다 보고 국민이 판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진행이 되는 과정에 증인이 얘기한 것처럼 중간에 양 위원님 본뜻은 아니겠지만 거짓말쟁이라고 규정을 하고 답을 강요하고 하는 등의 질의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양문석 위원님 주장하시는 것은 그 주장대로 충분히 저는 보장해 드리고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또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증인의 의견도 저희 상임위에서 충분히 듣고 그것은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게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증인이 답변하는 과정에……

○ 위원장 김교홍 증인이 아니고 참고인.

○ 박정하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나와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양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김교홍 그렇지요. 그러니까 여기에 참고인이 오셔서 발언을 하는데 서로의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국민이 판단하는 겁니다.

양문석 위원님.

○ 양문석 위원 제가 왜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요 본인이……

○ 위원장 김교홍 의사진행발언하시는 거예요?

○ 양문석 위원 예, 본인이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상영관이 쪽 없어졌더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요 영진위 통합전산망입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게 14일, 15일, 7위 해 본 적 없고요. 8등, 8등, 9등 했는데요. 5일차, 6일차, 7일차 그때 상영 횟수가 419회, 425회, 421회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본인은 자기가 개인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쪽 없어졌더라, 상영 안 하더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거짓말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 참고인 김덕영 그거 아닙니다.

○ 박정하 위원 그걸 저한테 설명하실 건 아니고요.

○ 양문석 위원 저런 식으로 지금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이것도……

영진위원장, 어느 정부에서 임명됐어요?

○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저는……

○ 양문석 위원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됐지요?

○ 위원장 김교홍 아니아니, 의사진행발언은 저한테 해야 돼요, 영진위원장한테 하는 게 아니라.

○ 양문석 위원 아니,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영진위 위원장이 관리하는 통합전산망에 상영 횟수가 419회, 425회, 421회라고 하는 엄연한 데이터가 있고 당시 점유율도 전국 스크린 점유율이 4.3%, 5%, 4.9%라는 스크린 점유율이 어느 것보다 높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위원장 김교홍 제가 대신해서……

○양문석 위원 이야기하는데 저보고 지금 잘못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자신을 육박지른다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경고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교홍 저한테 얘기하는 거니까 제가 참고인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전국전쟁2가 잘 안 된 게 이재명 정부 탓입니까?

○참고인 김덕영 저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교홍 그런데 그것은 정말 판단을 잘하셔야 돼요. 그리고 참고인이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돼요.

○참고인 김덕영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아니, 여기 영진위 위원장도 나와 계시고 콘텐츠진흥원 원장도 계신데 내용이 국민들에 맞지 않으면 영화를 안 보러 가는 것 아닙니까? 왜 그게 이재명 정부의 탓입니까? 자본주의 상황에서 그게 누구 탓으로 돌릴 수 있다라는 것은 나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인 김덕영 제가 한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김교홍 그렇게 알고는 계세요.

또 조은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조은희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회의원이 헌법기관으로서 국민을 대표한다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특권이라고 그 특권을 저희들은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권에도 절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참고인이 국민 앞에서 국회에 나와 있는데 죄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짓 말한다는 것에 대해서 본인 나름대로 해명하는 것을 존경하는 양문석 위원님께서 일어서서 육박지르듯이, 죄인 다루듯이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 국회의원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양문석 위원님이 지난번에도 어제도 또 그제도 계속 중인, 참고인들한테 죄인 취급하면서 육박지르고 답을 강요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전부 자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목소리의 톤도 다른 국회의원들 좀 생각해 주시고…… 그래서 국회 상임위가, 국정감사가 원활하게 돌아가게 그렇게 하도록 위원장님께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예, 알겠습니다.

양문석 위원님은 이제 그만 말씀하셔도 돼요. 양문석 위원님이 아까 거짓말이라고 한 것은 본인이 갖고 있는 데이터, 영진위에서 받은 데이터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걸에 대한 거짓말이라고 분명히 조금 전에 양문석 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양문석 위원이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제가 누구를 두둔하고 이런 게 아니라 언성이 좀 높습니다. 그런 것은 물론 양문석 위원도 자체를 해야겠지만 그게 여기에서 이 본질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이제 더 이상 질의는 그만하시지요.

○임오경 위원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김교홍 의사진행발언도 이제 그만큼 했으면……

○임오경 위원 이거는 꼭……

○위원장 김교홍 예, 임오경 간사.

○임오경 위원 위원장님, 개인의 생각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을 근거해서. 하지만 양문석 위원님께서 언성을 높인 것에 있어서는 저도 유감을 표명합니다.

하지만 양문석 위원님께서 영진위, 문체위 데이터 지표를 가지고 재설명을 해 주는 과정이었고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참고인께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서 피해를 봤다라고 한 말씀에 있어서…… 문체부 국장이 지금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영진위원장의 답변을 들은 후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당사자, 참고인이 피해를 본 것이 아니라면 참고인의 사과가 저는 공식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체부 국장과 영진위원장의 답변을 들은 후에 위원장님께서 판단해서 지금 참고인에게 저는 사과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교홍 영진위원장님, 아까 양문석 위원께서 얘기한 데이터는 맞지요?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저희 통합전산망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아니, 데이터가 맞지요?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거기에서 나오는 통계입니다.

○위원장 김교홍 데이터가 맞지요?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그리고 하나의 영화가 그 시대적 상황에, 어떤 정부의 탓 때문에 영화 상영이 성공을 하고 안 하고 그렇게 됩니까, 역대 우리 과거 역사를 보면? 그런 적이 있습니까? 어느 정부가 들어왔기 때문에 영화가 더 상영이 안 됐고 실패했고 어느 정부가 들어오면 성공하고 이런 게 있느냐고요.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해석의 차원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교홍 아니, 해석의 차원이 아니라 한 영화가 어느 정부가, A라는 정부가 들어왔기 때문에 실패했다 이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가능한 추론이 될 수 있나, 제가 여쭤보는 건 그거예요. 아니, 자본주의 시장에서 그 영화가 재미있고 느낌이 다르고 뭔가 남는 게 있다라면 사람들이 가지 말라 해도 그 영화를 보러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보통의 영화의 경우라면, 일반적인 경우라면 그렇게 영향을 받는 것은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교홍 그런데 이것은 왜 달라요?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위원장 김교홍 아니, 영진위원장님 해석이 좀 이상하네. 보통의 영화와 특별한 영화가 다릅니까?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아니,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볼 때에……

○위원장 김교홍 아니, 제 얘기는 자본주의 국가에서, 자본주의 시장에서 그 영화가 좋다고 판단 내리고 영화가 재밌으면 가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안 가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어떤 A라는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그 영화가 실패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역대 그런 적이 있었느냐고요.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드문 일이라고 생각은……

○조계원 위원 정부 마음대로 영화관을 내릴 수 있어요?

- 위원장 김교홍 웃지 마시고, 드문 일 아닙니까? 드문 일이 아니라 그런 일이 없는 거지. 영화가 잘 안 된 것을……
-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예, 사례를 금방 생각하기는 조금……
- 위원장 김교홍 정부 탓으로 돌리는 그 자세는 좋지 않으니까 참고인은 여기에 대해서는 사과를 해 주십시오.
- 참고인 김덕영 지하철공사에 멀쩡하게 올라와 있던 광고가 철거 명령을 받았습니다, 영화 개봉하기 전에.
- 위원장 김교홍 아니아니, 사과를 하시라고요. 이게……
- 참고인 김덕영 아니, 이런 객관적 사실들이 존재하는데 어떻게 제가 사과를 합니까?
- 위원장 김교홍 아니, 광고하고 영화가 같습니까?
- 참고인 김덕영 아니, 영화를 홍보하고 광고에……
- 위원장 김교홍 광고하고 영화가 같아요?
- 참고인 김덕영 영화가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지기 위해서는 광고를 해야 되는 거지요.
- 위원장 김교홍 광고는 보여지는 것이고 영화는 자기 돈을 내고 가서 보는 건데……
- 참고인 김덕영 아니, 그럼 광고를 철거해도 되는 겁니까, 위원장님?
- 위원장 김교홍 아니, 광고하고…… 왜 광고 얘기가 여기서 나와요?
- 참고인 김덕영 아니, 저희 영화 얘기예요, 지금 건국전쟁2. 저희 영화가 개봉 전에요 지하철공사에서 멀쩡하게 광고되고 있던 저희 광고판이 철거 명령을 받았습니다.
- 위원장 김교홍 왜요? 누가 철거를 시켰어요?
- 참고인 김덕영 한국철도공사에서요.
- 위원장 김교홍 그건 철도공사의 얘기지, 철도공사에서.
- 참고인 김덕영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영화 외적인 힘이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김교홍 아니, 철도공사는 철도공사 임직원이 있고 노조가 있잖아요. 거기서 결정 내려서 한 걸 텐데……
- 참고인 김덕영 어쨌든 건국전쟁2를……
- 위원장 김교홍 왜 그게 정부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요? 참 답답하시네.
- 참고인 김덕영 국가기관이지 않습니까?
- 위원장 김교홍 아니, 국가기관이, 거기 노조도 있고 임직원이 있고 다 있잖아요, 그게 국가기관이기는 하지만. 공공기관이지, 국가기관이 아니라 공공기관.
- 참고인 김덕영 저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추정이라고.
- 위원장 김교홍 그런데 그게 그러면 정부에서 오더를 내려서……
- 참고인 김덕영 갑질이라고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 위원장 김교홍 아니, 잠깐만, 정부에서 오더 내려서 그러면 광고판을 내리라고 한 겁니까?
- 참고인 김덕영 저는 조사한 게 없기 때문에 발언할 게……
- 위원장 김교홍 아니, 조사한 게 없고 확실하지 않으면 이런 데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 조계원 위원 함부로 발언하지 말아요!

○ 참고인 김덕영 영화 광고판이 철거 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사실이라는 겁니다.

○ 위원장 김교홍 아니, 그걸 왜 현 정부의 탓으로 돌리냐고.

○ 양문석 위원 그걸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도 돼?

○ 임오경 위원 그건 거기 가서 따지고. 정상원 국장하고……

○ 참고인 김덕영 아니, 지하철 광고판이 갑자기 철거 명령을 받았는데 그게 어떻게 멀쩡한 행위라고 생각합니까?

○ 임오경 위원 이재명 정부에서 지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만 물어보면 됩니다. 문체부 정상원 국장하고 영진위원장……

○ 위원장 김교홍 잠깐만요, 이거 담당 국장이 누구지요, 문체부에?

○ 임오경 위원 이재명 정부 지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만 위원장님한테 답변하면 됩니다.

○ 위원장 김교홍 지금 철도공사나……

○ 임오경 위원 영진위원장님도 마찬가지고요. 지시가 있었습니까?

○ 위원장 김교홍 잠깐만요, 잠깐만. 이거 큰 저기가 아닌데 왜……

○ 임오경 위원 그러면 그거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라고요.

○ 위원장 김교홍 국장님, 영화 광고에 대한 광고판이, 정부에서 그런 지시를 했습니까, 문체부에서 내리라고?

○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장 정상원 그런 일 전혀 없습니다.

○ 위원장 김교홍 그렇지요?

○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장 정상원 예.

○ 위원장 김교홍 아니, 정부에서 무슨 지시를 합니까.

참고인, 그런 본인이 느끼는 감정만 가지고 여기서 발언하면 큰일 납니다.

○ 참고인 김덕영 감정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 위원장 김교홍 아니, 정부에서 지시했습니까?

○ 참고인 김덕영 제가 지금 추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교홍 추정하는 걸 왜 여기서 얘기해요? 확실한 팩트를 가지고 얘기해야지.

○ 참고인 김덕영 여기 계신 분들 다 감정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 위원장 김교홍 아니, 우리는 사실,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데이터.

○ 참고인 김덕영 저도 기본적으로 영진위 통합전산망의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김교홍 지금 데이터를 갖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 참고인 김덕영 6시 이후에 상영관이 다 사라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 임오경 위원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정부에서 그런 지시 없었다고 하면 사과를 하셔야지요!

○ 위원장 김교홍 아니, 상영관에서 영화가 내린 것은 영화가 장사가 안 되니까 내린 거지 왜 그걸 여기 와서 얘기합니까!

○ 참고인 김덕영 랭킹 8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7, 8위를 오고 가던 영화고요.

○위원장 김교홍 참, 참고인이……

○참고인 김덕영 대한민국의 모든 극장들이 6시 이후에 상영관이 다 사라지고 동시에 내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자, 정리하세요. 정리해 주세요.

○임오경 위원 억울한 건 알겠는데 일단 이재명 정부에게 그렇게 돌린 것은 사과하세요!

○참고인 김덕영 이것을 상식적인 언어로 담합이라고 얘기합니다.

○위원장 김교홍 참고인, 참고인 발언을 중지해 주십시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자리로 돌아가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양문석 위원 영진위 위원장님 발언에 대해서 제가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배현진 위원 그만하시지요. 그만 싸우시지요.

○위원장 김교홍 그만하시지요. 아니아니, 그거는 본인 질의 때 하세요.

○양문석 위원 잠깐 있어 보세요.

○위원장 김교홍 아니, 양문석 위원님, 본인 질의 때……

○양문석 위원 여러분들한테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 아니잖아요! 위원장한테 물어보는 거잖아요!

○배현진 위원 왜 자꾸 목소리를 키우세요.

○조은희 위원 왜 그러세요? 그만하세요.

○위원장 김교홍 양문석 위원님, 이 정도 선에서 해야 돼.

○양문석 위원 영진위 위원장 발언 진짜 심각해요. 영진위 위원장 발언 심각하다고.

○위원장 김교홍 그러니까 본인 질의 때 하시면 되지. 내가 시간 더 줄 테니까 본인 질의 때 그렇게 하세요.

○조은희 위원 질의시간에 하십시오.

○임오경 위원 그런데 이거는 참고인한테 정확한 사과는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이재명 정부에서 영화를 내리게 한 게 아니니까.

○배현진 위원 간사님, 그만, 그만하시지요.

○위원장 김교홍 참고인이 저 정도인데 사과하겠습니까? 딱 보면 모릅니까? 참고인이, 여기 지금 중인으로 다 나오신 기관장들이 계신데 참고인이 저 정도인데 사과하겠어요? 제가 사과하라고 얘기한다고 사과하겠냐고. 딱 느낌과 발언 수위를 보면 아는 거지. 저분은 작정을 하고 여기 나왔는데, 작정을 하고 나온 거 아니에요, 저분은?

왜 영화 장사 안 된 걸 정부 탓으로 돌리냐고!

이상으로 참고인 신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출석해서 위원님들의 신문에 잘 응해는 주셨지만 앞으로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면 안 될 것 같아요. 위원장으로서 제가 간곡하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참고인 신문을 하지 않으신 위원님들의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위원장 김교홍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5분씩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김재원 위원부터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시간까지 좀 당겨서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교홍** 그렇게 하세요.

○**김재원 위원** 한국콘텐츠진흥원 유연석 직무대행님, 요즘 전 세계가 K-콘텐츠에 열광하고 있지요. 음악·드라마·웹툰·게임, 전 분야에 걸쳐서입니다.

우리 콘텐츠가 해외 시장을 지금 주도하고 있고 그 뒤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뛰고 있는 한국콘텐츠진흥원 해외 사무소 직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K-컬처 300조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해외 비즈니스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분들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대행님 생각 어떠신지요?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행 유현석**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김재원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좀 알아 보니까 이분들이 겪고 있는 현실은 한류의 화려함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습니다. 단적으로 같은 정부 공공기관 과견인데도 유일하게 과견수당에 세금을 전액 부담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용 알고 계십니까?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행 유현석**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재원 위원** (영상자료를 보면)

PPT 보여 주시지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를 보면 KOTRA, 관광공사, KOICA, 산업인력공단, 중진공 등 6개 기관의 해외 과견 직원에 대해서는 과견수당의 75%까지 비과세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콘텐츠진흥원 직원들만 빼져 있어요. 똑같이 국가를 대표해서 해외에 나가서 과견이 돼서 현장에서 K-콘텐츠를 파는 비즈니스를 담당하고 있는데 왜 이 기관만 제외한 것인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같은 공공기관인데 누구는 비과세, 누구는 과세라면 명백하게 형평성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음 PPT 한번 보시면, 실제로 비교를 좀 해 봤습니다. 불합리가 명확합니다. KOTRA 직원은 평균 연봉이 1억 원이고요. 관광공사 8000만 원대인데 콘텐츠진흥원은 평균 7000만 원 수준에다가 여기다가 세금까지 납부를 해야 하는 거지요. 결국에 실질소득은 훨씬 더 낮아집니다.

계다가 지금 콘진원은 3년 사이에 해외 사무소가 10개소에서 30개로 늘었어요. 그런데 정원은 13명 그대로지요?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행 유현석** 예.

○**김재원 위원** 비슷한 업무를 하는 KOTRA는 해외 거점 평균 3.4명, 관광공사는 2.6명 인데 콘진원 고작 0.4명이에요, 이렇게 되면. 한 사람이 현지의 사무소 설립부터 회계, 사업 추진까지 전부 맡고 있습니다.

다음 PPT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브라질 센터장 같은 경우에 강도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부상으로 본국으로 병가를 왔는데 인력이 없어서 브라질 현지 사무소가 행정이 마비됐습니다. 스페인 센터장 같은 경우에는 낙상으로 어깨가 부러졌는데 대체 인력이 없으니까 사무소 업무를 중지를 했다고 합니다. 단순히 인력 부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안전과 생명 그리고 행정 공백이 생겨버리는 겁니다.

정상원 콘텐츠정책국장님, 이 문제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소득

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에 한국콘텐츠진흥원을 비과세 대상 기관으로 추가 포함하면 됩니다. 국회법 사안이 아니라 대통령령 개정 사안입니다. 문체부가 기재부와 협의해서 입안, 규제 심사, 차관회의 거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또 인력 측면에서도 현재 0.4명 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13명 정원 가지고 30개 지소를 다 커버를 할 수가 없으니까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최소 17명 이상은 증원이 필요합니다. 문체부가 기재부와 협의해서 내년도 예산안에 이를 반영할 계획 있으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 정상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본 위원이 국회 예결위 위원으로서 열심히 돋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유현석 대행님,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문화기술 육성과 관련해서 예산편성, 조직 정비 추진하고 있는 거 아시지요?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행 유현석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재원 위원 문화기술 개발이 해외 수출을 위한 콘텐츠 제작뿐만이 아니라 IP보험이 정수의 기반이 됩니다. 계속해서 바가지가 새는 걸 막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기술적으로 더 많이 거둬들일 수 있을지도 생각을 해야 하지 않겠어요?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행 유현석 예.

○김재원 위원 본 위원이 해외 사무소 직원 처우 개선에 적극 나선 만큼 직무대행께서도 산하의 문화체육관광기술진흥센터에 부족한 인력 배치 그리고 부설기관 설립을 위한 예산 분리 조치 등 함께 책임지고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행 유현석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오전 질의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님,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우리나라 음악 창작자들의 권익을 지키는 핵심 기관이지요. 매년 수천억 저작권료를 관리하는 공익신탁기관인 만큼 투명성과 신뢰가 존재 이유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최근 협회에서 드러난 각종 내부 비위와 부정 운영, 이 기관의 자정 능력이 완전히 무너졌다 이걸 보여 주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내부 감사 제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통제장치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박정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감사를 회장과 협의해서 보고를 하는데 어떻게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다음 PPT 한번 보시지요.

협회는 매년 정기감사,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감사들에게 연 3000만~5000만 원의 보수를 지급하고 있지만 결과로 나타난 건 비위, 이해충돌, 내부 이권 구조가 고스란히 유지되고 있는 그런 구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감사 제도는 작동을 하지 않고요 이름만 남은 형식적인 그런 장치로 전락을 했습니다.

B 감사 한번 보시지요. 2023년에 한 해에만 세 차례 센터 특별감사를 진행하고 같은 시기에 본부 감사가 병행되는 등 이중 감사를 수행하면서 각각 450만~780만 원의 수당을 반복 지급받았습니다. 협회 매 분기마다 특별감사를 실시하면서 동일 인물한테 매년 삼사 회씩 수천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감사입니까, 보너스입니까? 같은 시기에 본부 감사와 센터 감사를 동시에 수행하고 각각 수당을 받는 구조 명백한 중복 지급 맞지요?

음저협은 매년 외부 회계법인에 회계감사를 의뢰해 왔는데요. 최근 3년간 동성회계법인, 삼지회계법인, 동아송강회계법인이 협회 재무제표감사를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회계감사들이 과연 감사 역할을 했느냐?

정향미 국장님, 문체부가 직접 음저협 회계 집행 내역 조사하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국장 정향미 예, 맞습니다.

○김재원 위원 문체부가 직접 점검한 회계자료 보면 음저협은 이미 2023년에 73억 원의 결손 그리고 24년 6월 기준 99억 원의 결손금이 발생한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거는 2023년 기준으로 현금성자산과 단기투자자산의 합계가 퇴직급여충당부채보다 55억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즉 협회가 직원들의 퇴직금 급여조차도 충당하지 못할 수준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음저협이 문체부에 제출한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에는 결손 내용이 단 한 줄도 반영이 돼 있지를 않아요, 보니까. 결손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 감사보고서에는 '이상 없음'으로 돼 있습니다. 단순한 회계 오류가 아니라 감사 제도가 기능을 상실한 총체적 실패입니다. 감사 제도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면 애초에 이런 지출 발생하지 않았어야 하고요.

문제의 본질은 결국 명확합니다. 감사받는 조직이 스스로 감사를 임명하고 자기 식구가 자기 조직을 점검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감사는 견제 장치인데 지금 구조는 견제 대신에 회원들을 속이는 면죄부를 발급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내부 감사가 기관 내부인맥으로 얹혀 있다면 외부 전문가를 포함해서 상설 외부제 감사 도입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국장 정향미 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국장님, 협회가 이렇게 회원들 속이고 그들의 저작권료를 이렇게 쓰는 건 정당하지 않아 보입니다. 음저협의 면죄부 감사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문체부가 외부 감사 제도 도입과 감사보고서 검증체계 구축을 즉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국장 정향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양문석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김교홍 의사진행발언이에요? 아니면 내가 추가질의 쓸 걸 드리려고 그랬는데.

○양문석 위원 쟁점이 됐을 때 마무리하고 넘어갈게요

○위원장 김교홍 그래서 내가 드리려고 했는데, 의사진행발언하세요.

○양문석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할 텐데요.

○위원장 김교홍 의사진행발언하고 또 추가질의 할 거예요?

○양문석 위원 안 할 겁니다.

○위원장 김교홍 추가질의 안 하고 이따 순서에.....

○양문석 위원 일단 제가 너무 큰 소리를 질러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영진위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서 정말 심각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 영화와 정치색이 있는 영화가 다른 것처럼 이야기했는데요. 한국영화관산업협회에서, 영화관 프로그램 편성 원칙을 제가 좀 불러 드리려고요.

개봉 주말 실적, 좌석율, 예매율을 통해서 스크린 수와 극장 수를 조정하는 게 첫 번째 기준입니다. 두 번째, 관객의 반응입니다. 관객들이 대부분 리뷰를 합니다. 별표를 5개를 붙이든지 3개를 붙이든지 그리고 댓글을 어떻게 다는지에 따라서, 두 번째 기준이 관객 반응입니다. 세 번째, 경쟁작 상황입니다. 신규 개봉작의 흥행 예측에 따른 조정, 시즌별 상황을 고려합니다. 이게 영화관산업협회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제가 방금 읽어 드렸던 게 ‘영화관 프로그램 편성 원칙, 나. 개봉 후 프로그램 편성’ 이게 기본 원칙이고 이 기준에서 이제까지 벗어났던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일반 영화와 정치색 짙은 영화로 구분하는 영진위 위원장의 구분의 기준은 도대체 뭔지 그리고 어떤 사례를 들어서 그 내용들을 이야기하든지, 명확하게 하세요. 영진위 위원장이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원칙들을 깨 버리는 대답을 하면……

○위원장 김교홍 아니, 양문석 위원님, 저한테 얘기를 하셔야 돼요. 저기다 하면 안 돼요.

○양문석 위원 대답을 하면 이 원칙들이 살아남겠습니까? 영진위 위원장의 저러한 태도에 대해서 따끔하게 질책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위원장 김교홍 알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영진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영화라는 게 A라는 영화, B라는 영화를 보는 잣대가 다르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꼭 양문석 위원이 지금 말씀하신 거를 우리가 보지 않더라도 영화가 흥미롭고 관객들의 반응이 좋으면 영화는 잘되는 거고 그게 잘 안 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바로 잡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철도공사의 광고판을 내렸다 이렇게 얘기 하잖아요. 그게 정부의 탓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정부의 탓이라고. 그런데 서울지하철에 관계된 거는 서울시예요. 그게 교통공사입니다. 철도공사가 아니라 교통공사 안의 지하철을 담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한 거지 왜 그게 국가기관에서 한 거예요. 뭔가 참고인이 잘 모르고 자꾸만 본인이 영화가 잘 안 됐으니까 그걸 자꾸만 정부 탓으로만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영진위 위원장님께서는 또 명확한 답변을 안 하시니까 이게 상황이 이렇게 복잡하게 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위원장님, 잠깐 제가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교홍 말씀하세요.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양문석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 답변은 일반 영화와 다른 영화 구분이 있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로 그런 사례가 있느냐는 질문을 제가 받았을 때, 제가 학교에서 강의를 오래 했었습니다. 그럴 때 역사 속에서 그러면 어떠한 그런 사례들이 있었나, 모든 걸 강의할 때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그 버릇 때문에 아마 이렇게 나온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교홍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없었잖아요. 아주 드물다고 그랬잖아요.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그런데 영화의 역사 긴 거를 놓고 보면 그렇게 할 수 있을…… 잠깐 그런 어떤 생각에서 드렸던 말씀입니다. 상식적으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그런 건 없지요?

알겠습니다.

양문석 위원님 추가질의 쓰시라고 그랬더니 안 쓴다고 그래서 다음은 부산 수영구의

존경하는 정연욱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연욱 위원**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장님, 게임 진흥이라는, 저희가 게임이 K-콘텐츠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건 누구도 공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요. 그건 기본 전제하에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PPT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면)

PC로 출시하고 네트워크 기능이 있는 비한글화 RPG 게임 심사비 가격을 저희가 한번 따져 봤습니다.

아마 게임물 등급 심사를 할 때 여러 가지, 네 가지 등급을 나눠서 이런 것 하지요?

○**게임물관리위원장 서태건** 예.

○**정연욱 위원** 가격을 한번, 예상 심의료를 저희가 뽑아 보니까요 320만 원입니다. 부가세 포함하면 350만 원 돈입니다.

게임 하나 심사하는 데 실제로 이렇게 드는 게 사실이지요?

○**게임물관리위원장 서태건** 예, 그렇습니다.

○**정연욱 위원** 다음 PPT 한번 보겠습니다.

영화 아바타의 실제 제작비가 5000억입니다. 영상물 등급이지요. 물론 게임하고 성격이 다르기는 합니다, 기본 전제는 그렇지만. 심사비가 228만 원입니다.

우리가 아바타가 어떤 영화였는지 굳이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이런 상업 영화가 영상물위원회 심사비 228만 원이면 혼자 개인이 PC로 만든 인디 게임이 100만 원 가까이 더 낸다, 이게 현실입니다. 아마 수천억 규모, 5000억 정도의 상업 영화보다도 개인이 PC로 개발한 인디 게임이 더 높은 심사비를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2000년도에 만든 기준이 25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다는 게 현실입니다. 물론 PC 용량이나 이런 것은 어마 무시하게 차이가 나고 업그레이드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이런 구조가 고착화됐다는 게 더 문제입니다.

이게 현실을 아느냐, 모르느냐 굳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시대가 25년이면 벌써 세상이 몇 번 바뀌었을 만도 하지요. 그러면 문제는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고율의 심사비가 실제로 게임업계에 한참, 우리가 평소에 많이 말씀하시지요. 게임의 개발자들이나 창의력 또 특히 20, 젊은 세대들의 취업 동기도 되고 여러 가지 청년층들의 여러 가지를 복돋을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업종이 게임인데…….

게임 개발자들의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굳이 다 되풀이하지는 않겠지만 인디 게임들이 왜 이렇게 됐는지, 심사비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자기가 힘들게 날밤 새면서 개발을 해야 될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어찌 보면 개인의 하소연일 수 있고 한탄일 수도 있겠지만 나름 현실적으로 이런 창의적인 노력을 하는 분들의 한탄은 우리가 커뮤니티의 단순한 신세한탄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겠지요.

이렇게 되면 게임 개발자들이 심사비 때문에 개발을 접는다 이런 게 요지 같습니다. 게임 자체를, 아예 제작 자체를 포기해 버리는, 심사비 때문에 포기해 버리는 어처구니없는 우리 게임업계의 현실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원장님의 이렇게 게임물등급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인사말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게임 기업 및 학계 등 게임 환경을 구성하는 다양한 주체들과 적극적으로 교류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위원회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 제가 아는 위원장님, 평소 이런 성품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과연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아니면 미처 챙기지 못하신 건지 모르겠습니다.

또 그런데 실제로 보면, 게관위는 아케이드 웹보드 같은 게임을 플랫폼별로 나눠서 심사하지요?

○**게임물관리위원장 서태건 예.**

○**정연욱 위원** 그러니까 PC용으로 300만 원 내고 등급 받았더라도 또 콘솔에 내면 또 다르게 심사비를 이중 청구하는 형태입니다. 똑같은 게임인데 이렇게 두 번 돈을 내야 됩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더 가관이 있습니다. 게관위의 구조가 과연 게임 심사만 하는 데인가, 아니면 뭔가 다른 목적이 있는 거 아니냐에 있습니다.

보통 게관위 아케이드 게임 심사수수료가 기본 45만 원입니다. 그런데 출장심사를 하겠다고 그러면 지역별로 추가 요금이 붙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게임물관리위원장 서태건 예, 알고 있습니다.**

○**정연욱 위원** 부산 울산 경남에 가면 50만 원이고, 전라도 충청 70만 원이고, 서울 경기 강원 제주로 가면 90만 원 받습니다. 지금 게관위가 아마 부산에 있을 겁니다. 부산에서도 50만 원을 더 받고 심사하러 옆 동네 가는 데도 추가 금액 받습니다.

또 이것은 위원장님이 제대로 챙겨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출장을 나가면 이미 일비, 식비, 교통비……

1분만 더 주세요.

○**위원장 김교홍** 1분 더 드려요.

○**정연욱 위원** 숙박비까지 다 지급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해당 업체에 가서 출장비를 받습니다.

해당 업체에 가서 출장비를 받는다, 이게 상식적으로 또 말이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규정을 대실지 모르겠지만 심사비를 받는데 가서, 일비·식비 이것은 기관에서 감당하신다 하더라도 어떻게 업체한테 출장비를 받습니까?

그러니 시중에서는 게임물을 심사해서 소위 나름대로 등급을 매겨서 여러 가지 관리하는 차원이겠지만 게임 하나 가지고 등급 심사해 가지고 장사하는 것 아니냐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결국 게관위 지금 잘 가시고 기관이 앞으로 여러 가지 바뀔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지만 게관위 폐지하자는 얘기 왜 안 나오겠습니까?

제가 아는 위원장님의 성품이나 인품이나 능력을 보면 이런 것 정도는 당장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게임물관리위원장 서태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들은 업계에서 요구하는 내용들도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받고 있는 심의료가 해외랑 비교를 한번 해 보면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지역에 비해서 적게는 50% 수준이고 많게는 10분의 1 수준으로 지금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수수료를 저희가 수입으로 잡는 것이 아니고 등급 심의하는 모든 비용은 국비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출장비도 국비로 지급을 하지 않고 이렇게 수수료로 받은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수료 받은 만큼은 저희가 국비에서 청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게임 플랫폼에서, 모바일 플랫폼에서 아케이드나 PC 플랫폼으로 심의를 할 때는 중복해서 수수료를 받지는 않고요, 이중 청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냥 내용 수정 신고에 체크만 하면 무료로 그냥 플랫폼 전환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출장 심의료는 원래는 모든 게임은, 아케이드 게임은 저희가 입고를 해야 됩니다. 저희 창고로 입고를 해서 심의를 해야 되는데 편의상 굉장히 벌기하고 이렇게 큰 게임기는 저희가 가서 심의를 해 드리는, 편의상으로 해 드리고 있는 거고. 만약에 그분들이 5t 트럭에다싣고 저희한테 입고를 시킨다고 그러면 편도 40만 원씩을 내서 왕복 80만 원을 또 추가로 내셔야 되는 부분도 있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더라도 업계에서 부담 가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저희가 현실화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연욱 위원** 업계의 현실이 이렇다면 게임업계에서 의견을 한번 더 수렴하시고, 아마 이 부분들은 말씀하시는 만큼 개선이 되면 더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들에 대한 더 적극적인 노력에 대한 입장은 의원실로 한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게임물관리위원장 서태건**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남 공주·부여·청양군의 존경하는 박수현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이기현 위원** 이기현 순서인데요.

○**박수현 위원** 저는 뒤로 쭉 밀려 있던데요.

○**위원장 김교홍** 아니, 아까 차이가 얼마 없었는데요 끼어 넣은 거예요. 그냥 하세요.

박수현 위원 하시고 이기현 위원 하시면 되지.

○**이기현 위원** 예.

○**위원장 김교홍** 아니, 원래 본인 순서에 몇 초 늦었거든. 그래서 내가……

○**박수현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의 인품에 감격하며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현 위원님, 감사합니다.

유현석 직무대행께 빨리 여쭤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함께 누리는 창의적 문화국가’를 핵심 전략 중 하나로 설정하고 총 여섯

가지 국정과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 중 다섯 가지가 문체부 사업이더라고요.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행 유현석** 예.

○**박수현 위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콘진원이 문체부의 R&D를 전담하는 전문기관인데 21년부터 이게 지정이 됐더라고요.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행 유현석** 예, 맞습니다.

○**박수현 위원** 그래서 물론 시간도 짧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격변도 있었고 또 예산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어서 콘진원이 이런 문체부의 R&D를 온전히 국정과제에 맞도록 전담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점이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전제하면서도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만큼 책임과 역할이 막중한데 지금 현재의 상태를 보면 그 책임과 역할의 막중함을 수행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걱정이 들어서 함께 고민해 보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R&D 예산이 많이 삭감된 것은 온 국민이 다 아는 일인데 다행히 이재명 정부의 첫해인 내년에 R&D 예산이 그래도 많이 증액이 되었어요. 국가 전체 R&D 예산이 33.2%p 증액된 35조 3000억 원이고요.

그중에서 문체부 R&D 예산이 51.5%p 증액된 1515억 원이 담겨 있지요.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행 유현석** 예, 맞습니다.

○**박수현 위원** 일단 새 정부의 문화국가 추진 의지가 예산에 들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정연욱 위원님과 조은희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오전에 하셨는데, 저는 이 두 분 야당 위원님의 지적이 아주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K-컬처 300조 이 내용을 채워 가는 것, 콘텐츠를 그야말로 채워 가는 것이야말로 콘진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생각인데, 현재 상태를 보면 이것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콘진원이 대표적으로 25년도 2건의 문체부 R&D에 대한 사업평가 결과를 보면 미흡, 글로벌 가상공연 핵심 기술개발은 ‘미흡’이고 관광서비스 혁신성장 연구개발은 ‘보통’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확장해서 보면 21년에서 25년까지 최근 5년간 ‘우수’ 평가를 일단 1건도 받지 못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참 뼈아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1년에 전담기관으로 지정이 됐고 그동안 이런저런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지금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는 이 막중한 책임을 다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지점에서 담대한 발상의 전환과 그다음에 자신감을 가지고 자꾸 위축되지 말고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직무대행 이것도 빨리 정리가 돼야 될 것 같고 그렇지요?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행 유현석** 예.

○**박수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콘진원이 용기를 내고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든지 간에 그것은 뒤로 하고 이제 담대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눈을 크게 떴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죽하면 제가 두 분 야당 위원님의 지적이 타당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그리

고 이 문제는 함께 고민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행 유현석** 예.

○**박수현 위원** 그다음에 그중에서 하나가 오늘 위원님들 게임 얘기 많이 하시는데, 우리 K-게임의 전초기지라고 할 수 있는 게임인재원의 문제에 대해서 들여다보면 문제가 심한 것 같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이 통계를 보고.

어쨌든 게임산업에 대한 국내 매출액이 22조 9600억 원 그다음에 수출액이 10조 9700억, 종사자만 8만 5000명, 세계 점유율 4위, 그야말로 게임이 대한민국 콘텐츠산업의 중심이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인재 양성이 바로 이러한 K-게임 이것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2019년부터 운영된 게임인재원에 왜 이렇게 중도 탈락과 정원 미달이 많은지 이것에 대해서 걱정이 돼요. 통계들이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게임인재원에서는 지원자 역량이 부족하거나 심사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정원이 미달되더라도 선발하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일견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는 볼 때 뭐라고 그럴까요 평계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적극적인 답변이 아니에요. 그것은 입학생 정원을 보면 증명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엄격하게 선발했다는 교육생의 중도 탈락률이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작년에 입학한 6기생 중에서 벌써 37%가 이탈했고요.

1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1분 더 드려요.

○**박수현 위원** 취·창업률도 급락했어요. 1·2·3기생은 80% 이상의 높은 취·창업률을 보였지만 지난해 졸업한 4기생, 올해 졸업한 5기생의 취·창업률은 반타작 수준에 머물고 있어요. 이런데도 게임인재원 부진의 원인을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한가하게 분석하고 있을 때가 아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콘진원이 혼자 고민한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닐 겁니다. 다만 오늘 주문하는 것은 가슴 죽 피고 담대하게 창의력을 가지고 그렇게 도전하라는 응원을 해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일들이 있으면 국회와 함께, 아까 야당 위원님들도 걱정하시니 만큼 함께 논의를 하자고 당당하게 찾아오시고 서로 제안도 하시고 그렇게 머리를 맞대지 않으면 큰일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오늘 두 가지만 지적을 하고 응원을 하고 싶은데 이에 대해서 말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행 유현석** 먼저 지금 게임인재원 말씀을 주셔 가지고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인재원 취업률이 떨어진 것은 평계라고 말씀하셔도 할 말은 없지만 엔데믹 이후에 게임 기업들이 다 신규 채용을 줄이는 반면에 저희는 그 전해까지 굉장히 평장히 취업률이 좋았기 때문에 정원을 2배로 늘렸습니다. 그게 미스 매칭이 되는 바람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2년 동안 장기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게 수업은 무료지만 지원금 같은 게 전혀 안 나가기 때문에 중도에 생활비 문제 때문에 포기하는 인원이 많이 발생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중장기적으로 개선 방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AI 기반의 커리큘럼도 개설하고 있고요. 그리고 산업계와 공동적으로 프로젝트하는 그런 취업률에 오리엔티드(oriented)된 교육 과정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기간도 2년에서 9개월로 줄이려고 하고 있고요. 기타 단기 교육도 도입을 해서 문체부랑 협의를 거쳐서 게임인재원에 정말 아주 적합한 인재들이 모이고 잘 양성해서 그대로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고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저희가 머리를 맞대고 문체부랑 협의해서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현 위원 지금 답변하신 답변 내용과 자료를 종감 전에 제출 좀 해 주세요, 그거라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행 유현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고양시병의 존경하는 이기현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이기현 위원 질의 전에 잠깐만 의사진행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교홍 예.

○이기현 위원 어제 저희가 국정감사에서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의 장동광 원장과 관련된 성희롱 문제에 대한 위원들의 질의가 있었고 질타가 있었습니다. 장동광 원장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라고 하는 우리 위원장과 위원들의 요청에도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된 사과, 적어도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진심 어린 사과로 느끼기 어려웠습니다.

(김교홍 위원장, 박정하 간사와 사회교대)

특히 본인이 2차 가해를 조장했다고 오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이 추사 김정희와 다산 정약용을 빗대어 ‘모함을 당하는 것이 괴로우며 그럴 만한 일이 있는지 의문이다. 누군가를 모함하고 음해하며 상처를 준 사람도 나와 같은 괴로움을 당할 것이다’라고 간부회의에서 얘기했고 이것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아니냐고 했을 때 장동광은 분명히 어저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피해자는 없었다. 피해자가 없는 자리에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지, 그래서 2차 가해 아니다’라고 주장했는데 제가 어제 질의가 끝나고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피해자가 있는 가운데 그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국정감사장에 와서 본인이 위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피해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저희 중계를 보고 분노했고 또 위증죄로 처벌이 불가피, 피해자도 이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본인이 인정하셔서 저희 위원회가 국회에 부여된 소명을 다하는 차원에서라도 특히 장동광 원장에 대해서는 위증죄로 꼭 여야 협의로 고발할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위원장대리 박정하 감사 다 정리되고 나면 여야 간사 간 협의 통하고 위원장님과 상의해서 이기현 위원님 말씀 주신 것 충분히 존중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지요.

○이기현 위원 예, 고맙습니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영진위원장님 먼저 질의,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화 산업이 위기입니다. 그렇지요?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예.

○이기현 위원 투자, 기획, 제작 모두 위축돼 있습니다.

PPT 한번 띄워 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면)

우리가 상업 영화라고 하는 일반적으로 순 제작비 30억 이상의 한국 영화 제작 편수가 5년, 6년 만에 반토막이 더 났습니다. 19년도에 45편이었던 게 올해는 한 20편 정도로 될 것이다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예, 알고 있습니다.

○이기현 위원 그 와중에서도 한국의 창작물들, 해외에서 빛난 창작물들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케이팝 데몬헌터스라는 것이 있었고 킹 오브 킹스가 있는데 아시겠지만 아쉽게도 케이팝 데몬헌터스는 한국계 인력이 다수 참여했고 공동 참여했지만 자본의 소속으로 보면 소니픽처스와 넷플릭스가 제작한 미국 영화입니다. 그렇지요?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예, 그렇습니다.

○이기현 위원 반면 킹 오브 킹스는 기획, 제작 모두 한국 쪽에서 이루어졌고 국내에서 역대 한국 영화 흥행 1위를 기록했습니다. 글로벌 협약과 제작 방식이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국이라는 국경 틀 내에서 영화가 제작되는 그런 시기가 지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돈과 물건에는 국경이 있지만 문화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정부 차원에서 국제공동지원 사업—영화에 있어서—글로벌 프로젝트가 진행될 때 지원하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진흥 사업들이 있었는데 대부분 다 폐지가 됐고 이제 딱 하나 남은 로케이션 인센티브 지원사업이 올해 8.96억이라는 정도의 예산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것도 집행 부진을 이유로 해서 내년에는 없어집니다. 그래서 국제공동지원 사업은 줄줄이 폐지돼서 이제 내년에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정책적 실기라고 봅니다.

해외 주요 국가들의 공동제작지원 현황을 한번 보시면 일본, 태국, 프랑스, 사우디아라비아, 우리 이웃나라 일본만 해도 자국 내 집행비용의 20% 환급 지원, 편당 최대 5억. 그리고 자국 내 집행비용의 50% 환급 지원하고 있고요, 이것은 편당 100억까지 합니다.

동남아 국가인 태국에서도 로케이션 인센티브 지원사업에서는 금액 제한 없이 자국내 집행비용의 30%까지 환급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지원 부재입니다. 이제 부재로 들어가는 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화 제작에 있어서는 국경이 없는 세상이 왔습니다. 저는 공동제작 사업 관련돼서 예산 복원도 필요하고 그리고 영진위의 정말로 절실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진위원장님은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실 것 같고요.

콘텐츠진흥국장님 뒤에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 정상원 예.

○**이기현 위원** 국제공동제작지원 사업 다시 살릴 의향 있으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 정상원** 예, 저희 이번에 예산 국회 때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국제공동제작 로케이션 이런 부분 증액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기현 위원** 맞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 정상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현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영장자료원 김홍준 원장님, 오징어게임 너무 잘 아실 텐데 거기에 나오는 영희라는 피규어 알고 계시지요?

○**한국영상자료원장 김홍준** 예, 알고 있습니다.

○**이기현 위원** 모든 국민들의 머릿속에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영화 제작이 끝나고 나서 한국영상자료원에서 이 영희라는 캐릭터, 피규어지요. 큰 피규어인데 이것을 기증을 받아서 관리 중에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관리되는지 찾아봤더니 저렇게 박스 안에 담겨서 야외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관짝처럼 보이지요? 그냥 관짝입니다. K-콘텐츠의 상징이 저렇게 지금 상자 안에 담긴 채 길바닥에 임시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영상자료원장 김홍준** 우선 저희 영상자료원에 대한 관심에 감사부터 드리고요. 조금 정정하자면 정확히 말하면 방치가 아니라 방치되어 있던 오징어게임의 영희 인형을 저희가 입수하고 기증 절차를 거쳐서 현재 수집한 상태에서 저희가 별도의 수장고가 없기 때문에 저렇게 적재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기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있어서요.

다음 보시지요.

지옥 사자라고 하는 피규어가 있습니다. 영화 지옥에서 나왔던 것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자에 담겨서 지하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필름 수장고도 한번 보여 주시지요.

필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장고 포화율이 93%입니다. 2030년에는 완전히 포화돼 있습니다. 포화 상태로 빠져듭니다. 저는 이렇게 필름마저도 포화 상태로 만약에 저장할 곳이 없어진다고 하면 우리나라 영화 원본 필름들이 훼손되고 폐기될 우려가 굉장히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저는 원장님에게, 이 수장고 확충이 시급하다고 보이는데 원장님, 당연히 제 말씀 동의 하시지요?

○**한국영상자료원장 김홍준** 예,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기현 위원** 그러면 정상원 콘텐츠정책국장님, 이 문제도 당연히 필요한 내용이라고 보여지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 정상원** 예, 위원님 지적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기현 위원** 그렇습니다. K-콘텐츠의 발전은 기준에 만들었던 콘텐츠의 저장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고 또 후대의 우리 후배 창작자들이 이것을 보고 새로운 문화 콘텐츠 제작의 동력으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의 기록이기 때문에 당연히 잘 보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영진위원장님, 한 말씀만 묻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영진위가 모 영화에 대해서, 어떤 영화든 상영을 의도적으로 막은 적 있습니까? 없지요?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이기현 위원 콘텐츠정책국장님, 문체부가 영화의 상영을 강제적으로 막은 적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 정상원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정하 마치셨어요?

○이기현 위원 예.

○위원장대리 박정하 이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종오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진종오 위원 강석원 저작권위원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토렌트 잘 알고 계시지요, 혹시 구조도 잘 알고 계십니까?

○한국저작권위원장 강석원 예.

○진종오 위원 토렌트 여기 불법 사이트입니까, 아닙니까?

○한국저작권위원장 강석원 실제로 기술 개발은 효율적인 전송을 위해서 만들어진 기술로 알고 있습니다.

○진종오 위원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가 같이 시작이 되지요. 그래서 이게 또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내려받는 순간 곧바로 불법 유포자가 되는 구조 맞지요?

(영상자료를 보면)

최근에 이 악성 특성을 악용해서 피해자들을 고소하고 합의금을 뜯어내는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지요?

○한국저작권위원장 강석원 예.

○진종오 위원 제가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요 저작권법 위반 고소·고발 건수는 2021년도에 6000건에서 2024년도에 5만 9000건으로 3년 만에 10배 이상 폭증을 했고요. 송치 인원 역시 2021년 2000명에서 24년도에는 1만 명으로 거의 5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일부 저작권자 그리고 법무대리인이 토렌트 특성을 악용해서 고의로 유도하고 건당 150만 원에서 한 300만 원까지 합의금을 요구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난해 변호사 자격도 없는 업체가 영화 제작사와 계약을 맺고서 직접 영화를 토렌트에 유포한 뒤에 1000명을 고소했습니다. 고소한 후에 8억 원의 합의금을 챙긴 사건도 있었습니다.

다음 자료 좀 보여 주세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가입한 온라인 카페입니다. 경찰청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고소대리인 법무법인에 합의 제안을 했더니 합의금으로 200만 원을 요구했다라는 게시글도 있습니다. 현재 이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모인 온라인 카페 회원 수가 얼마인지는 알고 계세요? 화면 보시면 15만 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수사나 합의 관련 질문 글들만 한 25만 건이 된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사회적으로 문제 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한국저작권위원장 강석원 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종오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분을 받으면 어떤 걸 받지요? 저작권 교육 이수 받지요. 그렇지요, 저작권 교육?

○한국저작권위원장 강석원 예, 기소유예를 위해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진종오 위원 저작권 교육을 이수해야 되는데 위원회에서 제출한 자료를 말씀드릴게요. 교육 의뢰자가 2021년도 마찬가지로 500명에서 24년도에는 6000명 1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제때 받지 못한 대기자가 8000명이 넘어갑니다. 이것을 보면 사실상 교육이 제대로 이행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한국저작권위원장 강석원 예, 그래서 자체적으로 그동안 8시간 교육받던 것을 4시간으로 줄이고 교육 횟수도 늘리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도 대기자가 상당히 좀 누적돼 있는 상황입니다.

○진종오 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으로 토렌트를 이용하는 이용자도 많은데 대책이 확실하게 마련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인 거지요.

그래서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작권 불법 유통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따라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토렌트 구조상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러나 불법이 아니지만 현재 구조상 보면 나도 모르게 불법 유포자가 될 수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께서 조금 더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저작권위원회가 국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좀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실 건지 본 의원실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장 강석원 물론 내년에 인력이라든지 예산 증액을 통해서 대기 인력들을 최대한 축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이 과정이라든지 홍보에서도 토렌트의 위험성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종오 위원 제가 말씀드린……

○한국저작권위원장 강석원 상세 내용은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종오 위원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요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누구나 다 토렌트는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좀 더 많이 국민들에게 알려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장 강석원 예.

○진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정하 진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계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유현석 대행님, 콘텐츠진흥원은 국내 콘텐츠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서 현지에서 지원하는 콘텐츠산업 특화 해외 거점인 해외 비즈니스센터를 세계 주요국에 구축하고 운영 중이지요?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행 유현석 예, 맞습니다.

○조계원 위원 화면 한번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면)

22년까지 15개소였던 해외 비즈니스센터는 3년 만에 30개소로 급증하고 2026년에는 40개, 2027년에는 50개 거점을 계획하고 있지요? 계획대로 실행할 예정입니까?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행 유현석** 아니요, 지금 올해까지 30개 거점에서 잠정적으로 홀드 상태고요. 지금은 내실을 기해야 될 단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계원 위원** 예, 내실을 기해야 될 상황이 맞지요?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행 유현석** 예, 맞습니다.

○**조계원 위원** 화면 한번 띄워 보시지요. 콘텐츠진흥원 해외 비즈니스센터 인력 현황 표 한번 띄워 주시지요.

대부분의 경우가 1명이에요. 1명 갖고 제대로 지금까지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급작스럽게 확대하면서 현지에 필요한 어학능력이나 전문성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갖춘 인력들을 투입했습니까?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행 유현석** 예, 현지인하고 현재 외국인하고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일정 수준 이상인 사람만 자격이 되고요. 그다음에 능력평가에 의해서 보내고 있고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인원이 1명이 그런데……

○**조계원 위원** 사실상 1명 가지고 어떻게 일을 합니까?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행 유현석** 예, 어렵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리고 사무실 임차 현황 지금 방금 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니까 30개 사무실 가운데 코리아센터가 있는 곳 5곳을 빼고는 전부 임차로 운영하고 있고 그중에 또 4분의 1 정도, 7개는 공유오피스를 이용하고 있어요. 공공기관의 해외 센터가 공유오피스를 이용한다는 게 맞아요?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행 유현석** 센터 설립 중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저는 이게 과거 이명박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했던 자원외교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아무런 실체가 없이 끝난 대왕고래 프로젝트 이런 부분들하고 똑같은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지금이라도 이제 더 이상은 확장하지 않고 내실을 기하겠다 해서 그나마 다행인데 앞으로 내실 있는 해외 비즈니스센터 운영을 위해서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요. 어떻게 보완해 나갈지 로드맵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행 유현석** 예, 로드맵 준비해서 위원님께 한번 보고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다음에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장님,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에 따라서 게임제공업소 등이 아닌 영업소의 게임물 설치 댓수는 5대 이하 또는 2대 이하까지 가능하지요?

○**게임물관리위원장 서태건** 예, 그렇습니다.

○**조계원 위원** 화면 보시지요.

5대 이하의 조건은 콘도미니엄 등이 5대 이하까지는 허용이 되고요. 나머지는 2대 이하입니다. 그런데 숙박업소에 컴퓨터를 비치해 놓고 PC방처럼 운영하면 어떻게 됩니까? 게임텔이 요새 만연돼 있다 하는데 화면 보이시지요?

○**게임물관리위원장 서태건** 예.

○조계원 위원 화면에도 보이다시피 5대의 컴퓨터를 놓고 일종의 게임방을 운영하는데 이거 불법 아닌가요? 제대로 점검하고 있나요?

○게임물관리위원장 서태건 예, 지금 점검하고 있습니다.

○조계원 위원 제대로 점검하고 있지 않지요. 2020년부터 25년까지 점검은 총 해서 99 건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거의 절반이 행정지도로 적발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발을 더 늘리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상황, 지금 현재도 방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시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게임물관리위원장 서태건 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좀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조계원 위원 어떤 한계가 있습니까?

○게임물관리위원장 서태건 저희가 지금 단속을 하는 대상은 게임제공업소나 인터넷컴퓨터시설업소를 대상으로 하는데 여기는 숙박업소이기 때문에 저희가 접근이 굉장히……

○조계원 위원 적극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조사하고 어떻게 계도해 나가고 보완해 나갈지 대책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게임물관리위원장 서태건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다음, 세종학당 직무대행님, 세종한국어평가는 전 세계 세종학당 학습자의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표준화된 방식으로 검증하는 핵심 사업이지요?

○세종학당재단이사장직무대행 최현승 예.

○조계원 위원 그런데 이 사업들을 재단은 명확한 근거 규정 없이 민간위탁으로 사업을 운영해 왔더라고요.

화면 한번 띄워 주시지요.

2022년과 23년은 수의계약으로 그리고 24년과 25년은 일반경쟁입찰로 민간에게만 위탁을 해 왔습니다. 이거 문제가 있지 않나요?

○세종학당재단이사장직무대행 최현승 규정이 없었던 것은 저희가 내부 규정을 새로 신설을 해서 작년에 시정을 했습니다.

○조계원 위원 민간위탁을 맡긴 이유가 내부적으로 준비가 안 돼서 그런 겁니까? 관리가 안 돼서 그런 겁니까?

○세종학당재단이사장직무대행 최현승 인력과 예산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조계원 위원 지금 세종학당은 국가를 대표하는 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만큼의 공공성과 책임성, 품질의 일관성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게 외부에서만 맡겨 가지고는 제대로 역량이 축적되겠습니까?

○세종학당재단이사장직무대행 최현승 최대한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필수불가결한 부분에 대해서만 외부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조계원 위원 30초만 더 쓰겠습니다.

새로 제정된 세종한국어평가 시행 운영 지침 제4조는 민간위탁 운영에 대해서 직영관리 환경이 조성될 때까지만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면피할 수 있는 규정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것 때문에 아직까지 미루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급하게 이 문제를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화면 부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이게 교육 접수는 엄청나게 많이 해요. 그런데 실제로 시험은 거의 안 봐요. 제대로 시험의 공정성과 대표성들이나 이런 것들이 반영이 안 돼서 줄어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은 신청하는데 시험은 정작 안 봐요. 접수 대비 응시율이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이유는 뭐고 보완 대책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한번 해 주시지요.

○**세종학당재단이사장직무대행 최현승** 저희가 22년에 처음으로 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시행을 하면서 아직은 기반을 구축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다 보니 무료로 일단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니 인터넷상에서 무료로 신청하게 되면, 경쟁적으로 신청을 하다 보면 여기 신청하고 저기 신청하고 그러면서 응시를 실제로는 안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가장 문제가 되는 지역부터 현장 접수를 다시 복귀하는 방법으로 일단 시정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계원 위원** 응시율이 그런데 1회차에서는 79% 수준이었는데 지금 7회차에 이르는 동안 오히려 올라가기보다는 66%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요. 좀 전에 말씀한 내용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좀 더 치밀하게 검토하고 조사해서 보완책을, 보완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대책을 마련해서 의원실에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학당재단이사장직무대행 최현승** 예, 알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정하** 조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솔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손솔 위원** 국립국어원 윤성천 원장직무대리님 이쪽으로 나와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현재 한국수어사전에 등재된 성소수자 관련 수어 표현에 대해서 국립국어원과 한국농인LGBT+단체가 면담을 진행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올해 4월에. 관련해서 저희 의원실에 보내 주신 자료인데요, 화면에 띄워 주신 것은. 이 면담에서 나눈 얘기와 결과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국립국어원장직무대행 윤성천** 지금 저희 수어사전이 2005년에 종이사전 나온 것을 2016년부터 웹서비스를 위해서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5개 성소수자 관련 용어가 보기에 약간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으로 돼 있다 그런 문제 제기가 돼 있고요.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손솔 위원** 성소수자 혐오 수어가 있습니다. 성소수자를 표현하는 게 혐오적으로 되는 수어들이 있고 그 당사자 단체에서 대안 표현 37개를 제안했었고요. 4월에 만나서 한국수어사전의 기존 걸 폐기하고 당사자들 의견을 듣겠다 이렇게 해서 27년까지 만든다라고 한 게 맞으시지요?

○**국립국어원장직무대행 윤성천** 맞습니다.

○**손솔 위원** 저는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이게 27년입니다. 27년까지 이게 만들어지는 동안 계속해서 그런 표현들이 송출이 되고 있는 게 문제거든요.

다음 화면 보시면요 이게 동성부부 건강보험을 인정하는 소식을 전달하는 뉴스예요. 당사자들이 기뻐하고 나름의 변화와 진전이라고 평가받는 일인데 이거를 전달하는 수어가 혐오 수어입니다. 이게 전달이 잘 되겠습니까?

27년에 만들어지는 건 좋은 소식인데 늦잖아요. 그 와중에도 계속해서 혐오 수어가 계속 송출되고 있는 문제, 제가 볼 때는 특정 자주 사용되는 수어 같은 경우에는 좀 빠르게 조치를 취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27년까지 이 기간 동안 계속 송출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국어원장직무대행 윤성천** 지금 기준에 사용되는 수어사전에 올라가 있는 것은 농아인협회랑 같이 해 가지고 만들었던 그런 사항인데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서비스를 개선하려고 이미 지금 수어누리사전이라고 별도로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는 1000개가 들어가는데 거기에는 지금 안 들어가 있고 말씀하신 대로 2027년까지 한 3년 남은 기간에 2000여 개를 보완해서, 그래서 그 과정에서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기준에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의 대안으로 제시한 그런 표현에 대해서 또 농아인들은, 농아인협회에서는 익숙하지가 않다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시간이 좀 필요한 내용이고요. 어찌됐건 그 부분은 지금 같이 논의를 해 가지고 하겠다고 기준에 서비스되고 있는 것들은 일단 먼저 잠정적으로 중단을 하고……

○**손솔 위원** 이것도 어쨌든 언어거든요. 언어가 혐오 표현이면 안 되잖아요. 반드시 시정돼야 되고 빠르게 조치가 필요합니다.

○**국립국어원장직무대행 윤성천** 예, 알겠습니다.

○**손솔 위원** 들어가 주십시오.

서태건 위원장님, 사행성이 포함된 게임물은 이용자들이 게임물에 의존하게 만들기 때문에 등급분류에서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게임물관리위원장 서태건** 예.

○**손솔 위원** 특히 청소년의 경우에는 PC 온라인게임 결제 한도도 두고 있고요, 7만 원 상한으로. 그런데 모바일게임에는 그런 게 지금 없잖아요. 그게 문제인데 최근 나온 논문들 보면 유료 아이템 구매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이 절반 가까이 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경험이 대단히 많고요.

모바일게임에 대한 심의는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진행되지 않고 민간 업체에서 자체 심의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가챠 중독 문제가 심각하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자료 보시면 도박문제예방치유원에서 최근 5년간 중독치유서비스를 받은 사례인데 확률형 아이템의 중독을 치료하고 싶다는 분들의 현황입니다. 5년간 총 600건이 넘고요 10 대도 많습니다.

지금 등급분류 심의 민간 이양 추진 작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 이양이 되더라도 가챠 중독에서 최소한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 이거는 꼭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 민간 이양이 되더라도 사후관리 대책이 꼭 필요한데 게임 유저들이 사용하는 혐오 표현 관련한 문제, 게임이 혐오 표현을 유통하는 장이 되어 버려서는 안 되

지 않습니까?

○ **게임물관리위원장 서태건** 예, 그렇습니다.

○ **손솔 위원** 이 부분에 대한 대책과 예방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살펴봐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지금 고민하시는 게 있으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게임물관리위원장 서태건** 등급분류 민간 이양이 이제 곧 시행이 됩니다. 그로 인해서 또 게임 생태계에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는 예의 주시를 할 거고 물론 사후관리는 철저히 해 나갈 것입니다, 법률에 따라서. 하지만 또 게임 이용자들의 게임 이용 문화에도 문제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교육을 좀 더 강화를 하고.

특히 민관, 그런 유관단체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이런 부분은 좀 예방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지금 기본적인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 **손솔 위원** 제가 우려하는 거는 민간 이양이 되더라도 청소년 보호, 중독 관련된 것을 예방하는 문제와 혐오 표현에 대해서는 담당하거나 책임을 지는 그런 소재가 좀 불분명해질까 봐 걱정인 거거든요. 꼭 쟁여 주십시오.

○ **게임물관리위원장 서태건**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정하** 손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현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배현진 위원** 국민의힘 배현진입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 텔레그램이라는 메신저 많이 쓰시지요? 잠시 오후에도 이렇게 피곤하실 텐데 여유가 되시면 함께 텔레그램을 한번 열어 보실래요, 기관장님들께서도요?

본 위원이 PPT 하나 띄워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텔레그램 위에 보면 돋보기 검색창이 있는데 거기에 코리아 드라마나 코리아 무비라고 한번 검색을 해 보시면요 무궁무진한 우리 드라마와 영화 콘텐츠가 무료로, 어느 나라인지 모르는 광고까지 수두룩하게 붙어서 뜹니다. 텔레그램이 우리에게 뛰어난 보안성으로 아주, 채널의 챗에 보시면 위에 뜨는 저기 들어가시면 막 쭉 영상이 뜨는데 이게 9월 29일에 방영을 시작한 신작 드라마 시리즈도 여기 줄줄줄 나올 만큼 거의 최근에 나온 인기 있는 드라마와 영화들은 거의 다 있다고, 본 위원이 확인해 본 바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요 문체부 저작권국장님 그다음에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님 비롯해서 저작권보호원 원장님·경영기획실장님, 기획혁신본부장님까지 제가 알기로 여섯 분이 나와 계세요.

위원장님, 일단 저작권위원회는 등록기관이니까 이런 거 있다는 거 들어 보셨습니까?

○ **한국저작권위원장 강석원** 예, SNS를 통해서 유통된다는 얘기는……

○ **배현진 위원** 유통된다는 건 아셨지요?

○ **한국저작권위원장 강석원** 예.

○ **배현진 위원** 그러면 이 주무를 해야 되는 저작권보호원 원장님 뒷자리에 계신데요. 잠시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지금 이런 일이 지난해에도 아주 대한민국 사회를 흔들었습니다. 누누티비 사태가, 이거를 저희가 경찰까지 동원해 가지고 실제 그 범인을 잡아서 송치하고 막 했는데요. 실

은 우리 콘텐츠가 위낙에 세계적으로 품질이 좋아지다 보니까 어디 물 샐 틈 없이 막고는 싶지만 계속해서 이런 저작권 문제가 발생을 하고 이것을 다 잡기는 힘든 노릇이기는 한데요.

텔레그램은 그래도 세계 4위의 플랫폼 메신저 업체로 자리 잡아 있습니다. 맞지요?

○**한국저작권보호원장 박정렬** 예, 그렇습니다.

○**배현진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 연 40억 원씩 지금 아마 예산을 들여서 저작권 보호를 위한 활동을 SNS상에서 모니터하는 걸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산이 맞습니까?

○**한국저작권보호원장 박정렬** 예, 예산은 맞고요. 그 예산은 우리 시스템, 다국어·외국어 시스템뿐만 아니라 인력까지 다 포함해서 하는 거고요.

○**배현진 위원** 그렇지요. 중국, 태국, 필리핀, 베트남 비롯해서 여러 해외 지점도 운영하면서, 제가 지금 이게 어느 나라 문자인지 읽지를 못하는데 그 광고부터 해외 여러 나라 까지 모니터를 하고 있는데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같은 주요한 글로벌 SNS 계정들을 다 모니터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이 텔레그램 모니터링이 빠져 있습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장 박정렬** 지금까지는 PDF방이라고 그래서 유빈아카이브 같은 그런 쪽에 복사물이 유통되고 있는 것들을 저희들이 파악했었고요.

○**배현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한국저작권보호원장 박정렬** 영상물에 대해서는……

○**배현진 위원** 심각하지요?

○**한국저작권보호원장 박정렬** 예, 그렇습니다.

○**배현진 위원**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텔레그램방을 이용한, 그러니까 사각지대를 이용한 제2의 누누티비와 다름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창작자들이 어떻게 힘을 내고 일을 하겠습니까?

텔레그램에요, 보세요 이거 오늘 보시고 막으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저작권 침해 시 신고해 달라라는 신고센터 주소까지 텔레그램상에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이거를 지금 지적을 해 드렸기 때문에……

저작권국장님도 뒤에 계시지요, 정향미 국장님? 그 자리에서 말씀 주십시오.

어떻게든 간에 이 텔레그램을 통한 우리 콘텐츠 저작권의 누수는 두 분 포함해서 실무진들이 이거 막아 주셔야겠는데, 조치 빨리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한국저작권보호원장 박정렬** 예, 저희들이 다 모니터링해서 접속 차단할 건 접속 차단하고 수사할 건 수사하고 그다음에 텔레그램 본사를 찾아가서 하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권리자들한테 먼저 정보를 제공해서 권리자들에 청구를 하고 저희들이 노력할 건 또 따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진 위원** 지금 마이크가 잘 성능이 안 좋아서 하시는 말씀이 제대로 안 들리는데요.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제가 한국 드라마라고 한글로 친 게 아니라 영어로만 검색해도, 다른 나라 어려운 생경한 언어가 아니라 영어로만 검색해도 이렇게 수두룩하게 나오잖아요. 이런 정도는 모니터링을 해서 감시망 안에 넣어야겠지요?

○**한국저작권보호원장 박정렬** 예, 당연합니다.

○**배현진 위원** 이 작업하실 거 종감 전까지 제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장 박정렬** 예.

○**배현진 위원** 오늘 제가 이 채널을 알려 드렸지만 위원님들 사용하시면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지요? 제 눈을 보고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정하** 배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미 있는 질의였습니다.

다음은 민형배 위원님 질문하시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서태건 위원장님,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마는, K-콘텐츠 수출에서 게임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게임물관리위원장 서태건** 거의 수출에 있어서는 한 60% 정도 되고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한 절반은……

○**민형배 위원** 그러면 하여튼 절반이 넘는 거지요?

○**게임물관리위원장 서태건** 예, 그렇습니다.

○**민형배 위원** 중요하지요.

게임 출시를 하려면 등급분류를 무조건 받아야 됩니까?

○**게임물관리위원장 서태건** 그렇습니다, 국내에서는.

○**민형배 위원** 받아야 되지요. 등급분류는 누가 합니까?

○**게임물관리위원장 서태건** 등급분류는 기존까지는 연령등급분류 게임에 있어서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해 왔는데 민간 이양이 되기 때문에 민간 단체에서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 저희 방에 여러 번 질의가 옵니다. ‘어디다 등급분류 신청해야 되는 거냐’, ‘내용 수정 신고는 어디다 해야 되는 거냐’. 어디다 해야 됩니까, 지금?

○**게임물관리위원장 서태건** 내용 수정 신고는 지금 등급분류 하는 그 기관에다가 내용 수정을 신고를 해야 됩니다.

○**민형배 위원** 어디 어디 있는데요, 그게?

○**게임물관리위원장 서태건** 지금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GCRB라고 민간등급분류 기관이 있고요. 또 그다음에 자체등급분류 사업자가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런데 왜…… 저것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면)

게임물 민간등급분류 확대 3단계가 있는데 저거 왜 빨리빨리 안 하십니까?

○**게임물관리위원장 서태건** 지금 1단계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협약이 끝나서 11월부터는 바로 실시가 가능할 거로 지금 예상을 합니다.

○**민형배 위원** 이 법 시행일이 언제였습니까?

○**게임물관리위원장 서태건** 10월 9일로 알고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랬지요. 원래 시행일 전에 준비를 다 끝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모든 법이 시행을 하기 전에 시행 준비를 끝내야 되지요? 지금 이게 안 돼 있어 가지고 복잡하잖아요.

○**게임물관리위원장 서태건** 그래서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민간등급분류 사업자 선정을 진행을 해서 계약 단계에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 만약에 민간 이양이 돼도 기존의 게임위에서 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게임위에, 수정 신고할 때 게임위에 또 해야 되는 거지요?

○ 게임물관리위원장 서태건 예, 등급 했던 기관에서 받게 돼 있습니다.

○ 민형배 위원 그러면 민간 이양 후에도 게임위가 내용 수정 신고를 받는다, 이게 온당 합니까?

○ 게임물관리위원장 서태건 그 부분에 있어서도 장기적으로는 그 데이터를 이양하게 되면 민간에서도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저희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하는 걸로……

○ 민형배 위원 1단계, 2단계 구분이 저희가 보기에는 의미가 없고 대상도 몇 되지도 않는데, 저렇게 돼 있어요. 문체부안하고 게임위 제출 자료를 보면 1·2단계가 서로 바뀌어 있어요. 저게 무슨 뜻일까요? 왜 저렇게 서로 바뀌어 있을까요?

○ 게임물관리위원장 서태건 여기는 사정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 민형배 위원 사정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바꿔도 된다는 얘기는 게임위 쪽에서 바꿔도 되고 문체부에서 바꿔도 된다고 보면 둘 다 동시에 진행해도 문제가 없다는 뜻 아닙니까?

○ 게임물관리위원장 서태건 그런데 민간등급분류 기관에서 준비가 된 경우에 이게 이양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게 감안이 된 것 같습니다.

○ 민형배 위원 그거는 좀 평계이신 것 같고요. 빨리빨리 게임위에서 안 넘겨준 거 아니에요?

○ 게임물관리위원장 서태건 아닙니다. 저희는 하루라도 빨리 넘기고 싶은 게 저희 입장입니다.

○ 민형배 위원 작년 기준으로 국내 시장에서 게임 등급을 분류받은 게, 판정받은 게 몇 개나 됩니까?

○ 게임물관리위원장 서태건 저희가 대상은 한 150만 건이……

○ 민형배 위원 156만 개였는데 그중에서 2단계에 해당하는 게임이 작년 기준으로 몇 개나 됩니까?

○ 게임물관리위원장 서태건 거의 그……

○ 민형배 위원 300개가 안 됐지요?

○ 게임물관리위원장 서태건 예, 그렇습니다.

○ 민형배 위원 0.018%. 그런데 이걸 왜 안 넘기고 계세요?

○ 게임물관리위원장 서태건 저희는 민간등급분류 사업자 준비가 되는 대로 지금 넘길 그런 준비는 다 돼 있습니다.

○ 민형배 위원 아니, 준비돼 있는데 지금 뭐라고 얘기가 되냐 하면 게임위가 이름도 바꿔야 되고 이를테면 사라지는 거잖아요, 민간으로 완전히 이양되고 나면. 여러 가지 안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민간 이양과 게임위를 어떻게 둘 건가 때문에. 두어 가지 안이 나오고 있지요?

○ 게임물관리위원장 서태건 예.

○ 민형배 위원 문체부안이 있고 여당의 안이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1년씩 걸리는, 한 단계 가는 데 1년 걸리면 이거 국민주권정부 끝날 때까지 민간 이양이나 전담기구 신설 불가능한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게임물관리위원장 서태건 다른 의도는 없고요.

○민형배 위원 다른 의도가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제가 여쭙는 거예요.

○게임물관리위원장 서태건 저희는 민간 이양 결정이 됐기 때문에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이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 이것 때문에 지금 저희 방에도 그렇지만 여러 곳에서 '대체 어디다 신청 해야 돼', '신고는 어디다 해야 돼'. 이 정비 빨리 해야 됩니다.

○게임물관리위원장 서태건 예.

○민형배 위원 지금 게임산업이 되게 중요하다면서요, K-컬처 300조에서. 그러니까 이거 잡고 계실 일이 아니고 서둘러서, 저쪽에 준비가 안 됐다 그러지도 마시고.

이게 지금 무슨 얘기가 나오냐 하면 게임위원회가 조직 보존하려고 시간 끌고 있다 이 얘기가 지배적이에요. 맞지요?

○게임물관리위원장 서태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민형배 위원 전혀 그렇지 않으면 1년 걸려서, 저 1·2단계를 한꺼번에 가도 되는 걸 이렇게 오래 끌고 계시면 안 됩니다.

○게임물관리위원장 서태건 예,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양하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러다가 진짜 일 납니다.

○게임물관리위원장 서태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서초구갑의 존경하는 조은희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감사합니다.

세종학당의 최현승 사무총장님 나와 계십니까?

한국을 더 알고 싶다 이런 글로벌 팬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 맞지요?

○세종학당재단이사장직무대행 최현승 예.

○조은희 위원 그 세계인들의 니즈를 채워 줄 문화교육 거점이 세종학당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세종학당재단이사장직무대행 최현승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은희 위원 제가 그 역할을 실감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난 6월에 의원친선힙회에서 중동의 요르단 대사와 면담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 요르단 대사가 저한테—제가 한국 측 요르단 협회 회장에 있는데—가장 먼저 언급한 현안 중의 하나가 세종학당의 지원 강화 요청이었습니다. 요르단 청년들이 한류와 한국 화장품 등에 관심이 높은데 배울 환경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르단의 경우에 교원 1명당 100명의 학생을 가르치는데, 요르단 등 희망하는 나라에 학당을 추가 지정하거나 지원 확대 계획이 있습니까?

○세종학당재단이사장직무대행 최현승 없다라기보다는 저희는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없는 경우에는 교원을 현지에서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나 그런 것들이 크게 문제가 됩니다.

○조은희 위원 총장님,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세종학당재단이사장직무대행 최현승 예.

○조은희 위원 요르단뿐만 아니라 이집트에서도요 입학 경쟁률이 5 대 1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지난해 남아공의 경우에는 수강생 수가 521명이었는데 교원 수도 1명, 학당 수도 1개로 굉장히 열악하다고 해요. 그런데 반면 수강생 수가 유지되지 않고 줄어드는

곳들도 많다고 합니다. 줄어드는 곳은 왜 줄어들지요? 지난해 수강생 수가 직전 연도보다 1만 명은 줄었다고 그래요.

모르시는군요?

○**세종학당재단이사장직무대행 최현승** 예. 줄어드는 경우는 아마……

○**조은희 위원** 파악하셔야 돼요.

○**세종학당재단이사장직무대행 최현승** 예, 알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지금 현황을 제대로 파악을 못 하시면 세종학당이 중심 역할을 한다는 거는 구두선에 그칠 것 같습니다.

에스와티니, 요르단 등 중동·아프리카에서 한류가 뜨거운데 특히 청년층의 인구 비중이 높은 지역들이에요. 이러한 지역에 세종학당을 확대하고요 콘진원과 협력해서 콘텐츠 교육을 강화하면 저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준 것은 전쟁 때문이에요, 이게.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세종학당이 2021년에서 2022년 사이에 수강생 수가 44% 이상 폭발적으로 늘었거든요. 오징어 게임 열풍처럼 K-컬처의 파급력이 세종학당의 수요와 직결되는데 앞으로 현황 파악을 제대로 하시고 대책을 제대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세종학당재단이사장직무대행 최현승** 예, 잘 알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존경하는 이기현 위원님께서 자리에 안 계신데, 아까 저하고 생각이 비슷한 말씀을 했습니다.

정상원 콘텐츠정책국장과 한상준 위원장님께 묻겠습니다.

먼저 국장님, K-콘텐츠가 전 세계를 휩쓸면서 공동제작 수요가 커졌잖아요. 그래서 아까 국제공동제작사업 예산 증액을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얼마 정도가 필요할 건지 추정해 보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 정상원** 일단 저희 금년에 로케이션 지원 사업이 8억 94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었는데 올해 상반기에 다 집행이 완료돼서 이후에는 지원을 못 하고 있고요. 저희가 국회를 통해서 예산 증액하려고 하는 건 로케이션 지원 사업하고 국제공동제작 합쳐서 한 100억 원 정도 저희가 국회 증액을 시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은희 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그런데 저는 한정된 예산으로 예산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데, 영화 할인쿠폰 정책이요. 코로나 때도 20년, 21년에 영화 할인쿠폰을 뿌리고 일시적 흥행을 정책 효과라고 홍보했지만 지금 결과는 영화 산업 나아졌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서 위원장님께 묻는데요.

글로벌 프로젝트 예산 50억, 100억이 아쉬운데 긴급처방이라면서 할인쿠폰, 현금성 이벤트 이렇게 하면 영화관 소득주도성장이 되는 것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의 걱정하시는 부분은 제가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할인권 그것은 99.5%, 거의 전부 소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할인권 자체가 장기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는 거에 공감은 하지만 그러나 긴급

적인 것을, 긴급대책……

○조은희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1분만 더 주십시오, 제가 발언하게요.

○위원장 김교홍 1분 더 드려요.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긴급대책으로서는 어느 정도 효과 얻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은희 위원 위원장님, 그 판단이 틀렸다는 것을, 내 판단이 틀릴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271억 원 예산이면요 영진위 올해 사업 예산의 절반 수준이에요. 그것을 일회성으로 뿐만 아니라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지금 눈치 보시는 겁니까?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요. 산업적으로는 저희가 10월 말이 되면 그게 마감이 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정확한 통계는 나올 것 같고요.

산업으로 보는 이외에도 영화를 문화로 보는 그런 시각에서 볼 때에는 저희는 간과하기 쉬운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에 그러니까 영화관이 없는 지방에서……

○조은희 위원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 때 그때 돈 뿐만 아니라 영화가 효과가 있었느냐고요.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그때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약간 다르다고……

○조은희 위원 지금 예산의 절반을, 사업 예산의 절반을 코로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절반을 뿐만 아니라 지금 효과가 있다고 얘기하시면 그게 납득이 되겠습니까?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코로나 때하고 현재 산업이 위기를 맞는 상황은 조금 다르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마는, 문화적으로 영화관이 거의 없는 그런 지역에서 할인권 덕분으로 오랜만에 영화관에 관객들이 많이 모였다는 기사들이 강원도, 전라남도 비롯해서 많이 나오고……

○조은희 위원 통계를 내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예, 10월 말까지 마감되면 통계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 원주시갑의 존경하는 박정하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정하 위원 저작권국 정향미 국장님, 아까처럼 증언대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국장님 마무리 말씀하셨던 것은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마저 할게요.

오전에는 음악저작권협회 방만하고 지지분한 얘기 말씀, 제가 사례 드렸는데 지금은 간단하게 아주 토할 것 같이 역겨운 얘기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면)

앞서 수사를 받고 있다는 고위직 임원 2명에 대한 비위 사실을 최근 9월 달에 특정감

사를 하면서 직원들이 토로한 내용을 제가 제보를 받았는데요.

거기에 있는 전직 본부장은 작년 10월경에 협회 주변으로 이사를 하면서, 이게 협회 재산인지 본인 재산인지 모르겠어요. 거기 청소를 시켰다는 거예요, 직원들한테. 그리고 움직일 때 운전을 시키고 저녁마다 불러서 밥을 먹고 심지어는 청소시키면서 어떤 직원은 그 치우는 물건 때문에 인간적인 모멸감까지 느꼈다는 거고.

여기 있는 또 H 모 사무총장은 말 한마디로 40억짜리 용역을 53억짜리로 만들어 가지고 그냥 그렇게 집행을 시켰대요. 이런 것도 그냥 막 진행됐어요. 협회 직원들을 그냥 몸종 다루듯 했고 우리 사회에 있는 갑을 문제는 무시하고 거의 황제군단처럼 지냈는데 도대체 그 뒤에 누가 있길래, 뭐 때문에 이런 일들이 계속되는지 그것을 국장님하고 저는 찾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음악을 주로 귀로 듣지만 눈으로도 보고 손으로도 느끼고 하잖아요. 여기 자리하고 계신 김재원 위원님의 창작물도 우리가 어느 순간 느끼게 되는 거고, 봄바람 불면 여수 밤바다 얘기하면서 느끼기도 하는 거고, 추석 때 조용필 선생님 불렀던 노래 가지고 우리 국민들 모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했던 거예요. 그 여러 가지 감각으로 느끼는 음악을 가지고 저작권료라는 게 발생이 되는 거고 그것을 사용하는 건데, 국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것은 우리가 하는 거니까 니네 간섭하지 말아라 이게 됩니까?

제가 국회를 나오는데 어느 날 지하철을 탔어요. 여기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누군가가 공연을 해요. 그런데 귀가 열려 있어요. 저는 공연 보려고 한 게 아니라 국회 출근하려고 했어요.

제가 그 공연의 저작권료를 제공해야 되는 관객인가요, 아닌가요?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국장 정향미 지나가시는……

○박정하 위원 지나가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관객으로 쳐요.

그렇게 막 저작권료를 징수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심지어 넥타이 세탁하는 데도 돈을 썼어요. 이것을 그냥 놔두셨다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국장 정향미 아까도 제가 많이 격해서 강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사실 이 비위 사실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고……

○박정하 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틀려요. 뭘 잘 알고 계셨어요? 아까는 국감 전에, 직전에 아셨다면서요.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국장 정향미 제가 말씀드리는……

○박정하 위원 필요하시면 제가 갖고 있는 것 다 드릴 테니까 제대로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국장 정향미 예.

○박정하 위원 이제 마무리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 구조를 보면 그 안에 누군가가 황제처럼 군림하는 세력이 있어요. 그리고 앞서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5만 5000의 회원들 의사와 상관없이 그 안에는 1.7%, 900명 회원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한테 투표권 줘서 회장을 주야장창 누리고 있는 세력들이 있는 거예요. 그 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이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걱정은 어제 이 음악저작권협회에서 공고를 내 가지고 12월 16일 날 신임 회장을 선출해요. 우리 여기서 맨날 얘기하지만 또 회장 선출이 되고 나면 또 공허한 얘기가 돼요. 이것을 문체부에서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왜곡돼서 회장이

선출돼서 이런 잘못된 구조가 계속되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음악저작권은 한두 사람의 창작인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열려 있는 귀로 다 그것을 들으면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1000개의 바람개비가 돌아가는 것처럼 그런, 국민들이 때로는 공분할 때도 있는 것처럼 그것을 문체부가 꼭 챙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관련 사항을 종감 전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보고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국장 정향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광명시갑의 임오경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한상준 위원장님께 질의할게요.

참고인으로 나와서 물을 때 김덕영 참고인의 발언 관련, 이재명 정부의 압력으로 막았습니다. 막았습니까?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임오경 위원 참 아까 말씀 중에 해명하시는데 가관이 아니더라고요.

여기가 학교입니까?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아닙니다.

○임오경 위원 답변하는 데 있어서 여기가 학교입니까?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아닙니다.

○임오경 위원 저희가 학생으로 보입니까?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아닙니다.

○임오경 위원 여기가 강의실로 보입니까?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그렇지 않습니다.

○임오경 위원 그런데 그런 표현을 쓰셔야 되겠습니까?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잠시 그렇게……

○임오경 위원 아니,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영화계가 지금 어떻게 파장으로 이어 가고 있는데 과거 강단에서 있었던 말씀을 여기에서 비교법을 쓰십니까? 상당히 듣기 불쾌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 신규 영화 제작 편수가 15편도 안 될 것으로 예상 전망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예, 알고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이것에 대한 한국 영화 제작·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무엇을 기획하고 있지요?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그동안에 수차례 저희가 발표했습니다마는 기획, 개발과 그다음에 중예산 그건 저희가 한국 영화를 다시 살려내는 핵심적인 요소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투자에 있어서도 중소기업 중심으로 되어 있던 것을 지금 긴급사항이라고 생각해서 투자도 폭을 넓히는 가능성 그리고 국제공동제작 그런 쪽으로 저희는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제가 이렇게 듣다 보니까 강단에서 교수님 하셨던 거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영화산업이 좋아지겠습니까?

영화계의 공정 성장을 위해 훌드백 법제화 법안을 제가 발의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예, 알고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다양한 의견들도 있지만 영진위에서는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 법제화 기반 마련을 위해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셨습니까?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저희는 지금……

○임오경 위원 1년 지났습니다. 하셨습니까?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각계의……

○임오경 위원 손 놓고 있는 것이지요, 계속해서 현장에서 의견 수렴해서 의원실로 전달해 달라고 했는데 한 번도 찾아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의견 수렴하고 제가 법안 발의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지금 2년째 그리고 계십니다.

또 이어 갈게요.

현재 OTT의 경우 구독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예, 그렇습니다.

○임오경 위원 극장도 관람객 확대를 위해서 정액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저희도 이를테면 학생층이라든가 아니면 시니어층들을 위해서 그런 정책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

○임오경 위원 그것 개발하는 것 실행 방안책 모색해서 의원실로 제출해 주세요.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가져오십시오.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예.

○임오경 위원 특히 청소년들과 시니어 세대들을 위해 제가 생각할 때는 극장체험 확대를 위해서 방학 때 시즌권, 노인 세대들을 위한 시니어 주간권 등의 관람 확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이 필요해 보이는데 영진위에서는 이런 지원 사업은 아예 없지요? 제로지요?

그런 지원 사업은 생각도 안 하시고 계시지요?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아닙니다. 그것도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제가 제안해 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십시오.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예.

○임오경 위원 민간자금 조달 투자기구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그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논의를 하고 있습니까?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예.

○임오경 위원 프랑스의 경우 공적 지원과 더불어 소피카(Soficas)라는 민간자금 조달을 위한 투자기구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프랑스에는 있지요?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예, 소피카 제도가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그렇게 제도 도입, 만들어서 잘 운영되고 있지요? 그러면 그것 모방해서

우리나라도 도입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예, 도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연구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임오경 위원 연구해 놓은 것만 있으면 뭐 합니까? 여기가 학교가 아니라니까요. 여기가 지금 강의하시는 자리가 아니라고요. 연구를 해 놓은 게 있으면 뭐 합니까? 실행에 이행을 해 주셔야지요. 실행하셔야지요.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예, 국내의 가능성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그러면 콘텐츠 불법 촬영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고 계십니까?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콘텐츠 불법 촬영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외 같은 경우는……

○임오경 위원 아니, 저는 국내를 얘기하는 거예요.

최근 외국인이 우리나라 지방의 한 극장에서 상영되고 있는 작품을 촬영하다가 적발돼서 검찰에 송치된 사건 알고 계세요?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예, 그렇습니다.

○임오경 위원 이런 사례가 해외에서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영진위는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 감시를 하고 있지요?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예, 오랫동안 해 오고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불법 유통 감시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해외 극장에서 상영되는 있는 작품들을 촬영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들어서 검찰 송치도 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불법 촬영에 대한 감시는 왜 안 하고 있지요?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그것은 외국의 사례를 따라서 포렌식 그 시스템을 도입하는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지금 현재는 불법 유통에 대한 감시만 하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불법 촬영에 대한 감시는 왜 안 하냐고요. 이것은 왜 안 하시고 계시냐고요. 하십시오, 문제가 된다고 답변하셨으니까.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예, 하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제가 지적한 홀드백 등 공정 성장 관련 정책 투자 활성화 방안, 불법 촬영 근절 방안에 대한 실행 방안을 빠르게 모색하셔서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제가 2년 동안 같은 말 지금 계속해서 위원장님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가져다 주십시오.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정상원 국장님, 답변 들으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 정상원 예, 들었습니다.

○임오경 위원 저 국장님한테 요청한 것 아닙니다. 이번에는 제가 한상준 위원장님에게 요청했습니다. 반드시 옆에서 쟁기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 정상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이어서 질문을 좀 드리는데요.

영진위원장님, 올해 영화가 한 18편 정도 됐지요?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올해는 아직 마지막까지 나오지는 않았고……

○위원장 **김교홍** 18편 정도 된다고 그래요.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예, 그런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그런데 그 이전까지는 한 40편 했다 그래요. 그렇지요?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예, 40편에서 50편 정도 될 때의 한국 영화가 유망하게……

○위원장 **김교홍** 그런데 지금 너무 심각해요. 이마다 보니까 임오경 간사도 지적을 했지만 영화산업이 굉장히 지금 힘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예산 영화에 대해서 예산을 좀 늘리겠다고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하시던데 이것 집중적으로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영화업계에 있는 분들하고 제가 간담회를 해 보니까 ‘케데현이니 폭싹 속았수다니 오징어게임이니 이런 것에 너무 들떠 있지 마라, 제발 그런 얘기 좀 하지 마라, 우리 영화 산업 죽겠다’ 이런 얘기가 지배적이에요.

그리고 영화에 종사하는 분들이 다 떠나고 있어요, 지금. 떠난다고, 조명감독부터 해서 촬영감독, 거기 있는 분들이. 왜냐하면 영화산업이 안 되니까 그분들도 일자리 구해서 다른 데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것 심각해요. 이마다 보면 나중에 정점에 있는 K-컬처가 내려올 수가 있는 그 상황이 된다 이거예요. 이것 잘챙기셔야 됩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그냥 평범하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정말 집중적으로 해서 홀드백 문제도 있고 지금 1만 2000원 정도 받는 것도 좀 내리라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잖아요. 이런 각계 여론들을 잘 들으셔서 이것 제대로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예, 위원장님 말씀 그리고 위원님들 여러 말씀, 저희는 영화계와 계속 의견 수렴을 하고 의견을 나누면서 계속 잘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그리고 콘텐츠진흥원장대행님, 지금 뉴콘텐츠 XR·AI 기업 지원센터 운영하시지요?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행 **유현석**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그런데 이게 지금 매년 35억씩 투자했지요?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행 **유현석**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그래서 한 6년 동안 지금 한 200억가량 지원을 해 왔는데 콘진원이 나주에 있다고 해서 부속기관인 뉴콘텐츠기업지원센터가 나주로 가라 이겁니까, 지금? 왜 서울에 있느냐 이거지요?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행 **유현석** 예, 국토부에서 지방 이전 일단……

○위원장 **김교홍** 그런데 지금 이 센터는 직원이 3명밖에 안 되지요?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행 **유현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사실 지방 이전에 큰 의미가 없잖아요.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행 **유현석** 예,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연구를 진행 중에 있고요.

○위원장 **김교홍** 연구 진행이 아니라 지금 내가 보기에는 이것 문 닫아야 되겠다, 그리고 문체부에서도 이제 앞으로 지원 못 해 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행 **유현석** 예, 그런 방향으로……

○위원장 김교홍 담당 국장님 누구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 정상원 콘텐츠정책국장입니다.

○위원장 김교홍 지금 이것 지원 안 하려 그런다면, 내년까지만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 정상원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현재 지출……

○위원장 김교홍 내년 예산도 한 9억 깎았잖아요? 삭감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 정상원 예, 지금 올해 지출 구조조정 사업으로 묶여서 일부 예산이 삭감된 측면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일부가 아니라 9억이나……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 정상원 예, 8억 9000이 깎였습니다. 그래서 국회를 통해서 이번에 좀 같이 증액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증액은 좋은데 그러면 내년까지만 센터를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 정상원 현재 광화문에 있는 CKL지원센터하고 뉴콘텐츠지원센터가 당초에 국토부에서 인정해 준, 승인을 받은 그런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화시대위원회에서는 지방 이전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는 그것에 대한 의견을 계속 국토부에 내고 있습니다. 이게 콘텐츠 기업들에 대한 입주 공간으로 되게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필요성을 적극 개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교홍 뉴콘텐츠기업지원센터가 있느냐 없느냐가, 그 직원들이 있느냐 없느냐는 중요치 않아요. 지금도 보면 한국 AI실감메타버스콘텐츠협회가 이걸 운영했다고, 직원이 한 게 아니고.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행 유현석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그렇지요?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행 유현석 예.

○위원장 김교홍 그러니까 이 협회를 통해서 위탁 관리를 하든 뭐 하든 중요한 것은 뉴콘텐츠기업지원센터가 했던 그 역할과 기능은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지방화시대위원회에서 내려가라 그러면 3명 내려가면 되는 거고 이 역할과 기능은 그대로 남겨서 협회가 하고 문체부가 관할을 하든 콘진원이 관할을 하든 그걸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이걸 계속 살려야 돼요. 오히려 나는 예산을 더 증액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보세요, 구글이 말이에요. 스텐퍼드대학원생들이 기숙사에서 시작한 거예요. 그게 지금 시가총액 3조 달러예요. 우리 돈으로 4200조 원. 그 다음에 인터넷으로 DVD 비디오를 빌려주던 넷플릭스가 지금 시총 5000억 달러가 됐어요. 이게 지금은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미미할지 모르지만 이것이 대한민국의 먹거리를 만들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제 앞으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삼성전자에서 이 디바이스를 어제 시판을 처음으로 했어요. 이것 보세요. 알고 계십니까? 콘진원 원장님은 아세요? 모르지요? 모르잖아요.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행 유현석 실물은 처음 봤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그러니까 모르고 있는 거지, 그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니까요. 제가 이것 일부로 가져오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 주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문

체위원장 하기 전에 산자위원하고 문체위원하는 김윤덕 국토부장관—지금은 갔지만—둘이서 세미나를 두 번이나 했어요, 이걸. 실제로 AI·XR·VR 이걸 다 실증하는 이 작업들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이름만 걸어 놓고 콘진원에서 뭐 한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연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깔아 주고 지원을 해 주라는 말이에요. 나는 오히려 35억이 아니라 이걸 좀 더 지원을 해서, 지금 보면 애플은 이미 작년에 비전프로를 내놨어요, 애플이. 메타는 2019년부터 퀘스트를 선보이면서 시장을 선도해 왔어요. 우리는 이제 나온 거거든, 늦었어요. 문체부의 국장님도 심도 있게 이것 보고 심각하게, 콘진원 원장님도 이것을 심각하게 봐서, 이게 단순히 지방시대위원회에서 ‘나주에 콘진원이 있기 때문에 내려가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니까, 정말로. 세 분은 내려가라고, 직원들 세 분은. 그렇지만 이 센터는 남겨 두고 문체부가 직접 운영하고, 거기에 AI실감메타버스콘텐츠협회가 있으니까, 거기가 지금까지 운영해 왔다고. 운영해서 예산을 더 지원해서 집중적으로 이게 될 수 있게끔 꼭 하세요, 국장님.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 정상원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예산은 우리 여야 위원들이 힘을 합쳐서 할 테니까, 그다음에 콘텐츠진흥원장대행님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행 유현석 예, 알겠습니다. 문체부랑 잘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꼭 하세요.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행 유현석 예.

○위원장 김교홍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면 세종학당재단의 최현승 총장님, 아까 조은희 위원님도 좋은 말씀 하셨는데 K-콘텐츠가 전 세계에 자리 매김하면서 대한민국을 향한 세계인들의 관심이 무엇보다도 높아요. 지역에 따라서는 세종학당 들어가려고 진짜 몇백 대 일 되고 그러는데 이분들이 사실 외교관보다 더 현지인들을 많이 만나거든요. 현지 외교관보다 더 현지인들을 많이 만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분들한테 예우를 잘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보면 우리가 국내에서 이 교원을 선발해서 보내는 경우도 있고, 현지에서도 선발하지요?

○세종학당재단이사장직무대행 최현승 예, 현지 교원을 따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예우를 더 올려서 해 줘서 아주 훌륭한 선생님들이 갈 수 있게끔 하는 제도 이게 필요한데 이게 지금 가만히 보니까 우리 세종학당이 전 세계 87개국 중에 252개소에서 운영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교원들이 나가서 징계를 많이 받아요. A라는 나라를 가는데 A라는 나라를 안 가, 본인 마음에 안 듣다고. 거기서도 징계를 받고, 술 먹다가 돌아다니다가 징계받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지난 3년 동안 열다섯 분이 징계를 받아요. 그중에 8건이 중징계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분들 1인이 대한민국을 대표한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이 선생님들 한 분이, 그분들보고 현지인들이 대한민국이 저렇구나 이렇게 느낄 것 아니에요. 맞지요?

○세종학당재단이사장직무대행 최현승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위원장 김교홍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예우도 올려 주고 이분들이 다른 마음 먹지 않

게끔 제대로 관리를 해 주고 이렇게 해야지, 세종학당의 해외에 나가 있는 교원들 관리하는 분들이 우리 재단에 3명밖에 안 되지요?

○**세종학당재단이사장직무대행 최현승** 예,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3명이서 어떻게 이분들을 다 관리할 수 있어요? 이게 잘못된 편제라니까. 그렇지 않아요?

○**세종학당재단이사장직무대행 최현승** 예.

○**위원장 김교홍** 말씀해 보시라고.

○**세종학당재단이사장직무대행 최현승** 제약이 좀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개선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교홍** 반드시 개선해야 돼요. 제가 몇 가지 정리하면 이분들은 한국을 대표하는 분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의 예우를 잘해 줘서 좀 능력 있고 실력 있고 신실한 분들이 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라.

그리고 세 번째는 이분들이 다른 마음 먹지 않고 현지에서 제대로 아이들을 교육시킬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관리 감독을 해 줘야 돼요, 우리 세종학당재단에서. 이걸 해서 이분들한테 동기부여를 해 주라고, 이분들한테 동기부여를, 좀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동기부여. 그래서 나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민으로서 현지에 와서 대한민국을 알리는 작업을 한다, 문화를 알리고 한글을 가르치고 이런 것들을 느끼고 가르칠 수 있게끔 세종학당에서 꼭 해 주세요.

○**세종학당재단이사장직무대행 최현승** 예, 교원의 처우를 우선적으로 개선하고 그 사람들이 거기에 나가서 보람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사명감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감사합니다.

이제 보충질의까지 마치고요. 10분간 쉬셨다가 3분 추가질의를 하고 국감을 종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야 간사님끼리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중단했다가 5시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감사중지)

(17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교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추가질의를 하기 전에 아까 김승수 위원께서 콘진원을 대상으로 의장실 얘기를 하면서 한 것은 뭔가 좀 바로잡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의장실에 확인해 본 결과 의장과 관계있는 것도 아니고 의장께서 현장에 갔다가 현장에서 민원을 접수받아서 ‘이러면 안 되겠구나, 좀 알아봐야겠구나’ 해서 임오경 의원실에 연락을 해서 임오경 의원실의 비서가 의장실에 가서 콘진원 담당자와 만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의장은 국회의장의 지역구니까 그렇고 국회의장하고 관련이 있는 것처럼 김승수 위원께서 얘기하신 것은 바로잡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은희 위원** 세 번 만난 건 사실입니까?

○위원장 김교홍 몇 번은 내가 확인을 못 했는데 만난 거는 맞아요. 그래서……

○임오경 위원 의장님의 현장에서 민원을 청취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우리 의원실을 불러서 연결해 준 거예요, 비서가.

○위원장 김교홍 그래서 김승수 위원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잡아 주시고, 이게 아마 속기록에 그렇게 다 돼 있어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언제라도 김승수 위원님 확인해 보시고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승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교홍 의사진행발언?

○김승수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받은 자료 그거는 제가 임의적으로 이야기한 자료가 아니고 콘진원으로부터 앞서 질의에도 말씀드렸듯이 받은 자료고 그때 누가 언제 의장실에 찾아가서 누구하고 만났다는 게 자료에 정확하게, 콘진원에서 저한테 전달한 자료가 정확하게 있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만난 건 사실이에요.

○김승수 위원 그리고 그러면 어떤 이야기가 나누어졌고 그 이후에 어떤 조치가 있었느냐 그리고 그 해당 업체가 그런 업무상 배임이라든지 업무방해죄 이런 쪽으로 형사책임과 민사상 배상책임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발한다고 그러더니 왜 지금까지도 미적거리고 있느냐에 대해서 관계되는 자료, 제가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라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출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위원장 김교홍 아니에요, 그거는 아까 김승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의장의 지역구고 의장과 마치 관련이 있는 것처럼 아까 말씀하셨던 말이에요. 속기록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 속기록을 제가 정정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김승수 위원님의 사실 상황을 잘 파악하셔서 다음번 회의 때 말씀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문제는.

○김승수 위원 제가 했던 발언 그리고 콘진원에 추후적으로 제가 궁금하다고 이야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소명이 되면 그 결과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간사님, 하실 말씀……

○박정하 위원 예, 저도 의사진행발언……

저는 추호도 위원장님 말씀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의 의장실 얘기를 듣고 전해 주신 거나 이런 걸로 보면 지금 콘진원에서 감사가 진행 중인데 혹시 이게 가이드라인으로 비쳐질 수도 있어요. 위원장님께서는 지금 독립적인 감사가 진행 중이니까 오늘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있었던 얘기가 감사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콘진원에 당부를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아니, 감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아까 김승수 위원님께서 얘기한 게 마치 국회의장이 관련된 것처럼, 또 국회의장의 지역구에 있는 업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그 부분만은 분명히 바로잡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행 유현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넘어가시지요.

다음은 순서를 바꾸셨네요. 존경하는 대구 북구을의 김승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승수 위원** 질의 전에 또 간단하게 자료 하나 요구하고 가겠습니다.

앞서 영진위·영등위 관련해서 등급이라든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관람가 등급과 시청가 등급이 있습니다.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관람가 등급은 영등위에서 영화나 이런 데 대해서 등급을 매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청가 등급은 방통위에서 방송되는 대상을 가지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일반인들도 헷갈리지만서도 상당히 이게 보면 혼선이 있을 수도 있고 또 2개가 어느 정도 좀 연계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제가 관련된 자료를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람가 등급과 또 방통위의 시청가 등급을 하는 과정에서 기관 간의 협의라든지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일관성을 갖추기 위해서 하는 그런 세부 가이드라인 기준 자료가 있는 것인지 또 굉장히 불일치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개선방안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종감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교홍** 예, 그렇게 해 주시지요, 위원장님. 자료 요청.

○**영상물등급위원장 김병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그러면 김승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수 위원** 세종학당에 대한 질의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요즘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폭증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세종학당에 대기하는 그런 인력들도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덩달아서 한국어능력 시험 지원자도 많은데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별로 보면 거의 절대다수가 아시아 지역에 사시는 외국인들이 한국어능력시험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하나 재미있는 것이 있는데 지금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들 대상으로 논문이 하나 발표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왜 한국어를 배우느냐 하니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첫째는 한국어를 배워 가지고 취업이라든지 이런 경제적인 활동을 하려는 것 또 한국에 이민이나 유학을 오려는 이런 목적이 있고 또 하나의 동기는 한류나 K-콘텐츠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또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취업 목적, 경제적 목적은 개발도상국 외국인들이 많고 또 콘텐츠는 선진국으로 갈수록 많은 걸로 나타났어요. 여기에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거지요. 세종학당에서 이렇게 외국인들 대상으로 교육을 할 때 너무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교육할 것이 아니고 이런 수요와 목적에 맞게 교육 프로그램……

또 사실은 특히 이렇게 이민,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더 한국어 역량을 키우려는 그런 생각이 많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키울 수 있는 연계 시설이라든지 연계 프로그램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맞춤형으로, 시설 확충뿐만 아니고 맞춤형 서비스라든지 프로그램 지원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세종학당재단이사장직무대행 최현승** 일단은 정부안으로도 내년도 저희 문화아카데미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120% 증액이 됐고요. 그래서 결국은 한국문화와 연계시키는 그 과정을 강화시키는 거고 앞으로 교과 과정도 우리 한류문화의 어쨌든 그런 부분을, 선호를 반영해서 교과 내용이 한국어와 문화가 같이 연계되도록 한 노력들 그런 것들을 같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김승수 위원** 하여튼 시설 확충도 시급합니다만 수요에 맞게 맞춤형으로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을 앞으로 특화해서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학당재단이사장직무대행 최현승** 예, 잘 알겠습니다.

○**김승수 위원** 영진위원장님, 한국영화 시나리오 공모전이 있지요?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예, 있습니다.

○**김승수 위원** 이게 지금 여성가산점 제도가 시행되다가 역차별 논란이 나오니까 제도를 바꿨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다양한 가산점이 만들어졌는데 오히려 개악이 됐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전에 여성가산점 제도는 전체 100점 만점에 추가로 5점을 주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다양성 가산점은 오히려 실제 100점 만점에 5점을 부여하기 때문에 다양성이 포함이 안 된 영화는 아무리 좋게 평가받아도 95점밖에 안 나오는, 그러다 보니까 역차별될 수밖에 없는……

또 순서가 다양성 가산점이, 그러니까 즉 LGBTQ라고 그래서 레즈비언, 게이……

1분만 더……

LGBTQ,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렌스젠더, 여기 외에 지역이나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영화에 포함, 시나리오도 영화에 포함돼야지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단 말이지요. 그러다 보면 사실은 이게 소수이기 때문에 가산점을 주라는 건데—다양성을 확산시키기 위해서—전체보다 소수가 어떻게 보면 과다, 과잉 개입이 될 수도 있는 거다, 이렇게 5점씩 여기다 주면. 그러나 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술성이나 어떻게 보면 작품성이 높은 영화는 지원 대상에서 빠지고 엉뚱한 영화가 또 받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2003년에 문체부에서 시나리오 공모전에 관련해서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한 개선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가산점 제도는 폐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새로이 소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현재 주류 영화들이 폭력 소재가 많다 보니까 시나리오 공모전에 있어서는 다양성을 중시한다는 면에서 여러 가지 지역이라든가 성별이라든가 그런 요소들을 넣어서 5점으로 해서 그것을 공모할 때 같이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 소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으로서 전제조건으로 해서 그러한 어떤 다양한 소재들을 한국영화에 도입한다는 의도에서 했기 때문에 그걸 지금까지 계속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승수 위원** 다양한 소재의 창작물이 나오는 거는 좋은데 이게 자칫 하다 보면 전체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을 오히려 가산점을 주다 보면 과잉, 과대…… 어떻게 보면 대두돼 가지고 오히려 오해라든지 역차별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크다는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책을 강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예, 영화계와 의견 수렴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연욱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 정연욱 위원 최현승 세종학당재단이사장님, 아무래도 우리가 세종학당 그러면 여러 동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위낙 K-컬처의 첫 관문이자 처음으로 이게 한국에 문을 두드리는 거잖아요, 외국인들이. 그런 관문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애쓰시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전제를 하고 얘기할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관련해서 세종학당이 지난 3년간, 23년부터 올해 9월까지 받은 민원이 9400건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대부분이 로그인 불가, 비밀번호 분실, 인증번호 미수신, 아주 기초적인 시스템 문제입니다. 단순한 이용자 불편이나 시스템 결함이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아주 사소한 시스템 문제가 이렇게 문제가 된다면 한국에 대한 첫인상 문제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벌써 이게 2023년도부터 해서 지금 올해까지 해서 계속 이렇게 지속적인 문제인데 과연 이런 부분까지도 한번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더 심각한 건 아마 제가 볼 때는 이거 아닌가 싶어요. 학습 관련 민원입니다. 지난 같은 기간 동안 교재나 수강, 강의 등 학생 관련 민원만 해도 3597건입니다. 4000건이 안 되는 이 정도 숫자까지 계속되면 교재를, 가장 기본적인 학습교재겠지요. 다운로드 할 수도 없고 강의 진도율이 반영도 안 되고 수강신청 화면이 아예 안 열리고 교재 자체를 구할 수도 없다 이런 민원이 벌써 매년 이렇게 수백 건씩 쏟아진다면 우리가 K-컬처 얘기하고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 첫 관문인 세종학당의 위신이 어떻게 됩니까? 신뢰도 문제부터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런 기초적인, 벌써 전 세계에 벌써 84개국이지요. 244곳에서 18만 명 이상의 외국인 학습자가 세종학당에 참여하고 있는데 아마 이 숫자는 계속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 세종학당재단이사장직무대행 최현승 예.

○ 정연욱 위원 이런 기초적인 시스템 오류를 계속 방치할 경우에 어떻게 K-컬처, 이게 로그인이 문제라고 하는 이렇게 나오는…… 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외국인 학습자들이 겪는 불편이나 이런 것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렇게 하는 이용자 품질관리체계 이런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건 뭐 당연히 하셔야 되겠지요, 앞으로도?

○ 세종학당재단이사장직무대행 최현승 예. 그 부분은 제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점검을 하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연욱 위원 이게 단순한 일개 민원창구가 아니라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대하는 어찌 보면 첫 관문이기 때문에, 로그인 문제가 이슈가 된다는 것도 좀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 세종학당재단이사장직무대행 최현승 예, 잘 알겠습니다.

○ 정연욱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난 8월부터 아마 각종 재단의 여러 가지 임직원들의 비위행위들 이런 익명 신고를 받는 레드휘슬을 운영하고 있지요?

○ 세종학당재단이사장직무대행 최현승 예, 그렇습니다.

○ 정연욱 위원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갓 시작하는 단계니까 큰, 이제 겨우 한 5건

정도가 접수가 됐답니다. 그런데 물론 이게 첫 시작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시정하시고 점검하시는 체계를 갖춰야 되겠지만…… 지난 11월 인도네시아 바우바우 세종학당은, 학당장이 그 대표지요. 사적으로 비품을 사용하는 것이 확인됐고 더 나아가 현지 체류 조건을 위반해서 이민국에 진술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결국 이 바우바우 세종학당은 지정 해제가 됐고요.

올해 7월에 벨기에 브뤼셀 세종학당 학당장이지요. 그쪽의 대표지요. 예산을 혼용했다고 합니다. 아마 한인회장이니까……

○**세종학당재단이사장직무대행 최현승** 예, 그렇게 된 상태입니다.

○**정연욱 위원** 계좌를, 통장을 같이 썼다고 그러는데 업무처리 미숙함이라고 주의로 끝났다. 주의 조치라는 게 좀 약간 너무나, 이게 처음이니까 여러 가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한인 회장 자기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걸 겸하니까 여러 가지 실수가 있다, 그렇게 너무 쉽게…… 솜방망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비위 자체가 종종 나올 수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세종학당재단이사장직무대행 최현승** 일단은 현장 점검을 갔을 때 영수증에 혼용 문제가 어쨌든 지적이 됐고 현장 점검 담당자가 판단했을 때 단순한 시행의 착오다라고 어쨌든 저희가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일단 주의를 줬습니다만 그런 이슈가 있는 어떤 학당인 경우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면 더 큰 조치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연욱 위원** 세종학당이 마지막으로 남은 최고의, 최전선의 민간 외교 창구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 더 엄격하게 하셔야 되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더 엄격히 할 수 있다는 계획을 세우신 다음에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학당재단이사장직무대행 최현승**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기현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이기현 위원** 유현석 콘진원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시상식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행 유현석** 예, 알고 있습니다.

○**이기현 위원** 콘진원이 진행하지요?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행 유현석** 예.

○**이기현 위원** 이것과 관련된 용역 위탁심사가 매년 있어 왔지요?

PPT 띄워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면)

평가위원들 중에 그 해당 용역업체의 임원이 참석했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지요?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행 유현석** 예, 말이 안 됩니다.

○**이기현 위원** 그런데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18년에도 있었고 20년에도 있었습니다. 18년에도 74년 최고점을 찼어요, 자기가 소속한 업체에. 그리고 2020년에는 19년에 퇴직하고 1년이 지났지만, 조달청 행정규칙에 따르면 퇴직하고 3년 이내에는 취직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알고 계시지요?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행 유현석** 예.

○**이기현 위원** 그런데 1년 밖에 안 되신 분이 가서 87점, 뒤에 보시는 분들이 60점대인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밀어주고 이 업체가 입찰이 돼서 당선이 돼 가지고 이 일을 수행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요?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행 유현석** 예.

○**이기현 위원** 콘텐츠진흥원에다 소명을 요구했더니 ‘본인들의 경력을 속였기 때문에 콘진원에서는 확인할 길이 없었다’ 정도의 아주 약한 변명을 해 주셨는데.

체크리스트 한번 봅시다. 셀프 체크리스트가 저렇게 한 3개, 4개 정도 돼요. 글자도 작은데 ‘상기와 같이 평가위원 참여제한에 해당사항이(YES)하고 없음을 확인합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예스, 노 체크해서 노 노 노 노 되면 아무 문제없는 거고 예스면 소명하고 이런 식인 거지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기계적이고 그리고 형식적인 체크리스트로 과연 이렇게 범죄의 의도를 가지고 들어온 사람은 막을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책 제안드리는 데, 콘진원에서 관리 못 한 것, 부실에 대해서 질책하지만 어쩌겠습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고요. 아까 그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자기 경력 중에 임의 경력만 골라서 제출을 하면 콘진원에서 확인할 방법이 없지요. 그런 거 아닙니까?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행 유현석** 예, 맞습니다.

○**이기현 위원** 이렇게 되면 체크리스트가 형식적인 절차에…… 그냥 빠져나가는 거예요, 의도를 가지고 들어온 사람은. 이건 개인의 일탈이 아닙니다. 저는 범죄행위라고 봅니다. 어떻게 자기가 속했던 기업에 최고 점수를 주기 위해서 콘진원을 속이고 들어와서 입찰에 들어갑니까?

그래서 저는 형사처벌을 체크리스트에 분명히 고지하고 경력사항도 모두 다 체크리스트에 붙여서, 받아서 적어도 그 사람이 고의로 자기 경력을 누락하고 들어온다고 하면 이것 자체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체크리스트가 되지 않으면 이거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행 유현석** 예. 사실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이기현 위원** 간단하게……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행 유현석**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이기현 위원** 제가 끝난 다음에 혹시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행 유현석** 예, 알겠습니다.

○**이기현 위원** 그렇게 하지요.

영진위 위원장님, 개봉 영화 ‘소주전쟁’ 아시지요?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예, 알고 있습니다.

○이기현 위원 제작 과정에서 감독 해촉 등의 크레디트 문제가 발생했지요?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예.

○이기현 위원 이거 막아야 되겠지요?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예.

○이기현 위원 콘텐츠정책국장님, 연극·뮤지컬·음반·공연에서도 이런 일 벌어지고 있습니다. 막아야 되겠지요?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 정상원 예.

○이기현 위원 관련돼서 표준 크레디트 규정 모델을 만드는 등 분쟁조정 지원방안 만들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예,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이기현 위원 또 하나, 영진위 위원장님, 독립영화 예술인 유통·배급 지원예산이 확충이 필요합니다. 정말 작은 예산으로 인디그라운드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도 설립 당시에 18억이었던 걸 13억으로 줄였어요. 그중에 또 인건비는 30%만 쓰라고 해요. 그러면 3억 9000인데 그중에 이걸 가지고 10명 이내의 전문 실무가들을 배치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한 사람당 연봉 3000만 원입니다. 경력 있는 직원들이 10명씩 3000만 원 받고 일을 해낼 수 있겠습니까?

샐러리캡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예산 더 증액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예.

○이기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인디그라운드 플랫폼 AI 고도화 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플랫폼 운영체계 구축 연구보고서를 아마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보고서대로 지금 계획 잡고 계십니까? 아니지요?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기현 위원 인디그라운드와 싸운 독립·예술영화 온라인 상영 빅데이터는 아주 귀중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문화적 자산입니다. 독립영화가 공적 OTT를 통해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AI 기반 서비스도 필요하고 명실상부한 독립영화 통합플랫폼이 계속 유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돼서 사업 추진과 예산 확보 관련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계원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한상준 위원장님, 영화진흥위원회는 과거 국가 폭력이었던 블랙리스트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고 피해자 구제를 위해 2022년에 기관 스스로 영화진흥위원회 블랙리스트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위를 구성했지요?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예.

○조계원 위원 그리고 그 특위에서 블랙리스트 피해자 인정 연구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를 근거로 피해사실 인정안을 2023년 5월 9일 특위 위원 11명 중 9명의 찬성 의견으로 의결했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를 영진위에서 최종 의결해 달라 요청이 들어왔지요?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예.

○조계원 위원 그런데 23년 6월 30일 당시 영진위는 이 안건을 심의 의결 안건으로 상정하는 것 자체를 부결시켰어요.

한번 볼까요, 화면?

(영상자료를 보면)

스스로 만든 특위의 연구 결과와 공식적인 요청을 정면으로 거부했는데 거부 사유가 보면 ‘포괄적이고 형식이 적절하지 않다 판단된다’, 형식이 중요합니까, 그렇게?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그 당시에 문체부 백서에 피해가 입증된 건에 있어서는 저희가 피해자분들에 대해서 그때 사과하는 등 그러한 피해를 인정을 했습니다마는 포괄적이라는 것 속에는 직접 관여한 게 입증되지 않은 사람도 많고 그래서 그 당시에 위원회에 의결을 넘기는 것에 대해서 통과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계원 위원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다시 올리라고 하든지 해야지 의결 안건 자체를 올리지 않는 것은 사실상 피해자 구제를 미루려는 명백한 책임 회피 아니겠습니까? 이는 고통 속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제가 보기에는 두 번의 상처를 주는 행위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앞으로 이를 개선하고 다시 한번 그 현장과 소통해서 특위와, 특위는 이미 해산이 됐지요?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예, 해산됐습니다.

○조계원 위원 현장과 소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이후 이 문제에 대한 영진위의 입장과 후속 조치, 그 결과에 대해서 정리해서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예, 알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다음은 박정렬 한국저작권보호원장님, 저작권보호원이 불법신고 접수 및 모니터링하여 조치한 해외 불법 저작물 유통 사이트가 2735개에 달하고 24년 해외 불법 저작물 유통 사이트에 저작권 침해 저작물에 대한 삭제 요청 수는 37만 4246건에 달하지요?

○한국저작권보호원장 박정렬 예.

○조계원 위원 그런데 실제 삭제된 건 12만 2407건, 결국 삭제율은 최종 33%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저조한 삭제율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의 저작권을 보호하고 K-콘텐츠를 세계에 널리 퍼지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강력한 단속과 선제적 접속 차단으로 불법 저작물의 유통을 근절해야 한다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화면 한번 띄워 주시고요.

○한국저작권보호원장 박정렬 예, 그렇습니다. 해외 쪽에서 들어오는 불법 저작물에 대

해서는 접속 차단이 제일 중요한데요. 그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사이트가 나오자마자 바로바로 해서 저희들이 차단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계원 위원** 그러니까 방통위하고도 잘 연계해서, 선제적인 접속 차단이 제일 중요해요. 지금 화면 보시면 ‘런닝맨’, ‘아는 형님’, ‘미운 우리 새끼’ 등등 중요한 우리 한국의 피와 땀이 들어간 저작물들이 불법 복제로 이게 침해받고 있는 겁니다. 이건 적극적으로 저작권보호원에서 구제에 나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선제적 접속 차단을 포함한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근절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장 박정렬** 예. 임오경 위원님께서 제출한 접속 차단하는 권한을 저희 보호원으로 오게 하는 그런 법안을 제출하셨는데요. 이게 통과되면 적극적으로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계원 위원** 1분 더 안 줬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1분 안 줬어요?

○**조계원 위원** 예, 아직 안 줬습니다.

세종학당재단 이사장직무대행님, 지난번에도 지적했는데 세종학당이 지금 87개국 252 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지요?

○**세종학당재단이사장직무대행 최현승** 예.

○**조계원 위원** 그런데 지난 2020년부터 25년 6월까지 63건의 세종학당이 지정 해제되었고 이 중 73%인 46건은 운영 기관의 자진 해제였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세종학당재단이사장직무대행 최현승** 예.

○**조계원 위원** 그런데 자진 해제의 주요한 사유는 재정 수익성의 부족으로 운영이 어렵다 이렇게 해서 자진 해제되었다고요. 알고 계시지요?

○**세종학당재단이사장직무대행 최현승** 예.

○**조계원 위원** 그리고 국가별 지정 해제 현황을 보면 중국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어요. 13건이 발생했고요.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독일 같은 경우는 지정된 지 50일 만에 해제하기도 하고요. 결국 이렇게 부실하게 운영하다 보니까 2023년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B등급에서 2024년에 C등급으로 강등됐지요?

○**세종학당재단이사장직무대행 최현승** 예, 그렇습니다.

○**조계원 위원** 세종학당 운영관리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도 세종학당을 30년까지 거점 20개소, 일반 세종학당 370개소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지요?

○**세종학당재단이사장직무대행 최현승** 예, 그렇습니다.

○**조계원 위원** 이렇게 운영이 부실해 가지고 제대로 계획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세종학당재단이사장직무대행 최현승** 지금까지 약간의 과거에 있어서 경제적인 또는

전쟁이나 또는 한한령 또는 코로나19 그런 요인들도 있기는 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정적 문제들이 세종학당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원을 늘릴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도 규정 같은 것들을 좀 더 신축적으로 해서 세종학당들이 약간 동기 부여를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세종학당은 단순한 한국어 교육기관이 아니라 문화외교의 최전선 거점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재단은 신규 지정 단계의 철저한 사전 검증 그리고 지정 이후의 전 과정에 걸친 모니터링 및 계약 관리의 제도화 그리고 국정과제와 중장기 계획에 부합하는 질적 관리 강화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대책들을 세워서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학당재단이사장직무대행 최현승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정적 측면에서 세종학당의 지원금이 오히려 감소된 면이 있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의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합리적인 재정안은, 예산은 얼마든지 받아들이고 지원할 테니까요 잘 세워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학당재단이사장직무대행 최현승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손솔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손솔 위원 한상준 위원장님, 윤석열 정부에서 영화 예산 많이 삭감됐었습니다. 복원되어야 합니다.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예.

○손솔 위원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전액 삭감된 영화 예산 중에 대표적인 사례가 지역 영화문화 활성화 사업입니다. 정부가 바뀌었는데 지역 영화문화 활성화 사업 예산은 복원이 잘 안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예, 그때 지역 예산은 2024년도에 전체적으로 36.3% 감액되면서 이렇게 되었고요. 저희도 올해에 지역 예산을 부활시키기 위해서 애썼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 애쓰겠습니다.

○손솔 위원 지역에서 영화를 만들고 또 보고 이런 것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거든요. 원래 사업은 중장기 로드맵대로 진행되고 있었고 문화소외지역으로 확장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삭감돼서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존경하는 이기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독립영화 예산도 지원이 더 확충되어야 하고요. 산업의 논리를 정부에서는 다양성으로 영화가 더 이후로 계속해서 생태계를 만들어갈 수 있게 지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면)

독립영화 예산, 청소년 문화향유권 예산, 지역 영화문화 활성화 사업 예산 복원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그 필요성은 저도 절실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독립영화 전용관이 없는 지역을 대상으로 멀티플렉스를 포함해서 일반 영화관에서 독립영화를 볼 수 있도록 60개 관을 지원하는 그런 예산을 내년에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결시켜서 지방에 계속 하겠습니다.

○손솔 위원 삭감된 게 많아요. 복원시키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예.

○손솔 위원 그리고 성평등센터 관련 질의드렸었는데, 존경하는 조계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면서 기존 피해자 11명 지원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두 달치 심리치료비를 지원하신 거더라고요.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그것 세부적인 사항 제가……

○손솔 위원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지원이 돼야 성폭력 피해라는 것이 회복이 되고 센터에서 목표로 한 일상회복 지원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단히 단기적이고 임의적 이거든요. 피해자가 지금 센터에 여덟 분 더 계시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센터가 목표에 맞게 운영이 되려면 입찰 방식 반드시 재고해야 되고요. 기존 피해자 지원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제가 확인한 것 두 달치 심리치료비 지원한 거거든요. 그게 끝이에요. 그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영화에서 여성 영화나 다양성 영화에 가산점을 주는 제도는, 1분만 더……

적극적 평등 조치 아닙니까? 현존하는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적극적인 평등 조치는 역차별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인권위원회에서도 그렇게 판단한 바 있습니다. 여성 영화 가산점제는 역차별이 아니고 현존하는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 평등 조치로 인권위에서 결정했습니다. 다양성 가산점은 영화 생태계의 다양성을 더 보장하는 것으로 만들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예, 영화계와 그래서 계속 논의해서 의견 수렴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솔 위원 단순히 역차별이 있다라는 주장만으로 제도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위원님 말씀 잘……

○손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수현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수현 위원 박정렬 한국저작권보호원장께 불법 웹툰과 대학가 불법 복제 근절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원장님, 최근 불법 웹툰의 공급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창작자들의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는 것을 잘 인식하고 계실 것이고 이로 인해서 K-웹툰 산업 전체가 위협을 받고 있는데……

혹시 원장님, 주로 많이 접하시는 용어 중에 재유포율이나 재발률 같은 이런 용어를 알고 계십니까?

○한국저작권보호원장 박정렬 예, 들은 적 있습니다.

○박수현 위원 예?

○한국저작권보호원장 박정렬 예, 들은 적 있습니다.

○ 박수현 위원 들은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한번 잘 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실태를 보시겠습니다.

PPT 보여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면)

대표적인 불법 웹툰 사이트인 뉴토끼 등 2개의 사이트 트래픽을 분석해 보니 2024년 한 해 동안 총 조회수가 42억 9300만 회, 순방문자 수만 4억 8900만 명, 즉 대한민국 인구의 9배에 달할 정도입니다. 이로 인한 피해 추정액은 2023년에만 4465억 원으로 이 산업 규모의 20% 수준에 해당합니다.

다음 PPT 보시면 더 큰 문제는 국민의 인식 수준입니다.

불법 웹툰을 이용하는 이유 중에 유료결제비용 부담이 32.8%인데 웹툰은 유료 결제할 가치가 없다 이게 12.2%나 되거든요. 창작물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만연하고 있는 것이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저작권 인식 개선 예산을 우리 한국저작권보호원은 23년에 3억 5000만 원에서 24년에 17억 원으로 확대했지만 그래프에 보시는 대로 인식 개선은 14.9%에서 12.2%로 거의 변화가 없어요. 예산은 약 14억 정도가 늘었는데 단순한 캠페인과 홍보물 제작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불법 복제가 범죄이고 타인의 노동을 훔치는 행위だ라고 하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자리잡을 수 있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문제는 이런 불법 복제가 웹툰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학가에서 교재를 스캔해 가지고 태블릿 PC로 보는 것이 일반화되었는데 보호원의 조사에 따르면 대학생의 62%가 전자스캔본 교재를 이용한 경험이 있고 그중 절반 이상, 62.5%가 친구끼리 공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불법 제본이 더 이상 오프라인 복사소의 문제가 아니라 무인스캔방과 개인 네트워크를 통해 유통되는 보이지 않는 복제 시장으로 확산되었음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저작권보호원의 대응은 여전히 중고거래 플랫폼이나 커뮤니티 모니터링 수준에 머물러 있다.

아까 제가 그래서 재유포율이나 재발률 같은 것들을 들어 본 적이 있느냐 그랬더니 들어 본 것 같다 정도의 답변을 하셨는데, 이게 핵심적인 용어거든요.

1분만 쓰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핵심 통계 용어조차 들어 본 것 같다는 정도의 인식을 갖다가 어떻게 사회 전반의 인식을 개선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피해 규모 역시 정부 차원에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학술 출판업계도 불법 복제로 인해서 매출액 20%는 손실을 입고 있다고 하지만 보호원은 산업계 추산치와 괴리가 있을 수 있다 또는 해외 주요국도 피해액을 공식 산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유를 대면서, 이건 사실상 피해액 산정을 거의 포기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래서 결론은 불법 복제에 대한 기본적 통계를 정밀화해야 하겠다, 여기서부터 시작

해야지요. 아울러서 AI 기반 실시간 모니터링 구축이나 수사기관과의 공조 강화, 중대성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장 박정렬**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들 저작권보호원이 나아갈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침해 규모에 대해서는 그게 모델의 정치성,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누구나 쉽게 받아들일 수 있고 일관성 있는 그런 모델이 필요한데 현재까지는 한 번 봤을 때 5000이라고 그러면 전 세계에 4억 1000만 개의 저작물이 있는데요 단순하게 곱하기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정밀한 모델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 중이고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게 확정이 되면 발표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연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해외 쪽에서 영상보다는 70%, 30% 정도로 웹툰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해외 쪽의 인식개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저희들이 2024년도에 홍보 예산이 많이 증액된 것은 여러 당국들과 협의를 해서 결국은 저작권 문제는 국민들의 인식, 해외에 있는 국민들의, 시민 인식이 제일 중요하고 마지막에 의식이 바뀌어야 스스로 구입해서 쓰게 된다는, 그런 인식 하에서 저희가 접근을 해서 예산을 땄고 기다려 보고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들이 국제사회와의 공조 사업을 통해서, 수사기관과의 공조 사업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결국 운영자를 잡아들여야 최종적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체 사이트 나오면 그것도 다시 차단시키고 하는 노력인데요.

저희들이 최근에 하고 있는 목표 진행 중에 있는 게 국제기구, 국제사회, 다른 나라들과의 국제 공조 수사를 위한 포털, 아니 플랫폼을 만들기 위한 R&D 사업을 콘진원과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등등 여러 가지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좀 더 자켜봐 주시면 나아지겠다. 그리고 4년 전보다, 저희들이 4년 전에는 침해율이 20%였는데요 작년에는 19.1%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저작권을 보는 인식이 차츰차츰 좋아지고 있고 저희들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면 조만간 18%대로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수현 위원** 첫 번째 연구 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한국저작권보호원장 박정렬** 저희들이 지금 1차 초안이 나왔는데 발표하기에는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국민 전체가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권리자나 아니면 이용자들이 받아들일 만한 통계 수치가 모델이 개발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그러면 단순하게 하나 보는 데 5000원이다 그러면 4억 1000만 개 × 5000을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전환율, 전환율 등등 여러 가지 검토, 다양한 안을 가지고 지금 연구 중에 있고요. 지금 문제부랑 협의를 해서 성숙이 되면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수현 위원** 길고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배현진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배현진 위원 김병재 영등위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넷플릭스 다음으로 유명한 미국의 대표 OTT지요, 아마존 프라임이라고 아시지요?

○영상물등급위원장 김병재 예.

○배현진 위원 제가 설명드려도 될까요?

○영상물등급위원장 김병재 예.

○배현진 위원 국내 구독자가 160만 명, 이게 지금 보니까 누구나 자유롭게 가입과 결제, 시청이 가능한 상태고 이 사이트 내 각종 메뉴, 영상 포스터를 한글로 표시하는 등 한글 서비스도 이미 시작을 해서 하고 있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국내 실시간 인기 콘텐츠 순위를 추천해 주는 것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넷플릭스처럼 영등위로부터도 등급분류 심의나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 같은데 희한하게도 160만 명이나 구독하고 있는 OTT 사업자가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승인 그 대상에 안 들어가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영상물등급위원장 김병재 이 회사가 지금 잘 아시겠지만 해외의 이를테면 직구형 형태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배현진 위원 직구 형태처럼요?

○영상물등급위원장 김병재 예, 그러니까 국내에서 홍보도 하지 않고 국내 결제 서비스도 하지 않고 다만 한국 자막만 서비스하는 단계로 지금, 본격적으로 들어왔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배현진 위원 약간 판단을 잘못하신 것 같고.

본격적으로 사업은 하고 있지만 사실상의 국내 사업장을 내지 않고……

○영상물등급위원장 김병재 예, 그렇습니다.

○배현진 위원 변칙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이것 국내 사업망에 들어올 때까지 저희 정부기관은 감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영상물등급위원장 김병재 이게 국내 진출을……

○배현진 위원 언제…… 계속 이렇게 하면 어떡해요? 국내법 적용을 안 받으려고 지금 변칙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라면, 영업상의 마케팅 수단을 통해서?

이것 좀 문제가 되겠지요? 공감하시지요?

○영상물등급위원장 김병재 예, 문제가……

○배현진 위원 오전에 존경하는 민형배 위원님이 국내법을 회피하는 해외 게임사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면서 국내대리인 제도에 관한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아까 놀랐습니다. 공교롭게도 저도 오늘 이 문제를 심각하게 여겨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이른바 영비법 개정안을 발의해서 이렇게 국내 사업장을 두지 않고 변칙적으로 운영하면서 우리 국내법과 이를 테면 세금 회피 등을 하고 있는 변칙 영업을 바로잡기 위한 법을 제안했거든요. 오늘 이렇게 됐는데요. 영등위에서 우리 망에 안 들어온다 하는

것은 너무 수동적인 입장인 것 같습니다, 우리 콘텐츠를 보는, 소비하는 많은 우리 소비자들, 국내 관람객들을 지키는 데서는요. 공감하시지요?

○영상물등급위원장 김병재 예, 그렇습니다.

○배현진 위원 이게 콘텐츠정책국에서 주무 부처지요?

○영상물등급위원장 김병재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 정상원 예, 맞습니다.

○배현진 위원 이 부분은 국회에서 저희 의원들이 함께 합심해서 법안을 제안을 했기 때문에 그냥 들어올 때까지, 나무에서 감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콘텐츠정책국, 문체부에서 주관을 잘해서 공조하셔서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영상물등급위원장 김병재 예,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계속해 가지고요, 그래서 만약 그런 징후들이 명백하면 그때……

○배현진 위원 이미 모니터는 제가 지금 해서 드린 거고요. 국내대리인 제도를 도입해서 어쨌든 저희 망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문체부와 함께 적극적으로 노력하시고 문체부도 저희 국회에서 법안 통과 노력할 테니까 함께 시행 빨리 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 정상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상물등급위원장 김병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현진 위원 그 조치 사항 준비해 주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 정상원 예.

○영상물등급위원장 김병재 예.

○배현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민형배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영진위원장님, ‘홀드백’ 아시지요?

○영상물등급위원장 김병재 예.

○민형배 위원 (영상자료를 보면)

저것 한번 보실래요? 쿠팡플레이에서 광고만 보면 바로 해 준다, 완전한 무료 시청이 가능하다, 이런 사례가 많이 있나 보지요?

○영상물등급위원장 김병재

○민형배 위원 처음 보셨어요?

○영상물등급위원장 김병재 아닙니다. 저것 광고 보면서 이용료 내지 않는……

○민형배 위원 올해 ‘검은수녀들’, ‘파파’, ‘소주전쟁’ 개봉 한 달 만에 OTT에서 공개가 됐습니다. 특히 유료로 단권 결제하는 IPTV에서는 한 사흘 차이로 영화가 걸렸는데 바로 그냥 OTT에 나오는, 이러면 영화산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상물등급위원장 김병재 산업에 악영향……

○민형배 위원 저 생태계를 보시면 저기서 한 축이 무너지는 거예요. 홀드백 어떻게 유지해 가고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시렵니까?

○영상물등급위원장 김병재 저희는 영화계 전체의 상생을 위해서 홀드백……

○민형배 위원 그렇게 추상적인 말씀으로는 안 됩니다. 제도화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

다.

○**영상물등급위원장 김병재** 예, 찾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콘진원장직무대리 맡고 계시지요?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행 유현석** 예.

○**민형배 위원** 혹시 디 뮤 뮤 하는 작품인데 콘진원에서 지원을 받아서 제작을 했어요. 그런데 IP 활용 애니메이션 제작지원 사업에 선정돼서 6억원을 받았는데 여기서 임금 체불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행 유현석** 임금 체불은 애초에 대표가 서약을 해서 그 증명을 가지고 시작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만……

○**민형배 위원** 보세요, ‘체불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라고 해 놨는데, 저것 보세요. 아시겠지요, 저기 오른쪽 위에 ‘체불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그런데 서약하면 뭐 합니까, 안 지키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것?

그래서 제가 콘진원에 임금 체불 포함해서 분쟁 상황 발생했냐고 물어봤는데 그런 것 없대요, ‘그런 게 하나도 없다’. 전수조사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행 유현석** 분쟁 상황이 없다고?

○**민형배 위원** 예.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행 유현석**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런데 영화인신문고에는 계속 올라오거든요?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행 유현석** 예, 제가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러니까 몇 개가 올라와 있던데 업체들 전수조사하셔야 되는 것 같고. 서약서를 쓰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 이행해야 되잖아요. 반드시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체크해 주십시오.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행 유현석** 저희가 법적 권한이 사실 없기 때문에요.

○**민형배 위원** 그러니까 그 법적 근거를 만드셔야 된다고요.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행 유현석**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김홍준 영상자료원장님, 저 영화들 혹시 아십니까? ‘아리랑’, ‘임자없는 나룻배’, ‘악야’, ‘춘향전’.

○**한국영상자료원장 김홍준** 예, 한국 영화의 고전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다음에 ‘생명’, ‘별아 내 가슴에’, ‘만추’, ‘잡초’, 아시지요?

○**한국영상자료원장 김홍준** 예, 다 알고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 이 영화 필름 갖고 계십니까?

○**한국영상자료원장 김홍준** 저희가 소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 왜 못 합니까?

○**한국영상자료원장 김홍준** 영상자료원이 설립된 것이 1974년이고요.

○**민형배 위원** 그러면 이전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국영상자료원장 김홍준** 이전 것은 지금도 저희가 찾고 있고 또 때로는 기증받고 있는데 체계적으로 공공아카이브를 통해서 필름이 수집되고 보존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한국 영화의 귀중한 유산들을 저희가 지금 소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매우 큰 아쉬움

이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 이게 한 1500편 이상, 국내 영화 중에 1500편 쯤 된다면서요?

○한국영상자료원장 김홍준 예, 식민지 시대부터 따지면 그렇게 됩니다.

○민형배 위원 그때도 우리 영화는 우리 영화니까요. 이 아카이브 제도에 구멍이 특히 또 하나 있는 것 같은데 OTT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징어게임은 거기서 소장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국영상자료원장 김홍준 저희가 수집할 권리가 없고 기증될 경우에만 소장하고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한국영상자료원장 김홍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민형배 위원 방법을 찾으셔야겠지요?

○한국영상자료원장 김홍준 예, 그렇습니다.

○민형배 위원 OTT는 영화 제출 의무가 없잖아요?

○한국영상자료원장 김홍준 예, 극장용 영화로 영화 등급을 받을 경우에만 저희에게 의무 납품 제도로 제출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기증자의 선의에만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민형배 위원 그러니까 96년부터 의무 제출 제도가 시행이 됐는데, 그래서 이 부분 공백을 메꿀 방법을 꼭 찾아주시고요. 방안이 나오는 대로 저희 방으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한국영상자료원장 김홍준 예, 가급적 국회에서 이미 시대의 환경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영화 및 비디오에 대한 법률을 개정을 할 때 저희 영상자료원의 목소리도 반영이 돼서 이러한 소중한 저희의 문화유산들이 순조롭게 수장되고 보존되고 또 활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은희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님,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영화 제작하면 날씨같이 또 장비 대여 문제가 있어서 빨리 촬영을 끝내야 한다는 상황들에 부딪히잖아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산업 특수성을 고려해서 주 52시간제에 대해서 탄력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 위원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저희가 아는 바로는 주 52시간 이내에서 탄력적으로 지금 일부 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넘어서는 것은 법적인 문제라서 그 부분은 굉장히……

○조은희 위원 저는 넘어서라는 게 아니고요. 현장 목소리를 좀 조사해 보시고요.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애로사항이 뭔지 좀 알아서 탄력적 적용이 가능하면 현장의 목소리를 좀 반영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예, 알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건 좀 다른 문제인데 작년 국감 때도 얘기된 것 같은데요. 영화표의 수익 배분 구조인데 지금 넷플릭스나 OTT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한 달 구독료보다 주말 극장가가 더 비싸거든요. 1만 5000원, 1만 8000원 이상도 하잖아요.

그런데 티켓가는 계속 오르고 통신사 할인 의존도는 커지는데 정작 영화 제작 투자사에게 돌아가는 수익은 점점 줄어드는 분배 구조라는 말이지요. 어떻게 대응하고 계십니까?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객단가의 문제는 저희가 통신사라든가 그쪽 할인 과정에 대해서 사실 조사의 권한이 없습니다.

○조은희 위원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통신사·영화 간의 사적 계약이니까 우리는 권한이 없고 이것 정산 의혹은 공정위에 가서 공정위의 결과가 나와야 되고, 저는 이런 말씀을 듣고 싶어서 질의하는 것 아닙니다. 결과만 기다리지 마시고요. 현재 분배 구조 예를 들면 1만 5000원에 티켓을 구입하잖아요. 소비자는 1만 5000원에 구입하는 티켓을 통신사는 7000원에 대량 구매해하는데 이런 깜깜이 벌크 계약을 그냥 두면 지금 위원장님께서 보호해야 될 실제 제작자들이 피해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그냥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우리는 몰라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영상자료를 보면)

화면 한번 보시면, 티켓값에 따른 수익 분배 구조를 시뮬레이션하면요 1만 5000원짜리 티켓을 이통사 할인받아 1만 원에 사면 실제 수익은, 배급사 투자사로 오는 수익은 30%, 5000원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 1인당 1500원 덜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10만 명이 들어오는 영화라 치면 1억 5000만 원 손해입니다. 이런 수익 분배 구조 고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하면요 영화가 흥행과 오락에만 치중하고 정말 영화다운 영화를 만드는 데 누가 하겠습니까? 다 해외로 달려가지요. 그러니까 넷플리스로 달려가는 거잖아요. 그 점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구체적인 대응책을 내주십시오.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예, 지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계와 함께 저희도 대안에 대해서 많은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를 테면 현실적으로 그러면 그 할인의 폭을 줄일 수 있는 것부터 해 갖고 각계의 어떤 합의를 얻어서 결론을 도출하려고 영화계와 협의해서 계속 애쓰고 있습니다.

○조은희 위원 일단 심각하고, 계속 애쓰고 계시면 결과를 내놓으라는 말입니다.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정하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정하 위원 감사합니다.

원주 출신 국민의힘의 박정하입니다.

영등위 김병재 위원장님, OTT 자체 등급 분류 제도 시행한 지 한 2년 정도 지났어요.

○영상물등급위원장 김병재 예, 그렇습니다.

○박정하 위원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이 OTT 자체 사전심의 결과하고 영등위 사후심의 결과가 불일치하는 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3년에 4건, 24년에는 2건이던 게 금년에는 8월까지만 해도 17건이 돼요.

제가 보니까 어떤 작품은 자체 등급에서 15세로 분류되었는데 사후 영등위 심의에서는 청소년 관람 불가로 상향이 됐는데 제가 얼핏 이렇게 보니까 슬라이드도 못 띄울 정도로 너무 세요. 이것 어떻게 해요?

○영상물등급위원장 김병재 지난 국감 때 그런 지적이 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지금 OTT 지정사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불일치하는 경우에 페널티를 준다든가 그런 방식으로 해 가지고……

○박정하 위원 페널티를 줘도 이미 노출이 돼서 보면 안 되는 애들이 이미 다 봤어요.

○영상물등급위원장 김병재 예, 그래서 수정할 수 있는 그 기간이 지금 대략 10일이 걸립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마지막 단계인 사후관리위원회를 한 5일간 줄여 가지고 5일로 축소하게끔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박정하 위원 열흘을 5일로요?

○영상물등급위원장 김병재 예.

○박정하 위원 그래도 5일은 또 노출이 되잖아요?

○영상물등급위원장 김병재 그런데 그게 일치할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불일치할 경우에는 그 지정사들도 이의신청을 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다 계산을 해 보고 저희가 또 모니터링을 보통 한 3일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 합쳐서 계산하면 그래도 반쯤은 줄일 수가 있다는 그런 계획 아래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정하 위원 지금 현재 열흘에서 한 5일 정도는 줄일 수 있는데 5일의 캡은 어쩔 수가 없다? 그래도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더 고민해 봐 주세요.

○영상물등급위원장 김병재 예.

○박정하 위원 그래서 종감 전에라도 얘기를 저희 방에 해 주세요.

○영상물등급위원장 김병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하 위원 또 하나는 작년에 국감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왕에 TV에서 기송출된 광고인데 영화관에서 틀려면 또 심의를 받아야 돼요.

○영상물등급위원장 김병재 예, 맞습니다.

○박정하 위원 이것 좀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것 어떻게 돼 있지요?

○영상물등급위원장 김병재 지금 지난 1년 동안 광고물에 대해서 검토를 좀 했고요. 지금 현재 방송……

- 박정하 위원 용역한다고 했는데 용역 결과 나왔어요?
- 영상물등급위원장 김병재 저희가 용역을 한 것은 아니고요.
- 박정하 위원 아니고?

- 영상물등급위원장 김병재 예, 저희가 자체 내에서 검토한 결과 지금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방송에서 할 수 없었던 그런 광고물이 극장으로 왔을 때 할 수 있는 것 그런 것은 다시 한번 재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현재 지금 방송광고와 같은 내용에 있는 것은 광고 방송을, 광고 영업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지금 발의 중에 있거든요. 이게 거기에 더해 가지고, 그 발의된 안을 보니까 거기에다가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 그러니까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방송에서 했었던 그런 방송들을 극장에 와서 할 수 없게끔 하는 그런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위원회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박정하 위원 지금 발의된 법안 중에 위원장님 말씀 주신 건 조금 보완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인 거지요?
- 영상물등급위원장 김병재 예, 그렇지요. 추가로 보완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위원회의 생각입니다.
- 박정하 위원 저희도 안에서 감안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 임오경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교홍 의사진행발언.

- 임오경 위원 콘진원 뉴콘텐츠기업지원센터 시설 위탁운영 대상자 선정 과정에 있어서 공공입찰 과정에서 올해 3월 10일 우선 선정된 대상 업체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올해 5월 19일에 갑작스럽게 선정을 취소합니다. 그리고 6월 9일 2순위사와 운영 위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우원식 의장님께서는 2021년부터 지역구 노원구에서 시·구의원들과 함께 현장 민원실을 야외에서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친절한 우원식 의장님께서는 올해 7월 그 민원을 받고 콘진원이 문체위 소관이라고 해서 그 비서가 제 비서에게 연락을 해서 이거를 경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의원실 비서가 이 문제는 콘진원에게 바로 토스를 해준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를 들었을 때 콘진원의 공공입찰 신뢰성에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선정 절차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국회의장이신 우원식 의장님은 너무나 친절하게도 노원구에서 민원을 받은 것을 저희 의원실에게 그 민원을 토스하셨고 저는 또 그거를 듣고, 제가 아니지만 저희 비서는 저에게 보고를 하지 않고 바로 콘진원에게 또 이 부분에 있어서 민원을 넘긴 걸로 최종 그렇게 의견을 저도 전달받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원식 의장님의 민원을 받은 것은 7월이고 이게 최종 결정된 것은, 3월 10일

에 우선 선정되었다가 취소된 것은 5월 19일이고 그리고 2순위가 선정된 것은 6월 9일로 체결됐다라는 것을 확인받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질의하시지요.

○임오경 위원 유현석 원장직무대행님께 질문할게요.

올해 국내 최대 게임쇼인 지스타 규모가 작년 대비 줄어든 것 알고 계시지요?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행 유현석 예, 기사에서 봤습니다.

○임오경 위원 그런데 독일 게임스컴과 일본 도쿄게임쇼는 역대 최대 규모로 열렸습니다. 게임쇼 규모만 축소된 것이 아닙니다. 수출액도 우리는 축소되었습니다. 2023년 한국 게임 수출액은 전년 대비 6.5% 감소했어요. 반면 게임 1편당 평균 제작 비용은 60억 원대로 늘어났습니다.

부원장님, 콘진원의 게임개발 지원 사업, 단년제가 대부분이지요?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행 유현석 예, 대부분이 단년제입니다.

○임오경 위원 게임을 1년 만에 개발을 할 수 있습니까?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행 유현석 아까도 그 유사한 질문을 제가 받은 바가 있고요.

○임오경 위원 그렇지요? 이건 다년제 지원을 확대해야 된다라고 말씀 계속 하시는 거지요?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행 유현석 예, 업계에서도 그런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우리 게임사들은 K-콘텐츠 펀드의 지원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고 24년 업종별 신규 투자금액 중 게임 분야 투자액은 999억 원으로 3년 만에 57.6%가 감소했습니다. 게임업계에 대한 투자가 위축되고 있는 거 사실이지요?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행 유현석 예, 맞습니다.

○임오경 위원 또 콘텐츠산업 수출액 중 64%를 게임업계가 차지하는데 세액공제 대상에서도 제외되었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행 유현석 예, 아직은 대상이 아닙니다.

○임오경 위원 정상원 국장님, 유현석 부원장님, 같이 들어 주십시오.

정부 K-콘텐츠 50조 원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면 콘진원은 게임사 지원 사업을 다년제로 변경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문체부 또한 K-콘텐츠 펀드에 게임 계정을 신설하는 등 종합적인 개선안을 마련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행 유현석 예.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 정상원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검토 꼭 해 주십시오.

국어원 윤성천 직무대행님께 질의할게요.

‘크레이트 한강’, ‘리버버스’, ‘러너스테이션’이 우리말입니까?

○국립국어원장직무대행 윤성천 외국어입니다.

○임오경 위원 이거 국어기본법 위반입니까?

○ **국립국어원장직무대행 윤성천** 예,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은 국민이 알기 쉬운 문장과 용어로 어문규범에 맞도록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 **임오경 위원** 이게 모두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세우는 서울시 대표 정책들입니다. 이외에도 국어원은 서울시의 빈번한 외국어 사용, 어문규범 위반에 대해 약 5000건을 지적했음에도 서울시가 국어원 지적에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어요. 만만하게 생각하는 건가요?

○ **국립국어원장직무대행 윤성천** 일부는 반영을 했고요. 그러니까 영어로 직접 쓰는 것들은 밑에 한글 표기로 됐는데 그것을 우리말로 하는 것들은 아직까지는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 **임오경 위원** 서울시는 여의나루역에 러너스테이션을 조성했을 때 한글 병기 없이 영어 알파벳으로만 표기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 **국립국어원장직무대행 윤성천** 예.

○ **임오경 위원** 수많은 언론이 지적들을 했고 서울시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결국 우리 의원실에서 직접, 이후에 국문이 병기됐다라고…… 또 나서기 시작했지요. 그랬더니 또 바꾸더라고요.

최진 국어정책과장님, 서울시 처음에는 국어기본법 위반인지도 몰랐지요?

○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장 최진** 예.

○ **임오경 위원** 1분만 더…… 마무리하겠습니다.

의원실에서 국감 때 문제 삼는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정정한 거지요?

○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장 최진** 예, 맞습니다.

○ **임오경 위원** 그거 다 알고 있지요?

○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장 최진** 예.

○ **임오경 위원** 한글날에도 오세훈 시장의 국어 파괴는 이어졌습니다. 러닝을 했다는 동 정보도 자료가 나왔었어요. 그것도 알고 계신가요?

○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장 최진** 그것은 알지 못했습니다.

○ **임오경 위원** 같은 날 의원실에서 제가 한글날이었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 국어 파괴 보도자료를 내자 오세훈 시장 보도자료에 ‘서울 달리기’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다시 정정했습니다.

윤성천 대행님, 서울시가 왜 국회 지적은 신경 쓰는데 우리 국립국어원의 지적은 무시 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무시할까요?

○ **국립국어원장직무대행 윤성천** 열심히 하겠습니다.

○ **임오경 위원** 오세훈 서울시장과 일선 공무원들의 국어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닐까요?

국립국어원과 문체부는 종감 전까지 제도개선안을 마련해서 의원실로 제출해 주세요. 이거 계속해서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수정, 보완하지 않고 바꾸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닙니까. 언제까지 의원실에서 나서서 지적해야지만 바꿉니까. 그러면 저하고 자리를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립국어원장직무대행 윤성천** 일단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공문도 나갔고 저희가 구두로 계속 요청하고 있고 지금 계속 자문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관장의 의지부터 전체적인 문제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계속해서 저희가 협의하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문제점이 있는 것은 의원실이 나서지 않아도 국어원에서 알아서 시정조치 취하게 해서 바로 그게 시정조치 취해진다면 팬찮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게 늦어지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립국어원장직무대행 윤성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교홍**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현 위원님.

○**이기현 위원** 의사진행발언 30초만 쓰겠습니다.

아까 제가 콘진원의 원장님에게 용역 위탁 심사 관련돼서 생겼던 문제에 대해서 지적했고 제도개선 방안 마련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원장님께 대답할 시간을 드리기로 했는데 제가 다른 질의를 너무 많은 것들을 하다 보니까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답변 준비하셨을 텐데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팬찮으시겠습니까?

○**위원장 김교홍** 예.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행 유현석**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주신 위원님의…… 애초에 사실은 저희가 국감 준비하면서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설명 잘해 주셨다시피 체크리스트에 체크를 안 하면 현재 구조로서는 저희는 알 수 없는 그런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희가 이런 평가가 있을 때 예시를 들어서 전에 이러이러한 사례가 있어서 이러한 제재 조치를 받았다는 것을 구체화시켜서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게 현재까지 기준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형사고발이라든지 이런 것은 법적으로 저희가 그거를 할 수가 있는 건지는 한번 저희 법무팀하고 검토를 한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교홍**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 안 계시지요?

그러면 이것으로서 추가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지적 및 고견을 주셨습니다.

먼저 콘텐츠진흥원에 대해서는 게임산업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다는 문제, 보조금 부정 수급 적발 업체에 대한 재지원 문제, 보조금 중심 단년도 공모체계를 성과 기반 다년도 지원 및 출연금 전환으로 검토할 필요성, K-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필요성 등에 관한 질의가 있었으며 영화진흥위원회에 대해서는 제주4·3사건을 왜곡한 작품의 독립영화 심의 부적절성, OTT 관련 제도 정비의 필요성, 청소년 영화교육 확대 필요성, 한국영화 성평등센터 운영 개선 필요성 등에 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저작권위원회와 협회 간 인적 중복으로 인한 공정성 저해 우려, 음악저작권협회의 방만한 운영 및 내

부감사 부실 문제, 생성형 AI 학습과 저작권 침해 대응 필요성 등을 비롯한 다양한 정책 질의도 있었습니다.

유현석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리를 비롯한 오늘 피감기관 기관장들께서는 위원님들이 감사 과정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하여 주시고 대안 등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정책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에서 손솔 위원님, 조계원 위원님, 임오경 위원님, 김승수 위원님, 박수현 위원님, 이기현 위원님, 민형배 위원님, 정연숙 위원님, 양문석 위원님, 진종오 위원님, 박정하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해당 기관은 답변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일주일 이내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을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감사에서 김승수 위원님께서 정책자료집을 배포하셨습니다. 자료집을 내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당 기관들은 자료집 내용을 잘 살펴 주시고 향후 정책 수립 과정에 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한국콘텐츠진흥원과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 등 14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는 연합뉴스에 대한 비공개 업무보고가 연합뉴스 사옥에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감사는 10월 27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대한체육회 등 7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현석 한국콘텐츠진흥원장직무대리를 비롯한 피감기관의 기관장 등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보좌진 여러분, 수석전문위원과 위원회 직원 여러분, 속기·경위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12분 감사종료)
